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 2015년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 검토 연구 보고서



2015. 12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CENTER

(미래교육부)

- 연구 요약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진로수요의 증가이다. 미래는 '진로의 시대'이다. 2015년 6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고 12월부터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초·중·고 일선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를 두고 진로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구성, 시행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전면 실시이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몇 년의 시범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진로탐색과 진로교육을 통해 추후 고교선택에 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수평적 다양화의 관점이다. 기존 고교 선택에는 수직적 다양화가 주를 이뤄왔다. 특수목적고인 국제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을 전기에 선택하고 후기에 일반고 등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목적고는 학생들중에서 소수 엘리트만이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중에서도 국제분야, 외국어분야, 과학분야의 관심과 적성이 있으나 성적위주의 특수목적고에 입학하지 못하는 관계로 일반고내에서 그 역량을 펼치지 못해온 게 사실이다. 또한 위 분야외에도 예체능 등 다양한 진로 적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진로에 대한 능력을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학생들을 위한 수평적 다양화의 관점에서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인 교육복지의 관점이다. 기존의 교육복지는 수동적 교육복지의 형태를 보였다. 빈곤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자녀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비교적 가시적으로 바로 드러나는 대상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중도학업중단학생들이 결국 학교밖 청소년으로 가는 숫자가 매년 3,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수동적 교육복지에서 적극적인 교육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남만의 진로교육에 대한 특성화된 정책의 부재이다. 경남의 특성화고 비율은 전국 최저이고 반대로 일반고 비율은 전국 최대 비율인 것으로 통계적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진학 프레임에서 진로 프레임으로 급격히 바뀌는 교육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진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경남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5가지의 필요성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상응하여 경남의 특성화된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대안적 방안으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대안 학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통해 일반학교와의 진로 인식, 진로탐색, 진로 효능감 차이 등을 분석하여 정리했다.

둘째, 경남과 타 지역의 대안학교 현황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경남 및 타 지역 특수목적고 및 대안학교 현황을 조사했다. 현황의 중점은 학교의 특징, 한계점 등을 위주로 조사했다. 경남은 대안고교와 특수목적고인 외고, 과고, 예술고, 체고, 마이스터고 등을 조사했다. 타 지역은 주로 대안고교 위주로 조사했다.

셋째,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관련 아이디어 도출, 설문 내용 수정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설문지 초안을 창원지역 1개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확정했다.

넷째, 확정된 설문지를 경남지역 전체 267개 중학교의 중1 학생과 그 학부모, 중2 학생과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작위 확률표본의 방법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일간 진행했다. 설문의 회수는 총 221개 중학교로 회수율은 83%를 기록했다. 총 응답표본은 21,682명이 응답했다. 학부모는 10,613명이 응답했고, 학생은 11,069명이 응답했다. 이중 유효 응답은 총 19,916명이며, 학부모는 9,529명, 학생은 10,387명이다. 통계분석은 IBM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Ⅲ. 연구 결과

첫째, 설문자 전체(학부모, 학생)의 희망 고교 선택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대안학교(진로)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市지역은 일반고와 특목고에서, 郡지역

은 특성화고와 대안학교(진로)에서 선호가 높은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둘째,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는 郡지역이 市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과 도시 비평준화 지역이 도시 평준화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구분측면에서는 여학교, 남녀공학학교, 남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학의사 선호율이 높았다.

셋째, 진로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는 기타, 음악, 미술, 영화·연극, 한방·약초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비중이 높았던 기타분야는 체육, 요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중 母는 미술 분야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했다. 통학수단은 기숙과 통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분야는 체육, 문화예술, 과학, 학업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중 母는 문화예술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市지역은 문화예술, 과학, 학업 분야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郡지역은 체육 분야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진로에 대한 상담자는 부모님(또는 부모님 지인), 기타, 담임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타항목은 ‘상담자가 없음’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市지역은 부모님(또는 부모님 지인)과 학원(또는 과외)선생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郡지역은 상대적으로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 계발의 사교육 분야는 영어, 기타, 음악, 미술, 요리, 연기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타분야는 체육과 수학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관한 기타 의견은 ‘예체능외 다양화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와 ‘특정 부류층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열린 학교가 많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학교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일반학교 내에 동아리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견과 ‘진로 다양성 프로그램과 체험할 곳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정책 제언

1. 공립 예술형 대안고교(1개분야 중점형) 권역별 설립

연구결과를 보면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의 희망분야 선택에 대해 기타(체육, 요리)가 많고, 그 다음이 음악, 미술, 영화연극, 한방약초 순이었다. 따라서 공립 예술형 대안고교를 경남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예술형 1고교, 2고교, 3고교, 4고교 등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예술형 1고교는 연기중심, 2고교는 음악중심, 3고교는 미술중심 등으로 대안고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형 대안고교는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한 분야만을 설립하는 것이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로와 취업도 시대 흐름의 유행을 따라가므로 하나의 분야만을 학교 명칭으로 하여 설립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다소 크다 하겠다. 과거 단성고에 한방학과가 있었으나 학생수요가 없어 폐과되었고, 골프과가 있었으나 역시 폐과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형 대안고교라는 명칭을 주명칭으로 사용하고 지역과 권역의 특성을 살린 1개의 중점분야를 부명칭으로 부가시킴으로써 추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의 흐름에 따라 융통적으로 상황에 맞게 학과와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을 새로이 하는 것도 특화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진로 혁신학교, 진로 행복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아니면 공모를 통해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에 대한 네이밍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보다 다양한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술학교외에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 의견이 많았던 체육, 요리(조리), 과학과 국제언어특성화학교(다문화 학생과 중도입국학생 대상) 등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역시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 위주의 소수 엘리트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만들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운영한다. 다음은 과학과 국제언어특성화 학교에 대한 설립배경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1) 과학형 대안학교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과학고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중 체험과 실험 위주의 과학 교육과 인프라 수요 상존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설립한다.

둘째, 체계적인 과학 수업과 체험위주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로생애 설계와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능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원의 기계, 사천의 항공 산업 등 우리지역 특화산업을 계약학과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자연계, 이공계를 원하는 다수의 보통 일반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제언어특성화 학교

첫째, 이중 언어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일부 수용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물론 모국의 언어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과 이중언어 특기를 특성화로 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역량 배양을 도모한다.

둘째,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때 들어오는 한국어가 매우 서투르지만 이중언어의 특기를 가진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이해를 도와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시간을 제외하고 다수의 일반 교과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과목교사가 다른 중·고등학교에서 방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분노조절장애 촉발 가능성)하나 이를 치유해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해줄 교사나 인력 부족하므로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함.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 시스템으로 학업중단 및 이탈률이 증가하므로 국제언어특성화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특기를 배양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 공교육 편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통일시대의 대안을 준비하고 남한사회에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경남은 베트남, 중국, 일본, 고려인(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등)이 다문화 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의 주류를 이루므로 위 언어를 기반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언어특성화 학교를 설립하여 공교육에서 수동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돌봄의 목적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중언어를 비롯한 특기와 적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일반고 내 진로 중점과정 및 다진로 프로그램 개발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 고교 유형은 일반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남은 일반고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반대로 특성화고 비율은 전국 최저이다. 일반고 비율은 경남의 학력 향상과도 맞물려 있다. 일반고를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일반고 내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예술중점과정, 과학중점과정처럼 여러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정은 학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융통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로와 적극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의 대입은 수시이고 수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맞춤형 진로 중점과정과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부에 적을 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4. 진로 탐색기관 신설 또는 진로 대안학교 활용

연구 결과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을 거리를 풍부하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대교협이 규정한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하면 학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것은 학교 내 활동과 교육청에서 주관한 활동만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부에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 탐색기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입(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경남의 대학 진학을 향상을 위한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 공인 기록처로서의 진로직업체험교육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매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은 수시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두드러져 머지않아 수시는 거의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맞아 중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주말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탐

색과 체험을 원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규과정은 단기(6월), 중기(1년), 장기(1년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진로 선택 기회부여를 부여한다. 비정규과정은 방과 후, 야간,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방학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2015년 진로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발효를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구현 실천으로서의 역할 및 이러한 연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도 한 장점으로 보인다.

5. 교육 협동조합(마을교육공동체)과 연계 구축

교육 협동조합은 앞으로의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교육연계로서의 미래다.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매점이나 교복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복, 매점, 방과후 사업, 급식의 로컬푸드, 교재나 문구류의 지방구매 등을 통해 교육협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본다. 신설될 대안학교에서 또한 사회적 기업화로서 학생들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마을과 학교의 공동체 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마을 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과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보완 연구 및 설립 후 지속적 평가 연구 필요

본 연구 외에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 가지를 연구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필요성이 자발적인지의 여부 등을 직접 물어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학교의 설립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항목에는 지역자원인 인적, 물적자원 등의 파악과 및 지역의 상황분석 예컨대, 지역 구성원의 분포 등을 기초자료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요구분석의 유의미성을 밝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지역별, 분야별 진로 대안학교 연구의 성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설립후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의 만족도, 교사의 만족도, 지역 구성원과의 협력 관계 등을 횡단과 종단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지속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차 례 -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3. 용어의 정리	7
II. 이론적 배경	9
1. 선행 연구 고찰	9
2.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 철학	11
3. 국내 대안학교 현황	13
가. 대안교육의 운영형태 구분	13
나. 경남 대안학교 및 특수목적고교 현황	13
다. 타지역 고교 대안학교 현황	16
III. 연구 결과	23
1. 희망 고교 선택	23
2. 고교 선택 기준	30
3. 고교 선택 결정권자	37
4. 진로 선택 다양성 학교 선택	42
5. 동아리 활동 분야	63
6. 진로 상담자	73
7. 진로계발 사교육	80
8.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92
9. 학교 설립 기타 의견	98

IV. 결론 및 정책 제언	100
1. 결론	100
2. 정책 제언	101
* 참고문헌	106
* 부록(1~2)	107

- 표 차례 -

<표 I-1> 학생 학년 구분	3
<표 I-2> 학생 성별 구분	4
<표 I-3> 학생 학교 구분	5
<표 I-4> 학생 학교 소재지 구분	6
<표 I-5>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구분	6
<표 II-1> 대안학교 관련 선행연구 정리	9
<표 II-2> 경남교육청 고교 현황	13
<표 II-3> 경남지역 특목고, 대안고 비교 정리	14
<표 II-4> 타지역 고교 대안학교 현황	16
<표 III-1> 희망고교 선택	24
<표 III-2> 희망고교 선택 기타	25
<표 III-3> 학부모와 희망고교 선택 관계	26
<표 III-4> 공사립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6
<표 III-5> 시군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7
<표 III-6> 지역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8
<표 III-7> 희망고교 선택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29
<표 III-8> 고교 선택 기준	31
<표 III-9> 고교 선택 기준 기타	32
<표 III-10> 학부모와 고교 선택기준 관계	32
<표 III-11> 공사립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3
<표 III-12> 시군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4
<표 III-13> 지역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5
<표 III-14> 고교 선택 기준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37
<표 III-15> 고교 선택 결정권자	38
<표 III-16> 고교 선택 결정권자 기타	38
<표 III-17> 학부모와 고교 결정권자 관계	39
<표 III-18> 공사립과 고교 결정권자 관계	40
<표 III-19> 지역과 고교 결정권자 관계	41
<표 III-20> 고교결정권자와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42

<표 III-21>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정도	43
<표 III-22> 시군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4
<표 III-23> 학교구분 및 학교소재지와 다양성 학교 관계	46
<표 III-24> 지역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7
<표 III-25> 학부모와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8
<표 III-26> 정도항목 2개문항 평균비교	49
<표 III-27> 성별 및 학년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50
<표 III-28>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51
<표 III-29>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기타	52
<표 III-30> 학부모와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3
<표 III-31> 시군과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4
<표 III-32> 지역과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5
<표 III-33> 다양성학교 희망분야와 다양성학교 진학의사 관계	56
<표 III-34> 통학수단 운영 형태	58
<표 III-35> 통학수단 운영 형태 기타	59
<표 III-36> 학부모와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59
<표 III-37> 시군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60
<표 III-38> 지역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62
<표 III-39> 통학수단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63
<표 III-40> 동아리 활동 분야	65
<표 III-41> 동아리 활동 분야 기타	66
<표 III-42> 학부모와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7
<표 III-43> 공사립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8
<표 III-44> 시군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9
<표 III-45> 지역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71
<표 III-46> 동아리 분야와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73
<표 III-47> 진로 상담자	74
<표 III-48> 진로 상담자 기타	75
<표 III-49> 학부모와 진로 상담자 관계	76
<표 III-50> 공사립과 진로 상담자 관계	77
<표 III-51> 시군과 진로 상담자 관계	78

<표 III-52> 지역과 진로 상담자 관계	79
<표 III-53> 진로상담자와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80
<표 III-54> 진로 계발 사교육 여부	81
<표 III-55> 학부모와 사교육 여부 관계	82
<표 III-56> 시군과 사교육 여부 관계	83
<표 III-57> 지역과 사교육 여부 관계	84
<표 III-58> 사교육 여부와 다양성학교 및 다양화필요성 관계	85
<표 III-59> 진로 계발 사교육 분야	87
<표 III-60> 진로 계발 사교육 분야 기타	88
<표 III-61> 학부모와 사교육 분야 관계	89
<표 III-62> 시군과 사교육 분야 관계	90
<표 III-63> 지역과 사교육 분야 관계	91
<표 III-64> 사교육 분야와 다양성학교 및 다양화필요성 관계	92
<표 III-65>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94
<표 III-66> 학부모와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5
<표 III-67> 시군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6
<표 III-68> 지역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7
<표 III-69> 학생 성별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8
<표 III-70> 다양성 학교 설립 기타의견	99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 절차	2
[그림 I-2] 설문자 전체 학년 구분	3
[그림 I-3] 학생 성별 구분	4
[그림 I-4] 학생 학교 구분	5
[그림 I-5] 학생 학교 소재지 구분	6
[그림 I-6]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구분	6
[그림 III-1] 희망고교 선택	24
[그림 III-2] 희망고교 선택 기타	25
[그림 III-3] 학부모와 희망고교 선택 관계	26
[그림 III-4] 공사립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6
[그림 III-5] 시군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7
[그림 III-6] 지역과 희망고교 선택 관계	28
[그림 III-7] 희망고교 선택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29
[그림 III-8] 고교 선택 기준	31
[그림 III-9] 고교 선택 기준 기타	32
[그림 III-10] 학부모와 고교 선택기준 관계	32
[그림 III-11] 공사립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3
[그림 III-12] 시군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4
[그림 III-13] 지역과 고교 선택 기준 관계	35
[그림 III-14] 고교 선택 기준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37
[그림 III-15] 고교 선택 결정권자	38
[그림 III-16] 고교 선택 결정권자 기타	38
[그림 III-17] 학부모와 고교 결정권자 관계	39
[그림 III-18] 공사립과 고교 결정권자 관계	40
[그림 III-19] 지역과 고교 결정권자 관계	41
[그림 III-20] 고교결정권자와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42
[그림 III-21]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정도	43
[그림 III-22] 시군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4
[그림 III-23] 학교구분 및 학교소재지와 다양성 학교 관계	46

[그림 III-24] 지역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7
[그림 III-25] 학부모와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48
[그림 III-26] 정도항목 2개문항 평균비교	49
[그림 III-27] 성별 및 학년과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50
[그림 III-28]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51
[그림 III-29]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기타	52
[그림 III-30] 학부모와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3
[그림 III-31] 시군과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4
[그림 III-32] 지역과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55
[그림 III-33] 다양성학교 희망분야와 다양성학교 진학의사 관계 ..	56
[그림 III-34] 통학수단 운영 형태	58
[그림 III-35] 통학수단 운영 형태 기타	59
[그림 III-36] 학부모와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59
[그림 III-37] 시군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60
[그림 III-38] 지역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 관계	62
[그림 III-39] 통학수단과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63
[그림 III-40] 동아리 활동 분야	65
[그림 III-41] 동아리 활동 분야 기타	66
[그림 III-42] 학부모와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7
[그림 III-43] 공사립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8
[그림 III-44] 시군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69
[그림 III-45] 지역과 동아리 활동분야 관계	71
[그림 III-46] 동아리 분야와 다양성 학교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	73
[그림 III-47] 진로 상담자	74
[그림 III-48] 진로 상담자 기타	75
[그림 III-49] 학부모와 진로 상담자 관계	76
[그림 III-50] 공사립과 진로 상담자 관계	77
[그림 III-51] 시군과 진로 상담자 관계	78
[그림 III-52] 지역과 진로 상담자 관계	79
[그림 III-53] 진로상담자와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80
[그림 III-54] 진로 계발 사교육 여부	81

[그림 III-55] 학부모와 사교육 여부 관계	82
[그림 III-56] 시군과 사교육 여부 관계	83
[그림 III-57] 지역과 사교육 여부 관계	84
[그림 III-58] 사교육 여부와 다양성학교 및 다양화필요성 관계	85
[그림 III-59] 진로 계발 사교육 분야	87
[그림 III-60] 진로 계발 사교육 분야 기타	88
[그림 III-61] 학부모와 사교육 분야 관계	89
[그림 III-62] 시군과 사교육 분야 관계	90
[그림 III-63] 지역과 사교육 분야 관계	91
[그림 III-64] 사교육 분야와 다양성학교 및 다양화필요성 관계	92
[그림 III-65]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94
[그림 III-66] 학부모와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5
[그림 III-67] 시군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6
[그림 III-68] 지역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7
[그림 III-69] 학생 성별과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98
[그림 III-70] 다양성 학교 설립 기타의견	9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첫째, 매년 도내에서 3,000여명이상의 학업 중단자 발생 등 교육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전예방 차원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제도교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교육수요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진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과 결과적 평등의 강화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진로를 위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한 자아 효능감 증대와 역량배양의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지역별 유휴 교육시설(폐교 등)의 효율적인 활용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5가지의 필요성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상응하여 경남의 특성화된 정책을 만드는 하나의 대안적 방안으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4단계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문헌 연구를 했다. 대안 학교 관련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 논문,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보고서, 정부 발간 문서 등에 대한 연구 및 관련 통계를 분석 검토했다.

둘째, 대안학교의 현황을 통한 시사점을 알기 위해 국내·외 대안학교의 현황 조사를 했다. 교육부, 타 유관부처, 경남 및 타시·도 교육청, 해외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현황에 대해 조사 했다.

셋째, 설문지의 구성과 수정을 위해 연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다. 연구협의회는 미래교육부장을 회장으로 하여 설문 내용의 구성, 수정했다. 설문내용 수정은 3회에 걸쳐 했다. 협의회에서 수정된 설문지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했다. 파일럿 테스트 대상은 창원지역 1개 중학교 1학년 1반, 2학년 1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했다. 설문의 실시 기간은 2015.11.12.부터 2015. 11.23까지 총 11일이 소요되었다. 총 267개 경남 도내 중학교 중에서 221

개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3%를 나타냈다. 총 응답표본은 21,682명이 응답했다. 학부모는 10,613명이 응답했고, 학생은 11,069명이 응답했다. 이중 유효응답은 총 19,916명이며, 학부모는 9,529명, 학생은 10,387명이다.

넷째,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 관련하여 도내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상응하는 설문 대상으로 하여 추후 학교 설립에 대한 지속가능성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은 공문으로 발송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통계분석업체를 통해 코딩(편칭)을 실시하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 인식 등에 대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했다.



[그림 1 - 1]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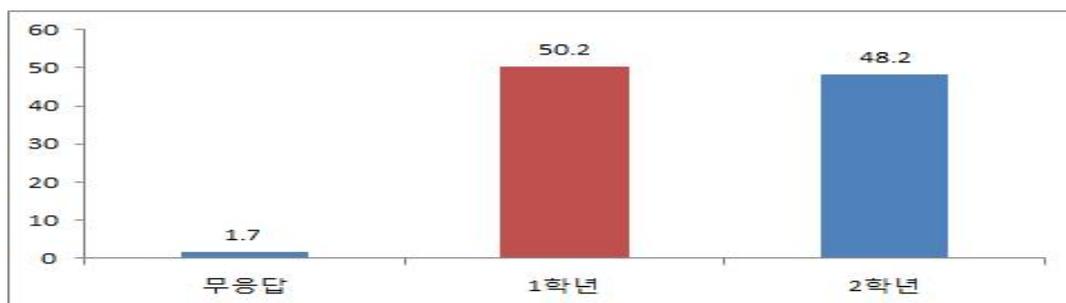
다. 통계 분석을 위한 설문 기초 자료

1) 중학교 학년 구분

중학교 학년 구분의 전체 설문자를 살펴보면, 1학년은 50.2%(N=10,881)이고, 2학년은 48.2%(N=10,440)이었다.

학부모의 자녀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은 49.7%(N=5,272)이고, 2학년은

48.1%(N=5,102)이었다. 학생의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은 50.7%(N=5,609)이고, 2학년은 48.2%(N=5,338)이었다.



[그림 1-2] 학생 학년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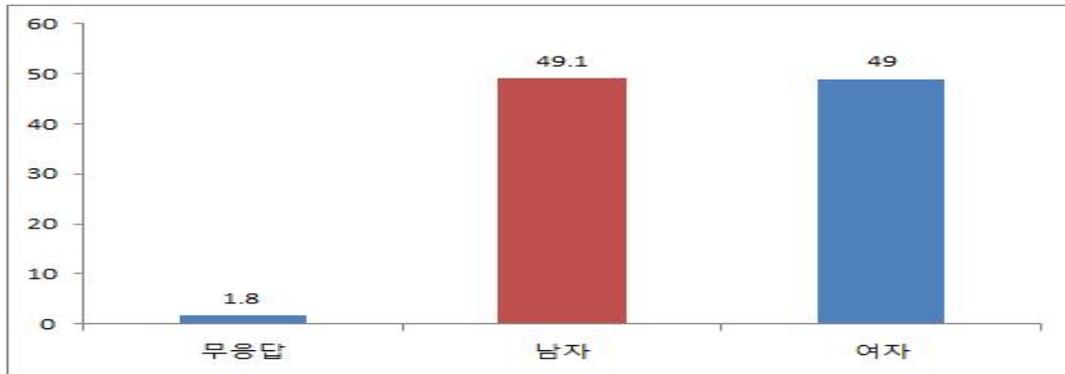
<표 1-1> 학생 학년 구분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학년 구분	무응답	359	1.7
		1학년	10,881	50.2
		2학년	10,440	48.2
		결측 값	2	0.0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학년 구분	무응답	239	2.3
		1학년	5,272	49.7
		2학년	5,102	48.1
		합계	10,613	100.0
		학생	학년 구분	무응답
1학년	5,609			50.7
2학년	5,338			48.2
결측 값	2			0.0
합계	11,069			100.0

2) 학생 성별 구분

학생의 성별 구분의 전체 설문자를 살펴보면, 남자는 49.1%(N=10,647)이고, 여자는 49.0%(N=10,634)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부모의 자녀를 살펴보면, 남자는 48.4%(N=5,134)이고, 여자는 49.4%(N=5,240)로 여자가 다소 많았다. 반면에 학생의 성별 구분을 살펴보면, 남자는 49.8%(N=5,513)이고, 여자는 48.7%(N=5,394)로 남자가 다소 많았다.



[그림 I-3] 학생 성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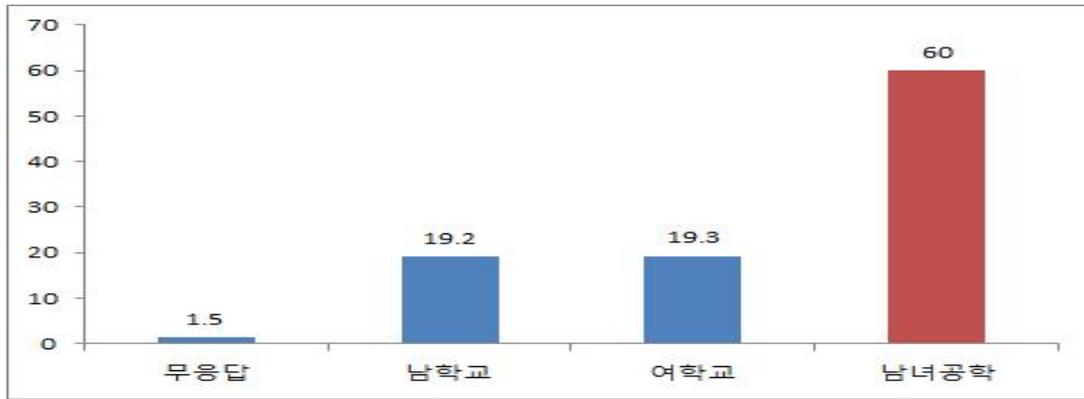
<표 I-2> 학생 성별 구분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학생 성별	무응답	396	1.8
		남자	10,647	49.1
		여자	10,634	49.0
		결측 값	5	0.0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자녀 성별	무응답	239	2.3
		남자	5,134	48.4
		여자	5,240	49.4
		합계	10,613	100.0
학생	성별	무응답	157	1.4
		남자	5,513	49.8
		여자	5,394	48.7
		결측 값	5	0.0
		합계	11,069	100.0

3) 학생의 학교 구분

학생의 학교 구분의 전체 설문자를 살펴보면, 남학교는 19.2%(N=4,170)이고, 여학교는 19.3%(N=4,186), '남녀공학'은 60.0%(N=13,011)로 남녀공학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보였다.

자녀의 학교 구분을 위한 학부모를 살펴보면, 남학교는 19.4%(N=2,060)이고, 여학교는 19.4%(N=2,057), 남녀공학은 59.4%(N=6,301)로 남녀공학이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보였다. 학생의 학교 구분을 살펴보면, 남학교는 19.1%(N=2,110)이고, 여학교는 19.2%(N=2,129), 남녀공학은 60.6%(N=6,710)로 남녀공학이 역시 현저하게 많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I -4] 학교 구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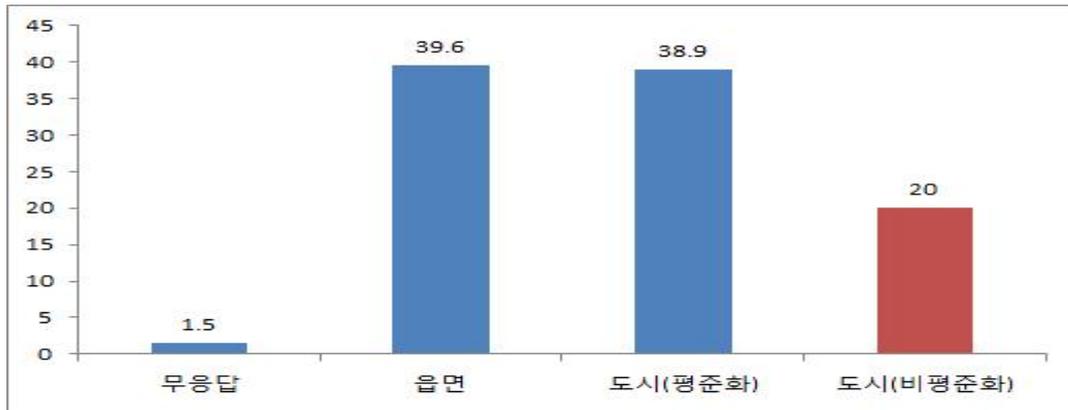
<표 I -3> 학교 구분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학교 구분	무응답	315	1.5
		남학교	4,170	19.2
		여학교	4,186	19.3
		남녀공학	13,011	60.0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학교 구분	무응답	195	1.8
		남학교	2,060	19.4
		여학교	2,057	19.4
		남녀공학	6,301	59.4
		합계	10,613	100.0
학생	학교 구분	무응답	120	1.1
		남학교	2,110	19.1
		여학교	2,129	19.2
		남녀공학	6,710	60.6
		합계	11,069	100.0

4) 학생의 학교 소재지 구분

학생의 학교 소재지 구분의 전체 설문자를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39.6%(N=8,576)로 가장 많았고, 도시(평준화) 지역이 38.9%(N=8,441), 도시(비평준화) 지역이 20.0%(N=4,335)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자녀 학교 소재지 구분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38.8%(N=4,121)로 가장 많았고, 도시(평준화) 지역이 39.2%(N=4,155), 도시(비평준화) 지역이 20.1%(N=2,133)로 나타났다. 학생의 학교 소재지 구분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이 40.2%(N=4,455)로 가장 많았고, 도시(평준화) 지역이 38.7%(N=4,286), 도시(비평준화) 지역이 19.9%(N=2,202)로 나타났다.



[그림 I -5] 학교 소재지 구분 (단위: %)

<표 I -4> 학교 소재지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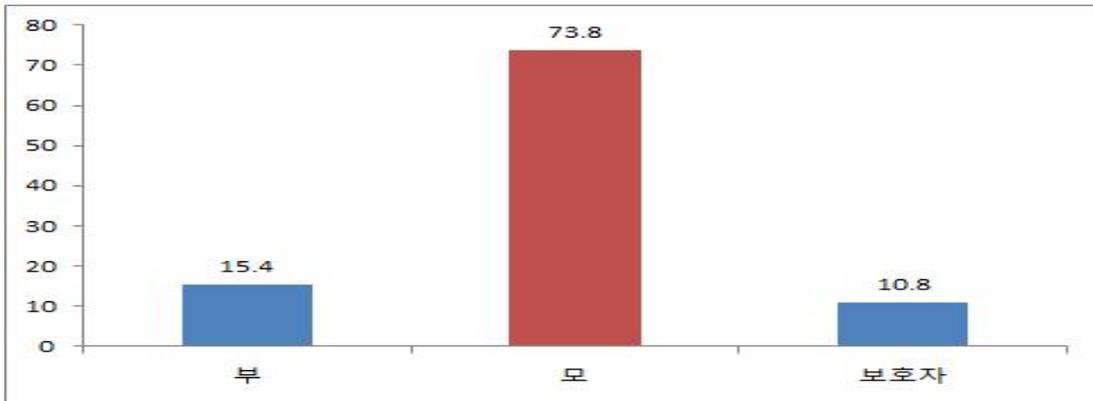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학교 소재지 구분	무응답	330	1.5
		읍면	8,576	39.6
		도시(평준화)	8,441	38.9
		도시(비평준화)	4,335	20.0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학교 소재지	무응답	204	1.9
		읍면	4,121	38.8
		도시(평준화)	4,155	39.2
		도시(비평준화)	2,133	20.1
		합계	10,613	100.0
학생	학교 소재지	무응답	126	1.1
		읍면	4,455	40.2
		도시(평준화)	4,286	38.7
		도시(비평준화)	2,202	19.9
		합계	11,069	100.0

5)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구분

설문을 진행한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구분을 살펴보면, '母'가 73.8%(N=7,828)로 가장 많고, '父'가 15.4%(N=1,639), 보호자가 10.8%(N=1,146)로 나타났다.

<표 I -5>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구분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학부모 (보호자)	구분	부	1,639	15.4
		모	7,828	73.8
		보호자	1,146	10.8
		합계	10,613	100.0



[그림 I -6] 학부모(보호자) 구분 (단위: %)

3. 용어의 정리

가.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법 제2조)

1)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법에 따르면 고등기술학교는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한다.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은 경남전자고등학교 1개교가 있다. 학력인정고는 3개가 있는데 평생교육법에 근거한다. 경남미용고, 경남기술과학고(구, 경남애니메이션고), 경남보건고이다.

한편, 경남에는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2개교가 있다. 마산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진주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이다.

2)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경남에 총 9개교가 있다. 경남헤림학교, 창원동백학교, 창원천광학교, 진주혜광학교, 통영잠포학교, 경남은혜학교, 거제애광학교, 양산희망학교, 경남은광학교이다.

3) 각종학교

각종학교는 법에 의하면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는 경남꿈키움학교, 지리산중학교 2개교가 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 인가한 2015년 학교개항에는 외국인학교가 없으나 미인가인 경남국제외국인학교, 거제국제외국인학교 등 몇 개교가 있다.

나. 고등학교의 구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

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는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말한다.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의 종류가 있다.

3) 특성화고등학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4) 자율고등학교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 연구 고찰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검토 연구를 위한 방향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대안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정체감, 성숙도, 발달정도 차이를 분석한 선행 논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 등을 살펴보고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표 II-1> 대안학교 관련 선행연구 정리

순	연구자	연구명	연구내용
1	최연수 (2015)	학교 밖 청소년의 도시형 대안학교 적응과정연구	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과정과 제3의 교육체계인 도시형대안학교에서 적응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변화와 학업동기를 부여하는지의 탐색
2	교육부 (2005)	대안교육의영향분석 및제도화방안연구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제정 방안을 제시
3	교육부 (2008)	대안교육프로그램평 가모형개발연구	미인가대안교육현장의교육프로그램운영실태를조사,분석하여정책 자료로활용○대안교육프로그램에대한평가모형을개발하여대안교육의자율적질관리및대안교육기관에대한학력인정등의준거로활용
4	교육부 2010	대안교육종합 발전방안	대안교육종합발전방안(현"대안교육특성화고교"의"대안형자율고교"로의전환,"미인가대안교육시설"의문제점과개선방안등)연구
5	교육부 2011	창의형대안교육 프로그램개발연구	대안교육을하고있거나하고자하는학교에맞는창의적이고효율적인 대안교육프로그램개발및적용 ² .창의형대안교육확산을위한정책방안제안
6	교육부 2015	학교내대안교실 발전방안연구	학교부적응양상,대안교육의성격과원리,학교변화의관점과조건등에 대한이론적고찰을통해학교내대안교실운영분석,사례분석을바탕으로성공적인대안교실운영의조건과전략을파악하기위한질적연구
7	황준희 2015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의자립준비특 성및영향요인에관한 연구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의 자립의지, 진로·직업역량, 경제적 관리, 주거·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기보호, 학업관리 등 7가지 요인에서 자립준비 특성을 파악
8	김영화 2014	대안학교 졸업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안학교 졸업 후의 진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많은 졸업생들이 고교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과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며,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9	허창수 2010	진로 찾기 위한 대안 교육과정 경험 이야기: "낯선 길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낯선 길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를 학교 밖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자서전적 방법과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잃어버린 조각들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해와 해방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10	이민희 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관한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개발에 중점

		연구 - 직업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11	김서영 2009	대안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비교 연구	연구 결과 첫째, 대안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감 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안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성숙도 평균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안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 보다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로교육을 확대했으며, 교육과정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진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한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12	정현주 2005	대안학교 청소년과일반학교 청소년의심리적안녕감에관련된변인연구	일반학교 학생과 대안학교 학생, 각집단의 심리적인 안녕감 차이 조사, 일반고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사회적지위 학교 적응 등 외부 환경과 관계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은 반면 대안학교 청소년의 경우 희만, 진로 자기 정체감 등 개인내적인 요인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다.
13	배은자 2006	고등학생의진로의식 발달에관한연구 : 일반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과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의진로의식 발달비교	대안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보다 진로 의식이 높음
14	허창수 2010	진로 찾기 위한 대안 교육과정 경험 이야기: "낯선 길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 대안학교에서 설계한 특정 프로그램인 `낯선 길 앞에서 희망을 노래하다`를 학교 밖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자서전적 방법과 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잃어버린 조각들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해와 해방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15	이민희 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관한 연구 - 직업역량 개발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16	김홍태 2002	일본 대안교육의 사례 탐색	일본의 대안교육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대안학교들을 탐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서는 학생들의 적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 대안교육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다. 둘째, 정규 학교와 비정규 대안교육체제의 연대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비정규 교육기관의 학습단위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학교예의 등교거부생 및 홈스쿨 선호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스쿨이 점차 도입되고 있다
17	김서영 2009	대안학교고등학생과 일반계고등학교학생의진로정체감과진로성숙도에관한연구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대안 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 교과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진로를 결정하는 고등학교시기에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해 명확하고 안정된 상(Picture)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자아의 이해와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해나가는 과정에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18	신혜영 2003	대안학교학생의진로태도성숙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대안학교에재학한기간과 거주형태는진로태도성숙도에영향을주는변수로나타나재학기간이길고 기숙사에거주하고있는학생일수록높은진로태도성숙도를보이고있음을알 수있다.
19	문호태 2012	인가형대안학교와비인가형대안학교학생들의진로성숙도와사회적응력비교:대전·충남지역고등학교과정중심으로	학교유형에따라진로성숙도에미치는영향의평균은인가형대안학교의평균이 비인가형대안학교의평균보다더높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다.
20	황진아 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미용교육 만족도와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미용교육수업후대안학교학생들의진로결정에미치는영향을알아본결과대안학교학생들의진로결정시가장큰비중을두는부분은본인의적성과능력부분이었으며,대안학교졸업후미용관련학과로진학을희망하는것으로보아 미용교육이대안학교학생들의진로선택에영향을미치고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1	김정후 2012	청소년의자아존중감이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대안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성숙도를높이기위해서는대안학교에있는교사들이진로교육프로그램에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학생들이자신의진로를후회없이결정할수있도록실제직업현장과연계된전문적인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
22	류호연 2015	학교밖청소년진로의식변화연구:지역복지형대안학교재학청소년을중심으로	결론은학교밖청소년이연구에참여하여그들의진로요구를반영한진로프로그램에직접참여하고이를통해자신의진로를탐색하는과정은거쳐스스로설정한진로는어떠하며,어떠한준비를할것인지를확인하는진로의식을발전시킬수있음을보여준다
23	장인진 2010	대안학교 졸업생의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 통합과정 졸업생을 중심으로	대안학교 졸업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위탁형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진로결정수준이 건강한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춘화 2003	대안학교교육만족도 분석	대안학교에서가장만족도가높은영역은교사영역이다.이는대안학교 특성상인성교육을이념으로한다.또한작은학교를지향하므로학생과의인간관계형성이잘이루어지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가장만족도가낮은부분은학교시설에관한영역이다.특히실현실습실에대한만족도가현저히떨어진다
25	지덕영 2005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실제 과학 수업 비교 분석	대안학교의과학수업은활동중심의형태로진행되어야한다.학교부적응학생이대상인대안학교에서는학생들에게과학적지식보다는과학적인태도를목표로수업을하여야한다.따라서학생들이좀더흥미를가질수있는활동중심의수업형태로진행되어야한다.이를위해서교과내용을재구성할수있는교사의권한이좀더부여되고,실험실의제반여건이마련되어야한다.

2.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 철학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철학과 관점이 요구된다. 이는 설립의 당위성인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튼튼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학교 설립의 철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극적이고 수동적 현재의 교육복지를 넘어 적극적인 교육복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표방하는 것이다.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교육적 평등의 종류중에서 결과적 평등화(보상적 평등)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민주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양성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다.

둘째, 진로 역량 배양을 통한 생애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흔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로교육은 직업교육과 동일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 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니다. 진로교육은 개개인의 진로 역량을 계발하고 그 역량을 고양시켜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역량을 기반으로 생애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 본질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한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의 형식적인 직업소개, 1회성 탐방식의 진로교육이 아니라 진로역량 계발이라는 실질적인 진로교육으로서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일치한다. 또한 학생들이 더이상 교육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한다. 기존 학교 교육의 수직적 다양화는 국제고, 외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구분되어, 평준화 보다는 경쟁을 통한 기능적인 수월성 교육에 치중하여,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열패감과 낙오감을 직·간접적으로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소수 엘리트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다양화 행태를 벗어나 대다수 일반 보통 학생들을 위한 수평적인 다양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넷째, 보편적인 평등교육으로서의 변화를 도모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방식과 형태의 기계적인 평등 교육이 아니라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적극적이고 유연적, 융통적 이면서 맞춤형인 보편 교육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교육 기회의 평등화와 다양화를 통한 학습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다섯째, 미래형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은 인성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한 각 일선 초중등 학교에서 인성 교육의 효율화와 활성화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거시적인 기능주의 교육사회학적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인 관점으로서의 대변환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이 기능주의 선발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수단적인 요

소가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을 발견 및 계발하고 이러한 성취감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 구성원이 되고, 나아가 세상의 변화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매개체의 역할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참된 본질이자 방향성이기 때문이다.

3. 대안학교 현황

가. 대안교육의 운영 형태 구분

대안교육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탁형 대안학교 형태이다. 이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주로 대안교육을 위탁 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것이 해당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공립과 사립 대안학교이다. 이 역시 독립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기존의 일반 공교육에서 벗어나 대안교육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체험위주 교육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특성화형 대안학교 및 각종학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셋째, 대안교실형태이다. 이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안 교육의 운영 형태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정책으로 2015년 현재 전국에서 1,30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예산이 적게 들고, 운영하는 것의 용이점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나. 경남지역 대안학교 및 특목고 현황

경남지역 고교 현황을 입학시기인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아래의 표로 정리했다. 전기는 특목고와 특성화고로 구분되고, 후기는 자율고와 일반고로 구분된다. 특히, 특성화고는 특정분야 특성화고와 체험위주의 특성화고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구분을 바탕으로 자료와 사례분석을 통해 경남지역의 체험위주 특성화고, 특목고, 미인가 대안학교 등을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정리했다.

<표 II -2> 경남교육청 고교 현황(입학시기 기준)

시기	학교 구분	
전기 (44)	특목고 (8)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2 (거제공고, 삼천포공고) (공군항공과학고-공군교육사령부소속) 과학고 2 경남과고, 창원과고

		<p>외국어고 2 김해외고, 경남외고</p> <p>체육고 1 (경남체육고)</p> <p>예술고 1 (경남예술고)</p> <p>국제고 0</p>
	특성화고 (36)	<p>특정분야 특성화고 32</p> <p>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경남자영고), 김해생명과학고(김해건설공고, 경남항공고, 경남해양과학고), 거창공고, 경남로봇고, 경남자동차고, 경진고, 마산공고, 밀양전자고, 창녕공고, 창녕제일고, 창원공고, 한일전산여고, 경남간호고, 경남산업고, 진영제일고, 함양제일고, 거제여자상업고, 경남관광고, (경남정보고), 김해한일여고, 남해정보산업고, 밀성제일고, 사천여고, 선명여고, 신반정보고, 초계고, 진해세화여고</p> <p>체험위주 특성화고 4 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원경고)</p>
	자율고 (10)	<p>비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4 거제제일고, 양산고, 웅천고, 진양고</p> <p>평준화지역 자율형공립고 6 마산고, 진주고, 김해고, 김해제일고, 창원중앙고, 김해경원고</p> <p>자율형 사립고 0</p>
후기 (147)	일반고 (137)	<p>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 74</p> <p>거제상문고, 거제옥포고, 거제중앙고, 거창중앙고, 경호고, 고성고, 곤양고, 군북고, 금남고, 김해대청고, 김해삼문고, 김해울하고, 남해고, 단성고, 대곡고, 덕산고, 동원고, 명덕고, 물금고, 밀성고, 밀양고, 밀양동명고, 밀양여고, 범어고, 사천고, 삼가고, 삼량진고, 삼천포고, 삼천포여고, 삼천포중앙고, 생초고, 서상고, 서창고, 신등고, 아림고, 안의고, 양산남부고, 연초고, 용남고, 웅상고, 장유고, 진교고, 진서고, 진영고, 진해고, 진해용원고, 진해여고, 창원대산고, 철성고, 총렬여고, 통영고, 통영여고, 해성고, (거창고, 거창대성고, 거창여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남해해성고, 산청고, 세종고, 영산고, 옥종고, 의령고, 창녕고, 창녕대성고, 창녕여고, 창녕옥야고, 칠원고, 하동고, 함안고, 함양고, 효암고, 합천고)</p> <p>비평준화지역 일반고 15 거제고, 남지고, 대성일고, 마산삼진고, 보광고, 야로고, 양산여고, 양산제일고, 의령여고, 진주외고, 진해중앙고, 창선고, 하동여고, 합천여고, 충무고</p> <p>평준화지역 일반고 48</p>

<표 II -3> 경남 지역 체험위주 특성화고 및 특목고, 대안고 비교 정리

순	학교	특징	비고
1	간디고	<p>특성화교과 이수 원칙</p> <p>① 필수 지정 1개 분야 - 학교 철학 분야 23단위</p> <p>② 지정 선택 2개 분야 - 감성 8단위, 자립기초 9단위 이상</p> <p>③ 자유 선택 4개 분야 - 교양심화, 특기적성, 진로선택-진학, 진로선택-직업 → 최소 4개 분야 43단위 이수 (총 이수단위수의 최소 20%를 특성화교과 이수)</p>	<p>o 전국단위 모집이라 지역에서 진학에 어려움이 큼</p> <p>- 가고 싶어도 못감.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p> <p>- 평균 경쟁률 3:1</p> <p>- 공교육보다 자유롭고 열린 교육</p> <p>- 무학년제 실시</p> <p>- 수업이 학생 중심, 배움 중</p>

		<p>특성화교과 개발 및 개설 - 7개 분야의 과목 개발 및 개설</p> <p>① 학교철학 - 간디문화(2× 2) 식구총회(2× 3) 삶과 철학(2× 3) 이동학습(4)</p> <p>② 감성 - 표현예술(4) 디자인공예(4) 우리 춤 우리 가락(4) 합창합주(4)</p> <p>③ 자립 - 텃밭 가꾸기(3) 집짓기(3) 음식 만들기(3) 옷 만들기(3)</p> <p>④교양심화 - 역사의 이해(2) 숲 생태(2) 성과문화(2) NGO탐구(2) 대중문화읽기(2)...</p> <p>⑤ 특기적성 - 홈페이지제작(3) 수지침(3) 컴퓨터음악(3) 영화로 보는 세상(3) 유럽배낭여행(3)...</p> <p>⑥ 진로선택(진학) - 언어탐구(4) 수리탐구(4) 사회탐구(4) 과학탐구(4) 외국어탐구(4)</p> <p>⑦ 진로선택(직업) - 직업연구 I (6) 직업연구 II (6) 직업실습 I (6) 직업실습 II(6)</p>	<p>심 수업방법, 토론 및 워크숍 중심, 참여형</p>
2	원경고	<p>보통교과 92단위, 특성화교과 88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총 204 단위를 편성 운영으로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음</p> <p>학생들은 학년이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음공부 ▲공동체 회의 ▲음악생활 ▲조형 연습 ▲국토도보순례 ▲통기타 연주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자수와 편물 ▲컴퓨터 ▲목공예 ▲기초디자인/공예 ▲영어권 문화 ▲사진의 이해 ▲수학과제연구 ▲레저스포츠 ▲역사탐구 ▲국제문화의 이해 ▲독서와 삶 ▲연극 ▲텃밭 가꾸기 ▲환경 미술 등 다양한 수업에 참여</p>	<p>원불교에서 운영</p>
3	지리산고	<p>추구하는 인재상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며, 교육과정에 34시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포함.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를 생활화. (특성화 계열의 일반고로 교육과정에 대한 공개자료가 없음)</p>	<p>o 일반고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입시위주의 운영으로 변질 - 평균 경쟁률 2-3대 1</p>
4	태봉고	<p>특성화교과는 학교 철학, 자립기초, 진로찾기 영역으로 구성</p> <p>▲학교철학 영역은 삶과 철학, 뇌활성화 명상</p> <p>▲자립기초 영역은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옷 만들기</p> <p>▲진로찾기 영역은 LTI(인턴십), 진로와 직업, 이동학습, 졸업논문교과</p>	<p>o 지원자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음 (평균 4:1 경쟁률)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 -경남 모집 -학교 부적응자 초기 설립취지 -자발성 떨어지는 경향 보임 -제도권교육으로부터 자율과정으로 변화과정 -간디고 벤치마킹</p>
5	경남예고	<p>- 전국 단위 모집</p> <p>-음악과, 미술과, 애니메이션과 3개 학과로 구성</p> <p>-전형: 실기+내신으로 선발</p>	<p>-타시도 12.8% 전입(2015)</p> <p>-경남예술고에 진학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다니며 수도권으로 학원, 레슨을 받는 상황임.</p>
6	경남외고	<p>-경남 모집: 영중국어과 4개 반, 영일본어과 4개 반 총 200명 (남녀 공학)</p> <p>-전형: 영어 내신성적 + 면접 + 출결</p>	<p>- 김해외고에 비해 자학군의 학생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적음(타학군 92.9%)</p> <p>- 자기주도 학습전형</p>

7	김해외고	-경남 모집 (남·여, 5학급, 131명) -영어중국어, 영어일본어, 중국영어, 일본영어과 -전형: 영어 내신성적 + 면접 + 출결+ 봉사	- 영어성적 중심으로 선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심 - 타학군 전입 58.9%
8	경남체고	- 전국 모집: 체육계열 90명(남·여 공학, 3학급, 학급당 30명) - 18개 종목 - 전형: 내신+입상실적+전문실기+기초체력검사	- 입상실적 40%, 전문실기 30%로 엘리트 체육인 양성
9	경남과고	- 경남 모집 - 전형: 수학 및 과학성적 + 서류+ 다단계 면접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
10	창원과고	- 경남 모집 - 전형: 수학 및 과학성적 + 서류+ 다단계 면접	-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
11	삼천포공고	- 마이스터고, 전국 모집	- 타시도 10% 전입(2015) - 우수학생 몰리는 경향 - 취업률 95%(2015)
12	거제공고	- 마이스터고, 전국 모집	- 타시도 11.2%전입(2015) - 취업률 80~90%(2015)
13	경남미술학교	-2015.12.19. 개교 - 미인가 사립 대안학교 - 대상: 중도탈락위기 청소년 - 고등부 전문 대안공간 - 교육목적: 자기표현과 치유목적	-경남, 부산지역 학생대상 - 학교위치: 장유 - 교사: 자원봉사, 재능기부 - 수업료: 무료

다. 타 지역 고교 대안학교 현황

경남 외 다른 지역의 대안고교 현황에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앞서 경남지역 고교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표 II-4> 타 지역 고교 대안학교 현황

순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특징
1	부산	지구촌고	사립	2002	32개국의 다양한 문화권의 영향 아래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교육 받아 온 학생들을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바람직한 인성을 가진 인재,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갖추게 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토대로 한 세계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새로운 특성화교육을 구안하고 적용하는 소규모 기독교 학교.
2	대구	달구벌고	사립	2003	1. 설립정신 :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삶 2. 교육이념 (가치지향성) : "나눔과 섬김"의 더불어 사는 삶 (상생), "생태주의와 공동체성"의 대안적 이념 실현, 인간성 회복 (인성교육, 전인교육), 사람 사랑 (존중, 배려의 공동체 문화)

					<p>3. 교육목표 (교육지향성) : "자기주도적 꿈찾기"를 통한 자아실현 (자기발견과 행복찾기), "다양성과 자기주도성"의 대안적 교육 실현,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 존중, 개인별 분야별 자기주도적 학사관리, 개인별 맞춤형 시간표, 소규모 학습그룹별 특성화.</p>
3	인천	산마을고	사립	2000	<p>교육목표</p> <p>1. 교학상장 : 교육의 3주체 가운데 중심이 학생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은 외발교육이요,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입각한 상호중심이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자랑한다는 '교학상장'은 이를 표현한 슬어.</p> <p>2. 대안교육 : 대안교육은 살인적 입시경쟁, 승자독식의 서열교육을 거부하고, 참된 인간성의 함양이란 가치를 공통적으로 추구.</p> <p>3. 자연 평화 상생 : 산마을 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 · 지혜와 배움을 나누는 사람'으로 요약.</p>
4	광주	동명고	사립	1999	<p>교육 목표</p> <p>1. 이웃 사랑(Family) :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마 19: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p> <p>2. 나 사랑(I) : 참된 나를 찾고 인성과 지성을 갖춘 조화로운 사람 (막 8: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p> <p>3. 진리 사랑(Truth) :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p> <p>4. 하나님 사랑(Heaven) : 창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p>
5	경기	두레자연고	사립	1999	<p>1. 두레자연고등학교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대안학교.</p> <p>2. 교육목표</p> <p>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p>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책임 있게 반응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자
6	경기	경기대명고	공립	2002	<p>1.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p> <p>2. 교육목표 : 정규 일반 교육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특기·적성 위주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인성 교육과 체험위주의 교육, 특기·적성 개발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스스로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p>
7	경기	이우고	사립	2003	<p>이우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p> <p>1. 더불어 사는 사람 : 성·계급·인종·종교·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21세기의 현실 속에서 나와 다른 '남'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상생(相生)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p> <p>2.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사람 : 자신과 세계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 나가는 사람</p> <p>3. 창조적 지성인 : 틀에 박힌 생각, 기성의 지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사람</p> <p>4. 머리·가슴·손발이 조화롭게 발달된 사람 : 창조적 지성, 따뜻한 마음, 잘 발달된 오감과 섬세한 손, 굳센 의지, 튼튼한 몸을 조화롭게 갖춘 전인적인격체</p>
8	경기	한겨레고	사립	2006	<p>1.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p> <p>2. 교육목표 : 장기간의 학습 공백을 메워 학령과 학력 간의 격차를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서 올바른 진로선택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p>
9	강원	전인고	사립	2005	<p>1. 인성 교육에 중심을 두는 자율형 대안학교.</p> <p>2. 대학 입시, 도구적 지식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전인적 인격 형성을 추구하는 인가형 대안학교.</p> <p>3. 대안학교로서 전인고등학교는 인류의 보편적</p>

					가치라 할 수 있는 자유, 평등, 민주, 평화, 생태, 연대 등을 지향. 나아가, 전인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영성, 감성, 이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스스로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모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육성. 이는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한 동양 전통의 지덕체(智德體) 사상의 현대적 계승.
10	강원	팔렐중고	사립	2006	<p>1. 1919년 기미만세운동 당시 일제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장렬하게 순국하신 여덟분 열사들의 얼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지역주민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라 설립한 학교</p> <p>2. 교육이념</p> <p>가. 작은 학교의 지향</p> <p>나. 성서의 가르침대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육</p> <p>다. 씨 뿌리는 자의 정신</p> <p>라. 아름다운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생기발랄한 교육현장 구현</p>
11	충남	한마음고	사립	2003	<p>1. 인성교육중심의 특성화 고등학교.</p> <p>2. 열린 교육, 자연친화적 교육, 참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민족의 앞날을 준비하고자 설립함. 작은 학교, 소규모 학급을 원칙으로 하며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된 극단적인 이기심과 경쟁심, 또한 거대한 학교에서 보여지는 서열화와 익명성을 극복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을 닮은 인간을 양성.</p>
12	충남	공동체비전고	사립	2003	<p>1. 2003년 김영우 목사님의 개혁주의 교육공동체 사역의 일환으로 개교한 기독교 특성화 고등학교.</p> <p>2. 교육목표 :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영성, 지성, 인성 및 자연 친화적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경영과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훈련시키고 육성.</p>
13	충북	양업고	사립	1998	<p>1.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탕으로 천주교 청주교구는 교구 설정 40주년을 기념하여 학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 가톨릭 최초의 대안교육 특성</p>

					<p>화 학교인 양업고등학교를 개교.</p> <p>2. 교육목적 : 공교육의 대안으로 학생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드높이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미래의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육성.</p>
14	전북	세인고	사립	1999	<p>1. 기독교 교육과 5차원 전면교육을 건학이념으로 설립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p> <p>2. 교육 목표 : 5차원 전면 교육인 지력, 심력, 체력, 자기 관리 능력, 인간 관계 능력의 5가지 기본 능력을 전반적으로 교육하여,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최대한 신장시켜 21세기를 주도할 다이아몬드 칼라(Diamond Collar)의 세계인으로 기른다</p> <p>가. 지혜 있는 올바른 공부로 자신이 가진 지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지력인을 기른다. (지력)</p> <p>나. 삶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실천하며 꿈을 이루는 강인한 심력인을 기른다. (심력)</p> <p>다. 바른 삶의 실천을 위하여 지력과 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몸과 힘을 가진 건강 한 체력인을 기른다. (체력)</p> <p>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일상 생활을 조직적이고 규모 있게 실천하는 자력인을 기른다. (자기관리 능력)</p> <p>마. 세계를 품을 인간관계와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을 기른다. (인간관계 능력)</p>
15	전북	푸른꿈고	사립	1999	<p>1. 교육이념 : 인류의 위기, 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학교로서 생태교육을 그 대안으로 삼는다.</p> <p>2.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 즉 생명 현상에서 삶의 원리를 깨우치고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배우고 나아가 자연계의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발견하며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동체임을 인식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현.</p> <p>가.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생태·생활·문화 교육을 포함한다.</p> <p>나.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평등·평화 교육을 지향한다.</p> <p>다.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주체·자율 교육을 지향한다.</p> <p>라.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노력 교육을 포함한다.</p>

					<p>마.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공동체 교육을 지향한다.</p> <p>바. '푸른꿈고등학교'의 새로운 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지향한다.</p>
16	전북	지평선고	사립	2009	<p>1.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p> <p>2. 정신개벽은 과학, 도학, 인문학을 바탕으로 배워서 알게 되고, 알아서 실천하는 참된 자력으로써 “능심능사의 마음자력”을 키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함.</p> <p>3. 교육목표</p> <p>가. 자아의 주체성을 찾고 알아가는 인재</p> <p>나. 창의적으로 사유하는 인재</p> <p>다.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재</p> <p>라. 삶을 즐기는 인재</p>
17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1998	<p>1. 원불교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학교는 삶의 지향점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의 힘을 기르기 위하여 각자의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p> <p>2.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는 각자의 개성이 무시되는 지식위주의 무한경쟁 교육현실에서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우리사회의 올바른 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생태와 환경교육 등 21C 새로운 가치를 실현.</p>
18	전남	한빛고	사립	1998	<p>1. 비정상적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출발.</p> <p>2. 인문계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기독교정신을 근간으로 아이들의 “참 사람” 된 바탕을 가꾸면서 학력신장과 인성계발의 조화로운 교육, 가장 이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설립.</p> <p>3. 학교이념</p> <p>가. 하나님사랑 : 인간 중심, 물질 만능 주의의 세태 속에서 사랑과 희생의 기독 정신을 본받아 못 생명과 더불어 존재하는 자신의 의미와 우주만물 질서를 궁구하고 경외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p> <p>나. 이웃사랑 : 이웃의 사람은 물론 모든 존재에 대해 섬기고 사랑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p> <p>다. 자연사랑 : 사람은 물론 생태 자체의 지속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원인과 처방을 따져보고 작은 일부부터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게 한다.</p>

19	전남	한울고	공립	2012	<p>1. 전남 최초의 공립 인성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서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필요성, 학업 중도탈락 및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시설과 여건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에 따른 새로운 대안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p> <p>2. 학교 자율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중심, 체험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공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p>
20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1998	<p>1.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설립된 본교는 정산종사의 중심사상인 삼동윤리 정신에 입각하여 '한울안 한이치, 한집안 한권속, 한일터 한일꾼'이라는 사상을 학교교육 계획 수립의 근본으로 하며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되라"는 정산종사의 법문에 입각해서 마음공부를 통한 도덕교육에 주력.</p> <p>2. 교육목표 :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속하면서 사회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가치 체계와 판단기준을 알게 하고 본인이 가진 창조적 소질을 계발시킴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속에서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학생, 스스로가 참으로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모두를 존경하며 예의와 대의를 잃지 않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p>

Ⅲ. 연구 결과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 결과는 설문자 전체(학부모+학생), 학부모,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분석방법은 IBM-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중에서 빈도분석은 설문자 전체(학부모+학생), 학부모,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나머지 교차분석, T-TEST, 일원배치분산분석은 통계분석의 경향성과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설문자 전체(학부모+학생)만 대상으로 통계 분석했다. 또한 통계 분석을 할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항목은 연구 결과에 반영하지 않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분석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연구 결과의 항목은 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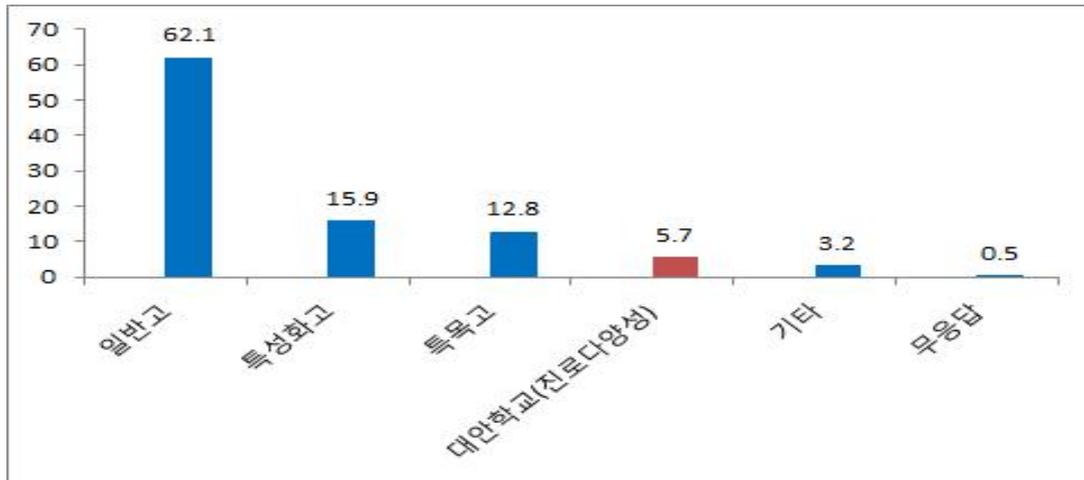
1. 희망 고교 선택

고교 진학시 희망하는 고교 선택 항목에 대해 설문자 전체는 일반고 62.1%(N=13,455)가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15.9%(N=3,437), 특목고 12.8%(N=2,769), '대안학교(진로 다양성)' 5.7%(N=1,231)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일반고가 64.9%(N=6,891)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14.9%(N=1,577), 특목고 14.9%(N=1,313), 대안학교(진로 다양성) 4.9%(N=516)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은 일반고가 59.3%(N=6,564)로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16.8%(N=1,860), 특목고 13.2%(N=1,456), 대안학교(진로 다양성) 6.5%(N=715)순으로 수치는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순서는 역시 학부모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학생이 학부모와는 대안학교(진로다양성) 학교 선택 비율이 1.6%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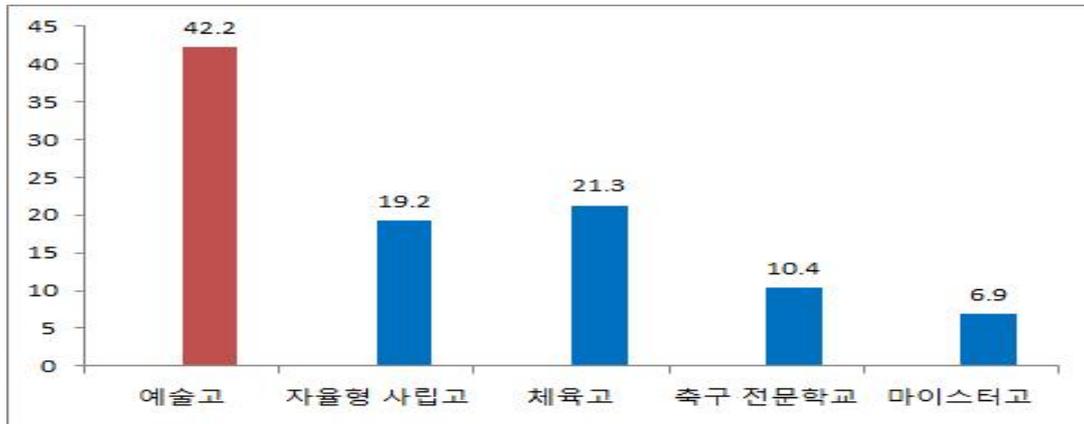
고교 선택의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예술고가 42.2%로 가장 많았고, 체육고 21.3%, 자율형 사립고 19.2%, 축구 전문학교 10.4%, 마이스터고 6.9%순이었다.



[그림 III-1] 설문자 전체 - 희망고교 선택 (단위: %)

<표 III-1> 희망고교 선택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희망고교 선택	일반고	13,455	62.1
		특성화고	3,437	15.9
		특목고	2,769	12.8
		대안학교(진로다양성)	1,231	5.7
		기타	689	3.2
		무응답	101	0.5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희망고교 선택	일반고	6,891	64.9
		특성화고	1,577	14.9
		특목고	1,313	12.4
		대안학교(진로다양성)	516	4.9
		기타	269	2.5
		무응답	47	0.4
		합계	10,613	100.0
학생	희망고교 선택	일반고	6,564	59.3
		특성화고	1,860	16.8
		특목고	1,456	13.2
		대안학교(진로다양성)	715	6.5
		기타	420	3.8
		무응답	54	0.5
		합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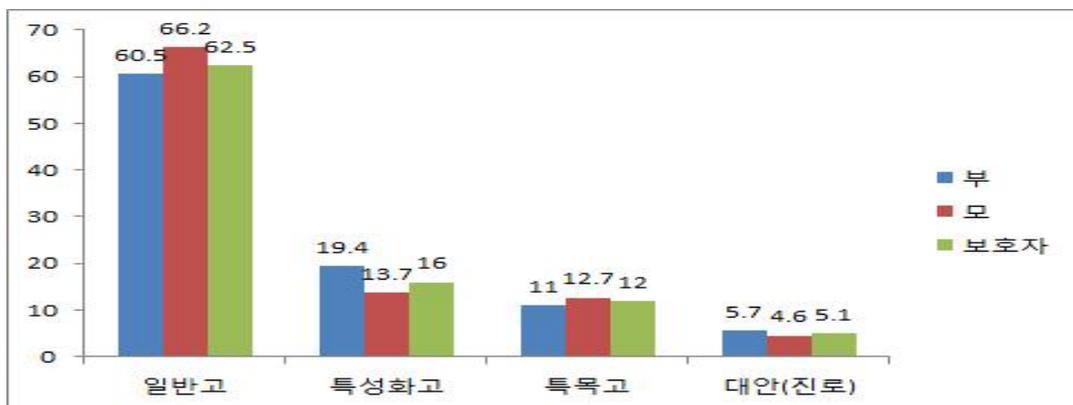


[그림 III-2] 희망고교 선택 기타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2> 희망고교 선택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희망고교 선택	예술고	121	42.2
		자율형 사립고	55	19.2
		체육고	61	21.3
		축구 전문학교	30	10.4
		마이스터고	20	6.9
		합계	287	100

학부모(또는 보호자)와 희망 고교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와 희망 고교 선택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고 전체 평균은 63.1%인데, 母는 66.2%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대안학교(진로)는 전체 평균이 5.1%인데 비해 母는 4.6%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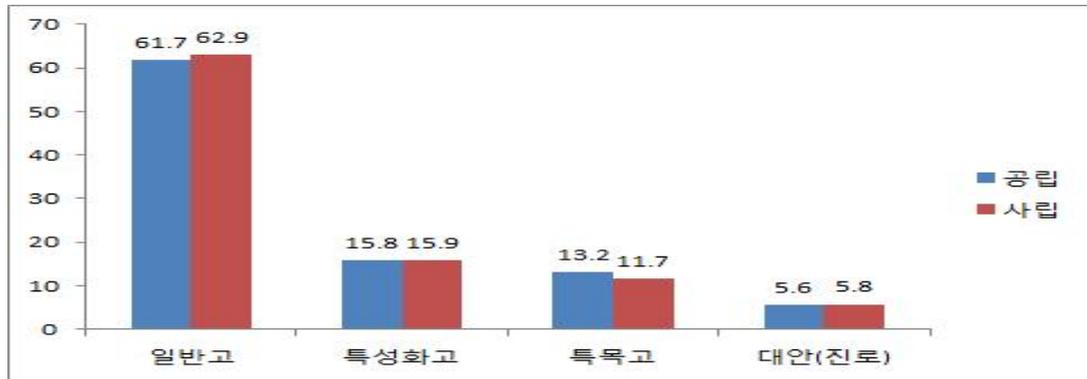
[그림 III-3] 학부모(보호자)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표 III-3> 학부모(보호자)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대안(진로)	기타	결측값	합계	χ^2
부	60.5	19.4	11.0	5.7	3.2	0.1	100.0	156.560*** (df=15)
모	66.2	13.7	12.7	4.6	2.2	0.4	100.0	
보호자	62.5	16.0	12.0	5.1	3.6	1.0	100.0	
전체	63.1	16.37	11.90	5.1	3.00	0.50	100.0	

***: p<.001, **: p<.01, *: p<.05

공·사립 여부와 희망 고교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사립 여부와 희망 고교 선택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고 전체 평균은 62.1%인데, 사립은 62.9%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대안학교(진로)는 전체 평균이 5.7%인데 비해 사립은 5.8%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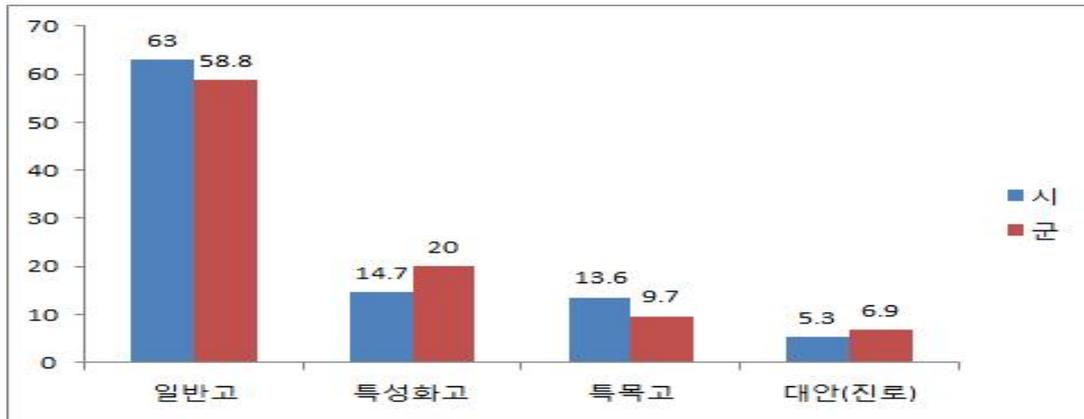
[그림 III-4] 공사립 여부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표 III-4> 공사립 여부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대안(진로)	기타	결측값	합계	χ^2
공립	61.7	15.8	13.2	5.6	3.1	.5	100.0	12.232* (df=5)
사립	62.9	15.9	11.7	5.8	3.4	.3	100.0	
전체	62.1	15.9	12.8	5.7	3.2	.5	100.0	

***: p<.001, **: p<.01, *: p<.05

시·군 여부와 희망 고교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여부와 희망 고교 선택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고 전체 평균은 62.1%인데, 시지역은 63.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면에 대안학교(진로)는 전체 평균이 5.7%인데 비해 시지역은 5.3%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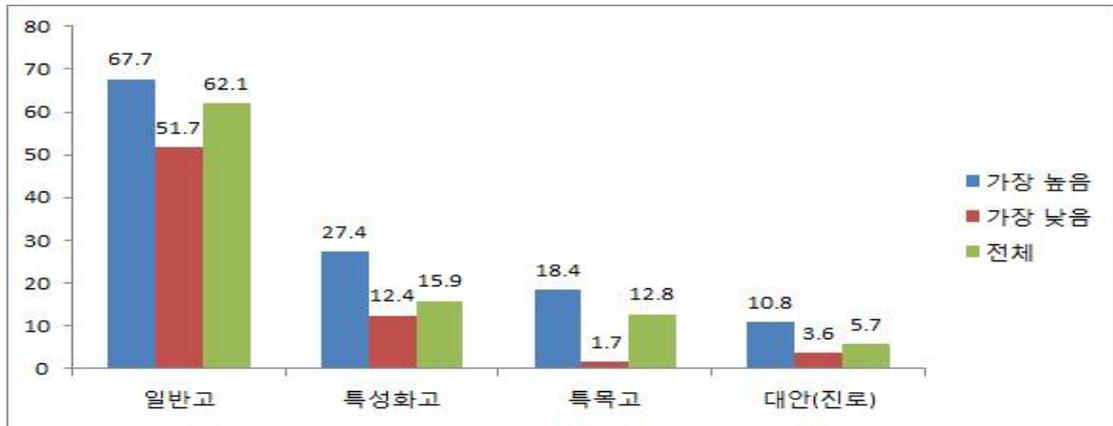
[그림 III-5] 시군 여부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표 III-5> 시군 여부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대안(진로)	기타	결측값	합계	χ^2
시	63.0	14.7	13.6	5.3	2.9	.5	100.0	157.982*** (df=5)
군	58.8	20.0	9.7	6.9	4.2	.4	100.0	
전체	62.1	15.9	12.8	5.7	3.2	.5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희망 고교 선택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희망 고교 선택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고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62.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양산시 63.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하동군은 51.7%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성화고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5.9%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하동군은 27.4%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2.4%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특목고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2.8%로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8.4%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합천군은 1.7%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대안학교(진로)는 전체 평균이 7.9%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산청군은 10.8%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3.6%로 상대적 인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6] 지역별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표 III-6> 지역별 * 희망고교 선택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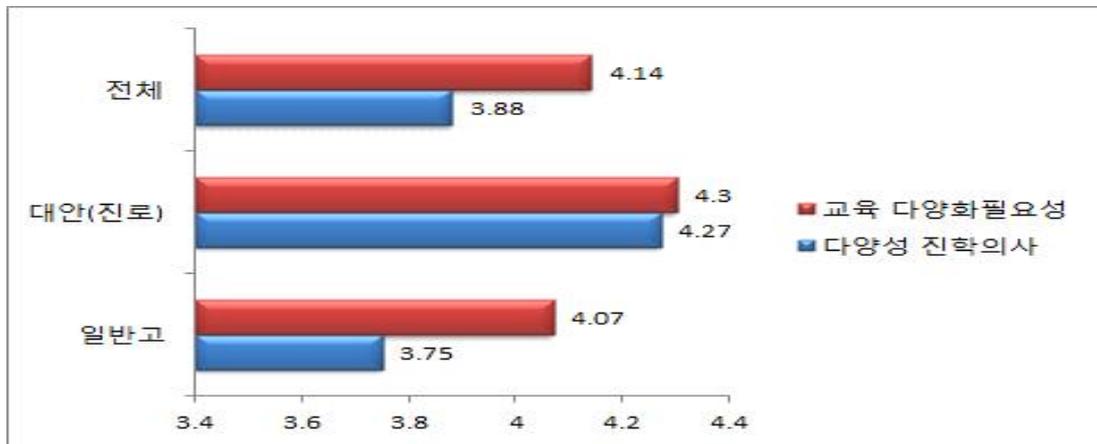
구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진로대안	기타	결측	합계	χ^2
거제시	63.8	15.0	8.9	6.8	5.2	.4	100.0%	594.558*** (df=105)
거창군	64.0	16.4	11.9	4.5	2.7	.6	100.0%	
고성군	57.2	19.0	12.7	7.5	2.9	.7	100.0%	
김해시	62.7	13.0	17.0	5.0	2.0	.3	100.0%	
남해군	65.7	16.4	6.8	7.3	3.3	.5	100.0%	
밀양시	58.8	16.5	11.4	8.4	4.2	.7	100.0%	
사천시	60.6	15.9	12.2	6.5	4.3	.5	100.0%	
산청군	54.1	17.9	10.8	10.8	5.6	.7	100.0%	
양산시	67.7	14.9	10.4	4.4	2.2	.4	100.0%	
의령군	55.5	21.9	7.5	7.9	6.4	.8	100.0%	
진주시	63.6	16.1	12.3	4.7	2.5	.8	100.0%	
창녕군	56.1	17.6	16.0	5.8	4.2	.3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63.0	14.6	16.1	3.8	2.3	.2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62.7	14.5	14.4	4.1	3.8	.5	100.0%	
창원시 성산구	62.7	12.4	18.4	3.6	2.5	.3	100.0%	
창원시 의창구	62.1	16.4	13.0	5.6	2.4	.6	100.0%	
창원시 진해구	60.0	14.9	15.0	6.5	3.0	.5	100.0%	
통영시	66.3	15.6	7.9	7.4	2.0	.7	100.0%	
하동군	51.7	27.4	8.9	6.1	5.4	.6	100.0%	
함안군	58.0	21.2	8.5	8.3	3.9	.2	100.0%	
함양군	61.3	20.1	9.3	5.1	4.2	0.0	100.0%	
합천군	67.6	18.2	1.7	7.5	5.0	0.0	100.0%	
전체	62.1	15.9	12.8	5.7	3.2	.5	100.0%	

***: p<.001, **: p<.01, *: p<.05

희망고교 선택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희망고교 선택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일반고 집

단과 나머지 각각 집단의 4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고 집단의 평균이 3.75로, 전체 평균과 나머지 각각 집단보다도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고교 선택에 따른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희망고교 선택에 따라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일반고 집단과 나머지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일반고 집단의 평균이 4.07로 나머지 집단보다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희망고교 선택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표 III-7> 희망고교 선택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1. 일반고	13,423	3.75	.92875	178.257***	1-2***
	2. 특성화고	3,427	4.20	.91096		1-3***
	3. 특목고	2,763	3.90	1.01680		1-4***
	4. 대안(진로)	1,228	4.27	.88123		1-5***
	5. 기타	681	4.04	.98444		2-3***
	결측	73	3.63	1.04757		2-5***
	전체	21,595	3.88	.95635		3-4***
	전체	21,595	3.88	.95635		3-5**
학교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1. 일반고	13,155	4.07	.83425	53.583***	4-5***
	2. 특성화고	3,364	4.27	.80833		1-2***
	3. 특목고	2,708	4.24	.83079		1-3***
	4. 대안(진로)	1,204	4.30	.79102		1-4***
	5. 기타	672	4.06	.95765		2-5***
	결측	86	4.15	.90121		3-5***
	전체	21,189	4.14	.83698		4-5***
	전체	21,189	4.14	.83698		4-5***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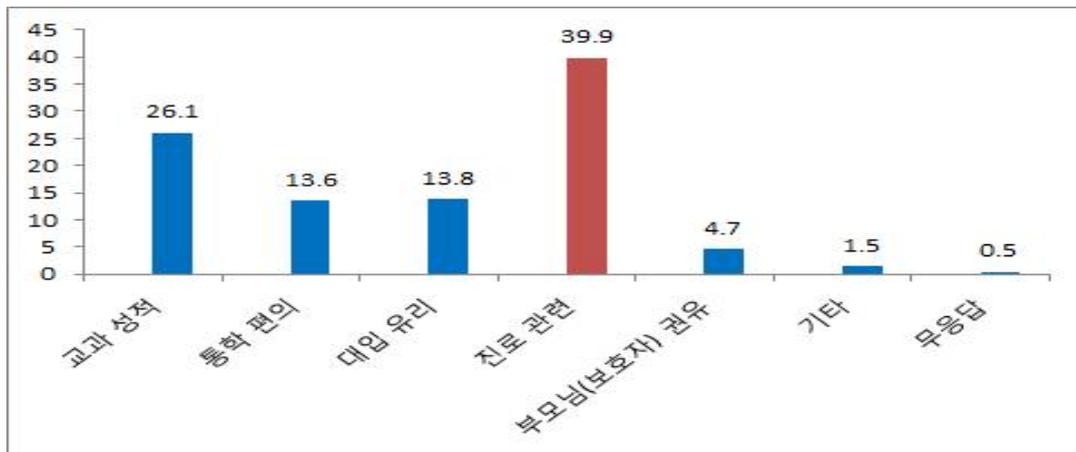
2. 고교 선택 기준

고교 선택 기준 항목에 대해 설문자 전체는 ‘진로 관련’이 39.9%(N=8,647)로 가장 많았고, 교과성적 26.1%(N=5,665), 대입 유리 13.8%(N=2,989), 통학 편의 13.6%(N=2,950)순이었다.

학부모는 진로 관련이 38.0%(N=4,029)로 가장 많았고, 교과 성적 26.3%(N=2,786), 대입 유리 15.2%(N=1,612), 통학 편의 14.9%(N=1,585)순이었다.

학생도 진로 관련이 41.7%(N=4,618)로 가장 많았고, 교과성적 26.0%(N=2,879), 대입 유리 12.4%(N=1,377), 통학 편의 12.3%(N=1,365)순으로 학부모와 순서가 같았다. ‘진로 관련’이 학부모와 학생 공히 높은 것을 볼 때,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가 적절하게 설립된다면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교 선택 기준의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학생 선택’이 47.2%로 가장 많았고, 취업 25.5%, 축구 14.5%, 기숙사 7.3%, 급식의 질 5.5%순이었다. 기타 항목의 ‘학생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진로 관련’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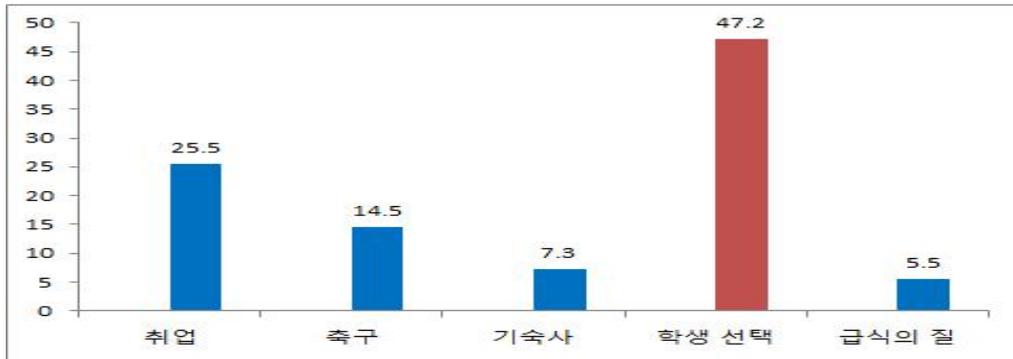


[그림 III-8] 전체 - 고교 선택 기준

(단위: %)

<표 III-8> 고교 선택 기준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고교 선택기준	교과 성적	5,665	26.1
		통학 편의	2,950	13.6
		대입 유리	2,989	13.8
		진로 관련	8,647	39.9
		부모님(보호자) 권유	1,010	4.7
		기타	317	1.5
		무응답	104	0.5
		합 계	21,682	100.0
학부모	고교 선택기준	교과 성적	2,786	26.3
		통학 편의	1,585	14.9
		대입 유리	1,612	15.2
		진로 관련	4,029	38.0
		부모님(보호자) 권유	401	3.8
		기타	153	1.4
		무응답	47	0.4
		합 계	10,613	100.0
학생	고교 선택기준	교과 성적	2,879	26.0
		통학 편의	1,365	12.3
		대입 유리	1,377	12.4
		진로 관련	4,618	41.7
		부모님(보호자) 권유	609	5.5
		기타	164	1.5
		무응답	57	0.5
		합 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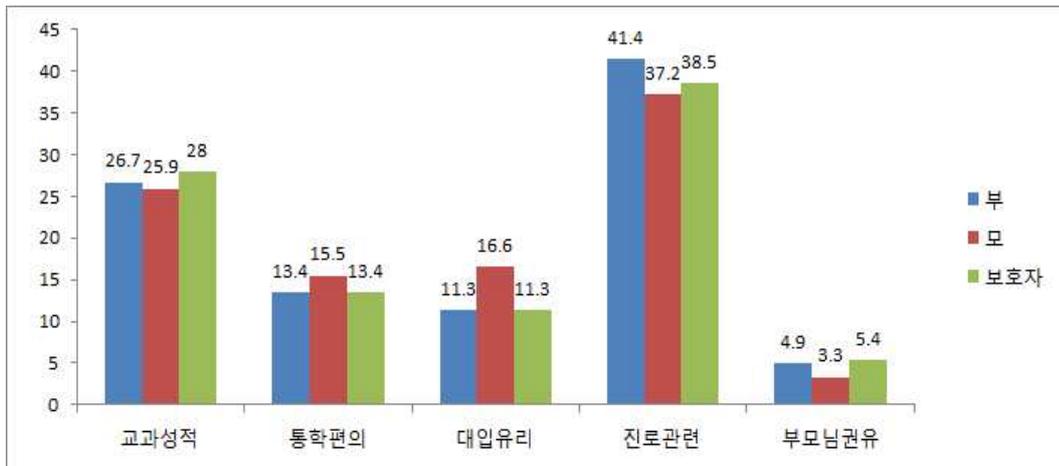


[그림 III-9] 고교 선택기준 기타 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9> 고교 선택 기준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내용	기타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고교 선택기준	취업	14	25.5
		축구	8	14.5
		기숙사	4	7.3
		학생 선택	26	47.2
		급식의 질	3	5.5
		합계	55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고교 선택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고교 선택기준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진로관련항목에서 전체 평균은 39.0%인데, 상대적으로父는 41.4%를 나타냈고, 母는 37.2%를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특이한 점은 母가 다른 항목에서는 父보다 비율이 낮았으나 ‘대입유리’ 항목에서는 母가 16.6%이고, 父가 11.3%를 보여 상대적으로 다른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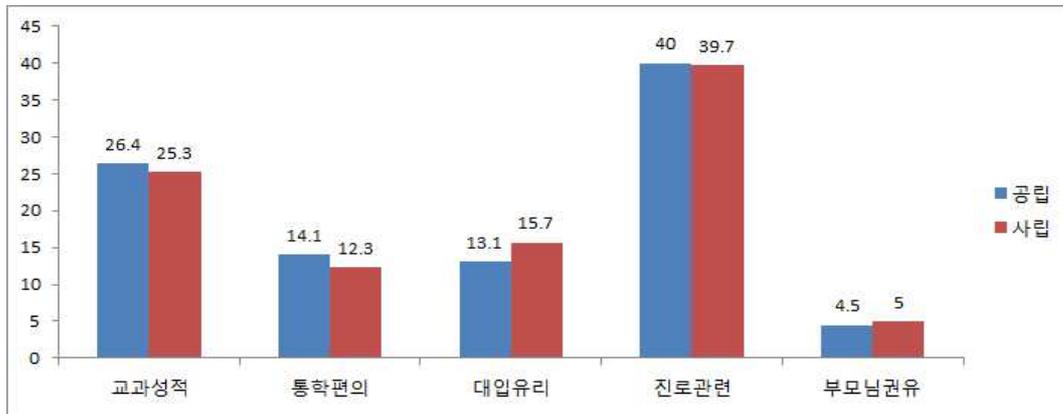
[그림 III-10] 학부모(보호자)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표 III-10> 학부모(보호자)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구분	교과성적	통학편의	대입유리	진로관련	부모님 권유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26.7	13.4	11.3	41.4	4.9	2.1%	.3%	100.0%	207.171*** (df=18)
모	25.9	15.5	16.6	37.2	3.3	1.2%	.4%	100.0%	
보호자	28.0	13.4	11.3	38.5	5.4	2.4%	1.0%	100.0%	
전체	26.87	14.10	13.07	39.03	4.53	1.90	0.57	100.0%	

***: $p < .001$, **: $p < .01$, *: $p < .05$

공·사립 여부와 고교 선택 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사립 여부와 고교 선택기준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립은 교과성적, 통학편의, 진로관련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사립보다 평균이 높았다. 반면에 대입유리 항목에서는 사립의 평균이 15.7%로, 공립의 평균 13.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로관련 항목에서는 공립 평균이 40.0%, 사립 평균이 39.7%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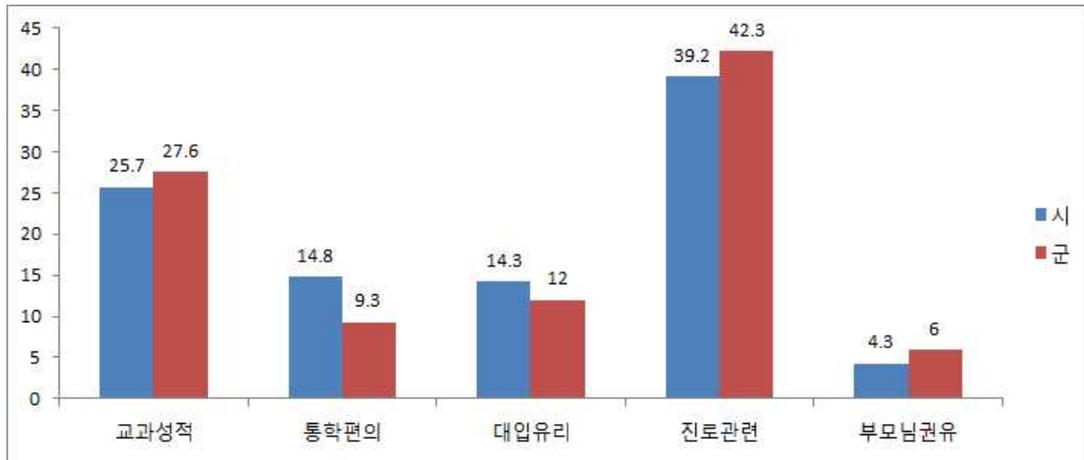
[그림 III-11] 공·사립 여부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표 III-11> 공·사립 여부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구분	교과성적	통학편의	대입유리	진로관련	부모님 권유	기타	결측	합계	χ ²
공립	26.4	14.1	13.1	40.0	4.5	1.4	.5	100.0	35.308*** (df=6)
사립	25.3	12.3	15.7	39.7	5.0	1.5	.5	100.0	
전체	26.1	13.6	13.8	39.9	4.7	1.5	.5	100.0	

***: p<.001, **: p<.01, *: p<.05

시·군 여부와 고교 선택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여부와 고교 선택기준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진로관련 항목에서 시지역은 39.2%, 군지역은 42.3%로 나타나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지역은 대입유리 항목과 통학편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군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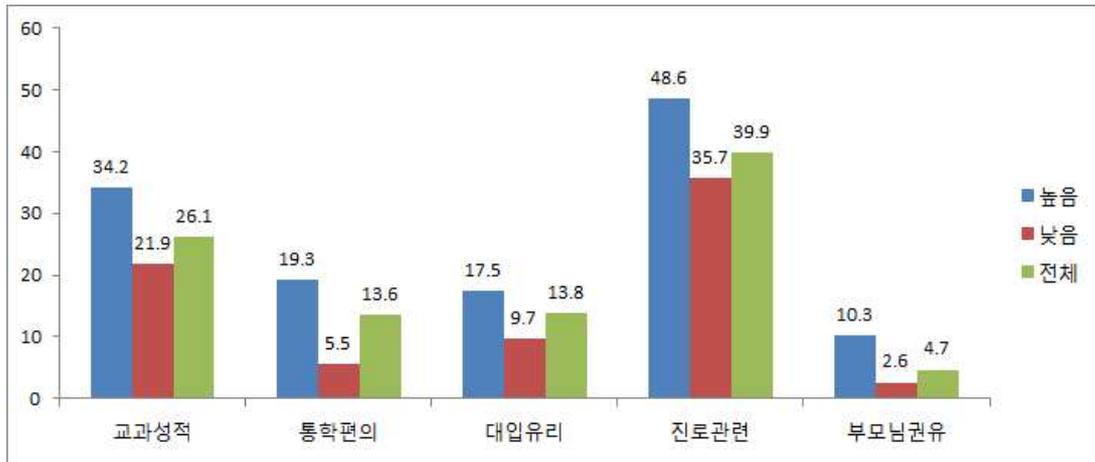
[그림 III-12] 시군 여부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표 III-12> 시군 여부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구분	교과성적	통학편의	대입유리	진로관련	부모님 권유	기타	결측	합계	χ^2
시	25.7	14.8	14.3	39.2	4.3	1.3	0.4	100.0	156.121*** (df=6)
군	27.6	9.3	12.0	42.3	6.0	2.1	0.6	100.0	
전체	26.1	13.6	13.8	39.9	4.7	1.5	0.5	100.0	

***: p<.001, **: p<.01, *: p<.05

지역별 구분과 고교 선택기준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고교 선택기준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과 성적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26.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창군은 34.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21.9%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통학 편의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13.6%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9.3%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거창군은 5.5%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대입유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13.8%를 나타냈고, 가장 높은 지역인 양산시 17.5%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녕군은 9.7%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진로관련 항목은 전체 평균이 39.9%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함양군은 48.6%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인 통영시는 35.7%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 권유 항목은 전체 평균이 4.7%이고, 가장 높은 지역인 고성군은 10.3%를 보였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함양군은 2.6%를 보여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13] 지역별 구분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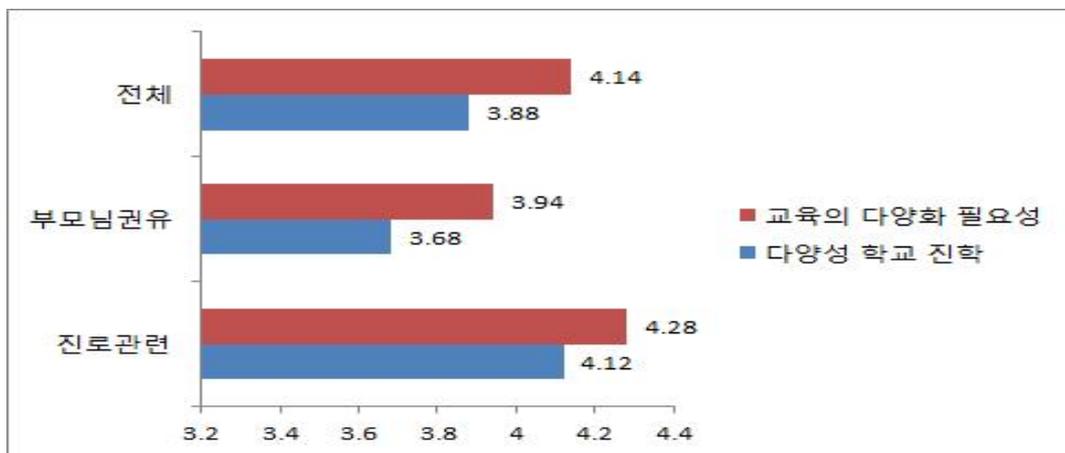
<표 III-13> 지역별 구분 * 고교 선택기준 관계 (단위: %)

구분	교과성적	통학편의	대입유리	진로관련	부모님권유	기타	결측	합계	χ^2
거제시	31.1	11.4%	14.4%	36.8%	4.4%	1.5%	.3	100.0%	554.886*** (df=126)
거창군	34.2	5.5	15.7%	36.4%	5.1%	2.0%	1.0	100.0%	
고성군	26.5	10.1%	11.0%	38.7%	10.3	2.1%	1.4	100.0%	
김해시	24.1	17.8%	14.1%	39.5%	3.2%	1.0%	.3	100.0%	
남해군	24.6	8.0%	13.1%	44.8%	6.8%	2.6%	0.0	100.0%	
밀양시	28.3	10.4%	11.6%	40.8%	5.8%	2.4%	.6	100.0%	
사천시	27.7	10.2%	13.6%	42.0%	4.1%	1.6%	.7	100.0%	
산청군	23.1	9.7%	11.6%	45.5%	5.6%	3.4%	1.1	100.0%	
양산시	23.4	14.5%	17.5	39.5%	3.6%	1.4%	.2	100.0%	
의령군	30.9%	9.4%	10.6%	40.0%	5.7%	2.6%	.8	100.0%	
진주시	27.0	16.0	12.8%	35.9%	6.3%	1.4%	.5	100.0%	
창녕군	25.8	9.8	9.7	47.4%	5.2%	1.9%	.2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22.1	15.3	15.1%	42.4%	3.9%	.9%	.4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23.7	14.3	15.6%	39.9%	5.3%	.9%	.4	100.0%	
창원시 성산구	21.9	19.3	15.8%	37.6%	3.6%	1.4%	.4	100.0%	
창원시 의창구	24.6	14.7	12.9%	42.7%	3.4%	1.2%	.5	100.0%	
창원시 진해구	28.2%	11.6%	13.9%	39.5%	5.1%	1.2%	.5	100.0%	
통영시	32.0%	13.3%	13.2%	35.7	4.2%	.9%	.7	100.0%	
하동군	27.0%	8.6%	12.0%	43.9%	5.5%	2.4%	.6	100.0%	
함안군	30.3%	11.9%	14.2%	36.6%	4.6%	2.2%	.2	100.0%	
함양군	26.2%	7.0%	11.5%	48.6	2.6	2.6%	1.6	100.0%	
합천군	26.5%	11.9%	10.0%	43.6%	7.1	.6%	.2	100.0%	
전체	26.1%	13.6	13.8	39.9	4.7	1.5%	.5	100.0%	

***: p<.001, **: p<.01, *: p<.05

고교 선택기준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고교 선택기준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진로관련 집단과 나머지 각각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진로관련 집단의 평균이 4.12로, 전체 평균 3.88과 가장 낮은 부모님 권유 3.68처럼 나머지 집단보다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선택기준에 따른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고교 선택기준에 따라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진로관련 집단과 나머지 각각 집단의 3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진로관련 집단의 평균이 4.28로, 전체 평균 4.14와 가장 낮은 부모님 권유 3.94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4] 고교 선택기준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표 III-14> 고교 선택기준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1. 교과성적	5648	3.72	.94763	154.557***	1-4*** 2-4*** 3-4*** 4-5*** 4-6***
	2. 통학편의	2945	3.74	.91156		
	3. 대입유리	2983	3.72	.94532		
	4. 진로관련	8625	4.12	.92622		
	5. 부모님권유	1008	3.68	.97362		
	6. 기타	314	3.82	1.04532		
	결측	72	3.58	.91544		
	합계	21595	3.88	.95635		
학교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1. 교과성적	5531	4.02	.84383	82.181***	1-3*** 1-4*** 2-3*** 2-4*** 3-4*** 3-5*** 3-6* 4-5*** 4-6***
	2. 통학편의	2862	4.01	.84100		
	3. 대입유리	2931	4.15	.83911		
	4. 진로관련	8484	4.28	.79170		
	5. 부모님권유	981	3.94	.89462		
	6. 기타	315	3.98	1.01096		
	결측	85	4.04	.83733		
	합계	21189	4.14	.83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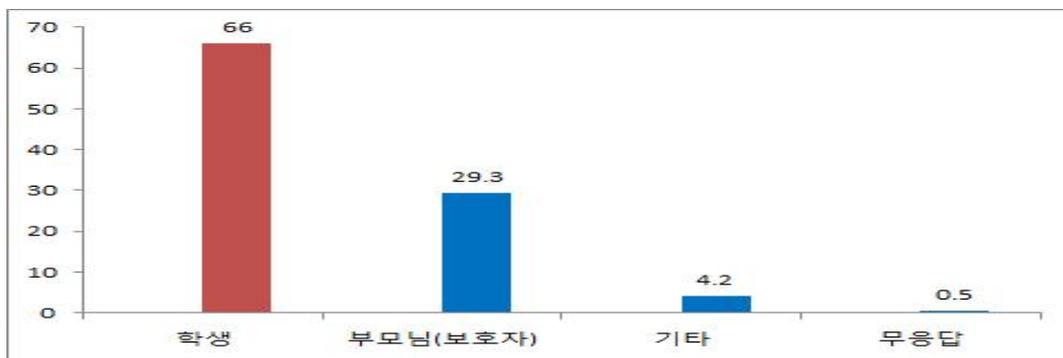
***: p<.001, **: p<.01, *: p<.05

3. 고교 선택 결정권자

고교 선택 결정권자 항목에 대해 설문자 전체는 '학생'이 66.0%(N=14,300)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보호자)이 29.3%(N=6,363)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학생(자녀)'이 64.4%(N=6,833)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보호자)이 30.6%(N=3,249)로 나타났다. 학생은 '학생(본인)'이 67.5%(N=7,46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보호자) 28.1%(N=3,114)로 나타났다.

고교 선택 결정권자의 기타 5개 항목은 '가족 간 협의'가 97.7%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 0.8%, 친구 0.5%, 할아버지 0.5%, 사범님 또는 운동지도자 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고교 선택 결정권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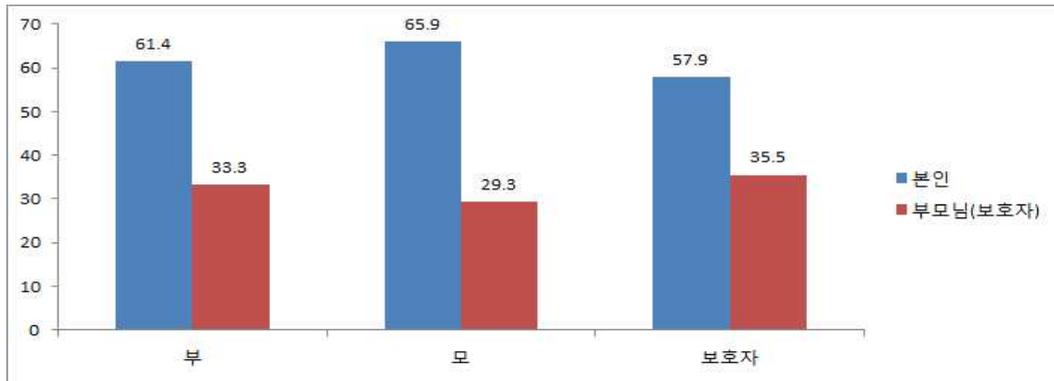
<표 III-15> 고교 선택 결정권자

구분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학생	14,300	66.0
	부모님(보호자)	6,363	29.3
	기타	914	4.2
	무응답	105	0.5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학생	6,833	64.4
	부모님(보호자)	3,249	30.6
	기타	471	4.4
	무응답	60	0.6
	합계	10,613	100.0
학생	학생	7,467	67.5
	부모님(보호자)	3,114	28.1
	기타	443	4.0
	무응답	45	0.4
	합계	11,069	100.0

<표 III-16> 고교 선택 결정권자 기타 5개 항목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고교 선택 결정 기타	가족 간 협의	382	97.7
		선생님	3	0.8
		사범님 또는 운동지도자	2	0.5
		친구	2	0.5
		할아버지	2	0.5
		합계	391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고교 결정권자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고교 결정권자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본인'항목에서 전체 평균은 61.7%인데, 아버지는 61.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65.9%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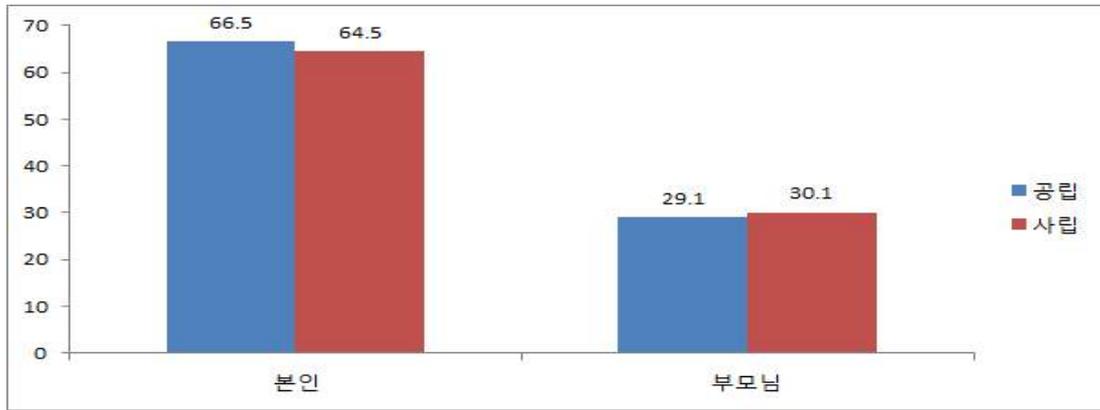
[그림 III-16] 학부모(또는 보호자) * 고교 결정권자 관계 (단위: %)

<표 III-17> 학부모(또는 보호자) * 고교 결정권자 관계 (단위: %)

구분	본인	부모님(보호자)	기타	결측값	합계	χ^2
부	61.4	33.3	5.0	.3	100.0	65.800*** (df=9)
모	65.9	29.3	4.1	.6	100.0	
보호자	57.9	35.5	5.7	.9	100.0	
전체	61.73	32.70	4.93	0.60	100.0	

***: $p < .001$, **: $p < .01$, *: $p < .05$

공·사립 여부와 고교 선택 결정권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사립 여부와 고교 선택 결정권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립은 본인항목이 66.5%로 사립의 64.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님 항목에서는 사립이 30.1%로, 공립이 29.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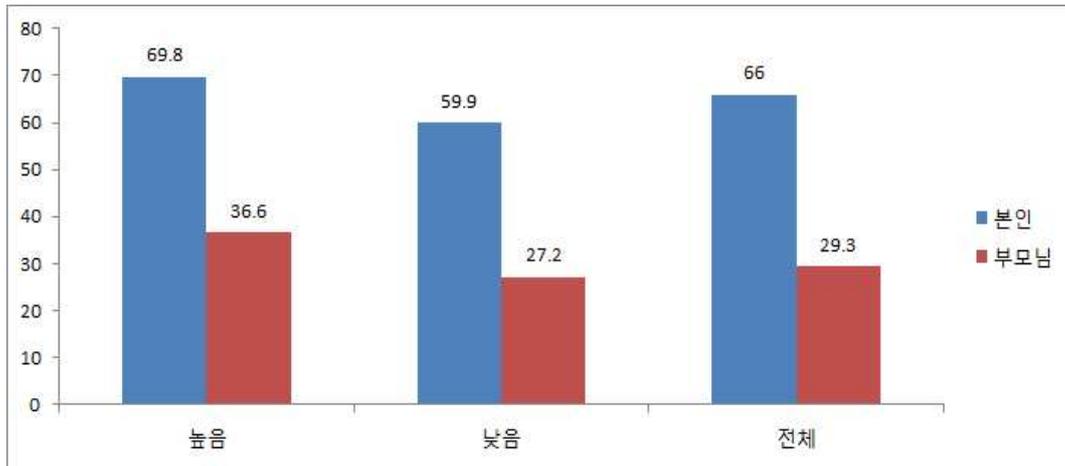
[그림 III-17] 공사립 * 고교 선택 결정권자 관계 (단위: %)

<표 III-18> 공사립 * 고교 선택 결정권자 관계 (단위: %)

구분	본인	부모님	기타	결측값	합계	χ^2
공립	66.5	29.1	4.0%	.5%	100.0%	11.092* (df=3)
사립	64.5	30.1	4.8%	.6%	100.0%	
전체	66.0%	29.3%	4.2%	.5%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고교 결정권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고교 선택 결정권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인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은 66.0%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69.8%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고성군은 59.9%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29.3%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의령군은 36.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거창군과 함양군은 27.2%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18] 지역별 구분 * 고교 결정권자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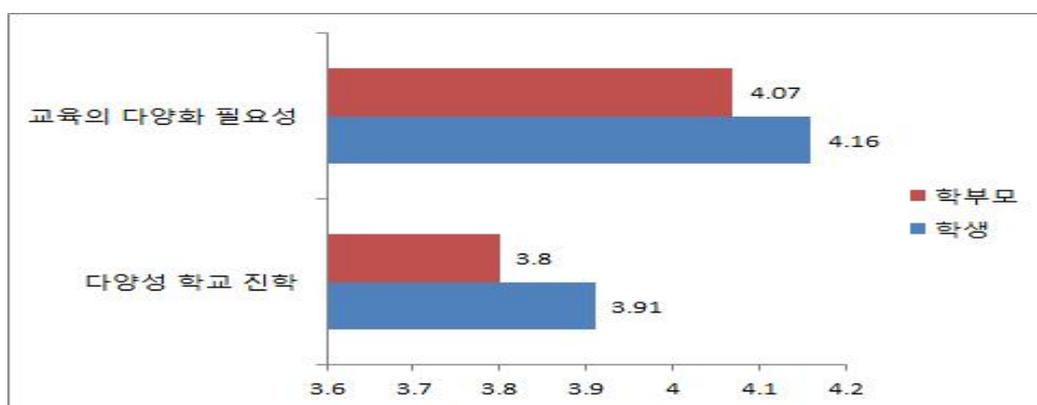
<표 III-19> 지역별 구분 * 고교 결정권자 관계 (단위: %)

구분	본인	부모님	기타	결측	합계	χ^2
거제시	65.4%	29.3%	4.7%	.6%	100.0%	150.231*** (df=63)
거창군	69.1%	27.2%	2.2%	1.4%	100.0%	
고성군	59.9%	35.4%	4.1%	.5%	100.0%	
김해시	69.6%	26.8%	3.4%	.2%	100.0%	
남해군	65.0%	26.5%	7.7%	.7%	100.0%	
밀양시	62.2%	31.5%	6.0%	.3%	100.0%	
사천시	67.3%	27.6%	4.1%	1.0%	100.0%	
산청군	67.5%	27.6%	4.9%	0.0%	100.0%	
양산시	64.7%	30.7%	4.3%	.3%	100.0%	
의령군	60.8%	36.6%	1.9%	.8%	100.0%	
진주시	62.6%	32.3%	4.5%	.7%	100.0%	
창녕군	63.9%	31.8%	3.9%	.5%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63.9%	29.7%	6.3%	.1%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65.9%	29.4%	4.0%	.7%	100.0%	
창원시 성산구	69.8%	25.7%	3.9%	.6%	100.0%	
창원시 의창구	67.4%	28.0%	4.1%	.4%	100.0%	
창원시 진해구	65.3%	30.4%	3.6%	.7%	100.0%	
통영시	64.8%	31.0%	3.7%	.5%	100.0%	
하동군	64.5%	30.1%	5.0%	.4%	100.0%	
함안군	67.6%	28.3%	3.9%	.2%	100.0%	
함양군	68.1%	27.2%	4.5%	.3%	100.0%	
합천군	61.4%	34.4%	4.2%	0.0%	100.0%	
전체	66.0	29.3	4.2%	.5%	100.0%	

***: p<.001, **: p<.01, *: p<.05

고교 결정권자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고교 결정권자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평균이 3.91이었고, 학부모의 경우 평균이 3.80 이었다. 이로 볼 때, 학생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가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교 결정권자와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고교 결정권자와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 평균이 4.16이었고, 학부모의 경우 평균이 4.07 이었다. 이로 볼 때, 학생의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이 학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19] 고교 결정권자 *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표 III-20> 고교 결정권자 *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내용	결정권	N	M	SD	F	t
다양성 의사	학생	14,268	3.91	.95298	.478	7.458***
	학부모	6,352	3.80	.95803		
다양화 필요성	학생	13,992	4.16	.82955	3.977	7.328***
	학부모	6,212	4.07	.84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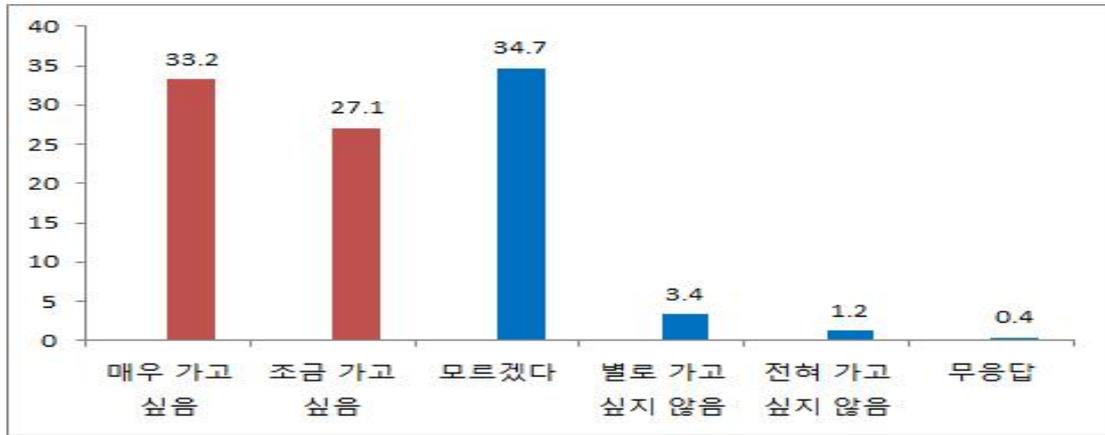
***: p<.001, **: p<.01, *: p<.05

4. 진로 선택 다양성 학교 선택 의향 정도

진로 선택 다양성 학교 선택 의향에 대한 정도를 빈도 분석했다. 설문자 전체는 긍정률(‘가고 싶음’)이 60.3%(N=13,067)로 부정률(‘가고 싶지 않음’)의 4.6%(N=1,010)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르겠다는

34.7%(N=7,518)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긍정률(‘가고 싶음’)이 58.4%(N=6,200)로 부정률(‘가고 싶지 않음’)의 5.5%(N=581)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르겠다는 35.6%(N=3,776)을 나타냈다. 학생은 긍정률(‘가고 싶음’)이 62.0%(N=6,867)로 부정률(‘가고 싶지 않음’)의 3.8%(N=429)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르겠다는 33.8%(N=3,742)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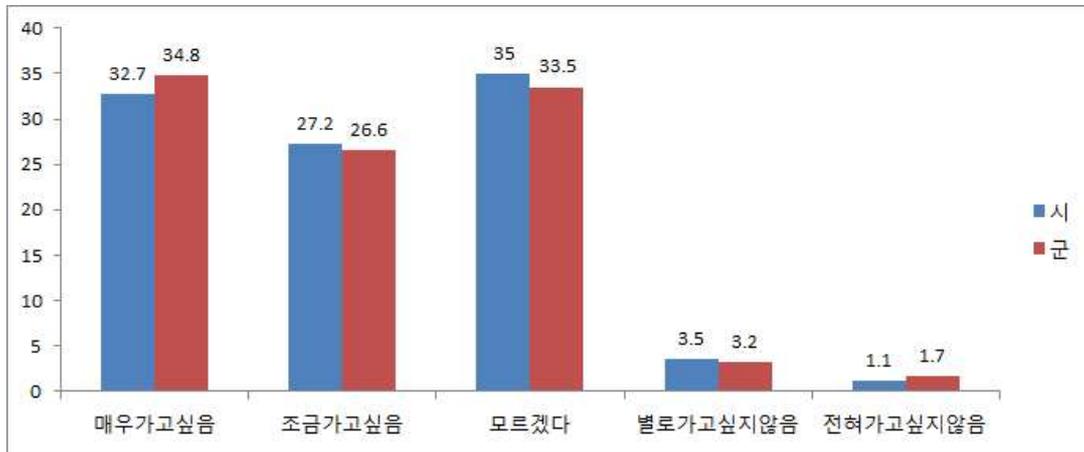


[그림 III-20]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정도 (단위: %)

<표 III-21>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정도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선택 정도	매우 가고 싶음	7,196	33.2
		조금 가고 싶음	5,871	27.1
		모르겠다	7,518	34.7
		별로 가고 싶지 않음	748	3.4
		전혀 가고 싶지 않음	262	1.2
		무응답	87	0.4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선택 정도	매우 가고 싶음	3,051	28.7
		조금 가고 싶음	3,149	29.7
		모르겠다	3,776	35.6
		별로 가고 싶지 않음	445	4.2
		전혀 가고 싶지 않음	136	1.3
		무응답	56	0.5
		합계	10,613	100.0
학생	선택 정도	매우 가고 싶음	4,145	37.4
		조금 가고 싶음	2,722	24.6
		모르겠다	3,742	33.8
		별로 가고 싶지 않음	303	2.7
		전혀 가고 싶지 않음	126	1.1
		무응답	31	0.3
		합계	11,069	100.0

시·군 여부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여부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가고 싶음’ 항목은 시지역은 32.7%, 군지역은 34.8%로 나타나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모르겠다’ 항목은 시지역이 35.0%, 군지역은 33.5%로 나타나 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II-21] 시군 여부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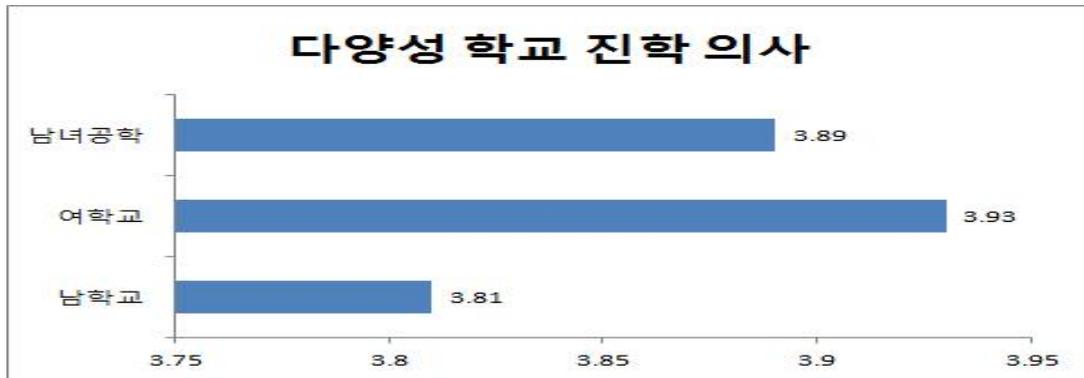
<표 III-22> 시군 여부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단위: %)

구분	매우가고 싶음	조금가고 싶음	모르겠 다	별로가고 싶지 않음	전혀가고 싶지 않음	결측값	합계	χ^2
시	32.7	27.2	35.0	3.5	1.1	0.4	100.0	21.017** (df=5)
군	34.8	26.6	33.5	3.2	1.7	0.3	100.0	
전체	33.2	27.1	34.7	3.4	1.2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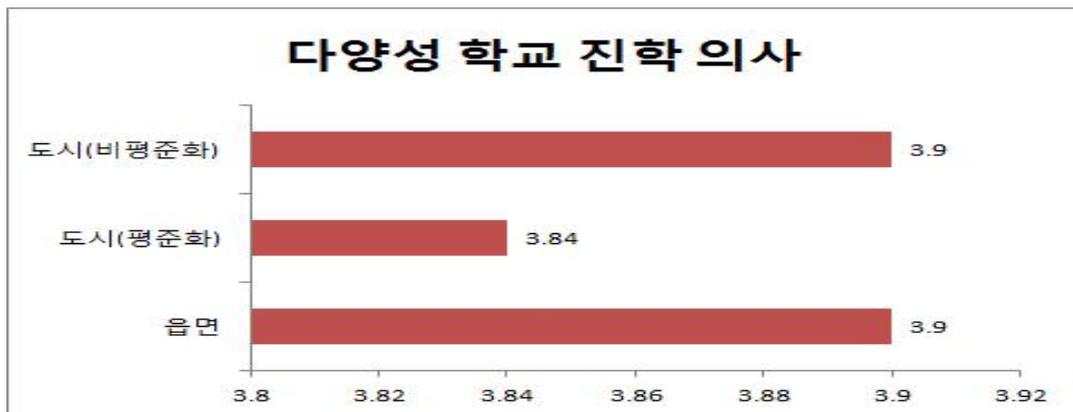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학교 구분(남, 여, 남녀공학)에 따른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학교 구분 기준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남학교 집단과 여학교와 남녀공학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남학교 집단의 평균이 3.81로, 여학교 평균 3.93과 남녀공학 평균 3.89로 나타나 남학교 집단의 평균이 나머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소재지(읍면, 도시평준화, 도시비평준화)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도시 평준화 집단과 읍면지역 및 도시 비평준화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도시평준화 집단의 평균이 3.84로, 읍면지역 및 도시 비평준화 평균 3.90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22] 학교구분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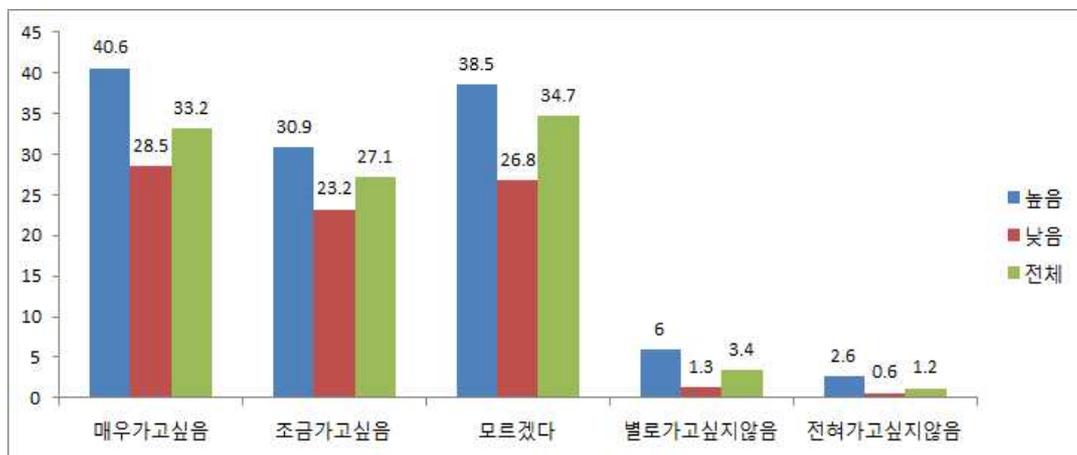
[그림 Ⅲ-23] 학교소재지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표 III-23> 학교구분 및 학교소재지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내용구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학교구분	남학교	4148	3.81	.98084	15.007***	1-2*** 1-3***
	여학교	4178	3.93	.93999		
	남녀공학	12960	3.89	.95204		
	합계	21286	3.88	.95601		
학교소재지	읍면	8546	3.90	.96449	8.700***	1-2*** 2-3*
	도시평준화	8411	3.84	.94886		
	도시비평준화	4314	3.90	.95148		
	합계	21271	3.88	.95605		

***: p<.001, **: p<.01, *: p<.05

지역별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가고 싶음’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은 33.2%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하동군은 40.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녕군은 28.5%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금 가고 싶음’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27.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창군은 30.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남해군은 23.2%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모르겠다’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34.7%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38.5%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의령군은 26.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음’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3.4%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는 6.0%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함양군은 1.3%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전혀 가고 싶지 않음’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2%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창군은 2.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남해군은 0.6%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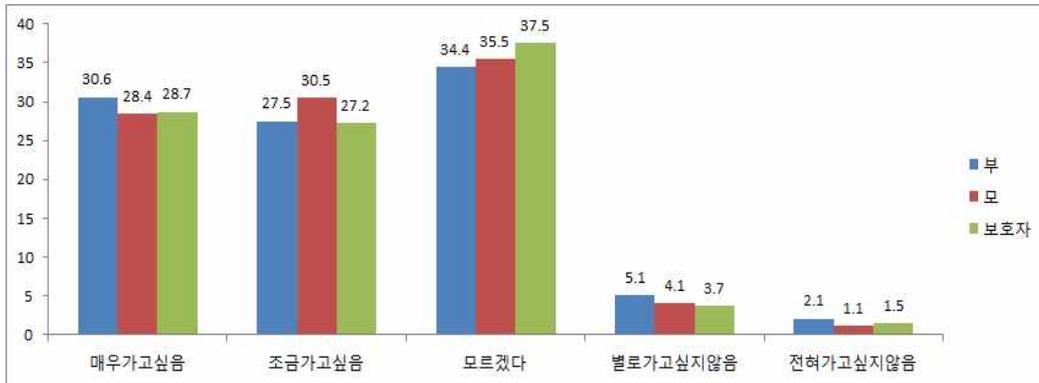
[그림III-24] 지역 구분 * 다양성 의사 선택 관계 (단위: %)

<표 III-24> 지역 구분 * 다양성 의사 선택 관계 (단위: %)

구분	매우가 고싶음	조금가 고싶음	모르겠 다	별로가고 싶지않음	전혀 가고 싶지 않음	결측	합계	χ ²
거제시	35.5%	30.2%	29.1%	3.5%	1.2%	.6%	100.0%	242.109*** (df=105)
거창군	32.7%	30.9%	32.7%	2.7%	.6%	.4%	100.0%	
고성군	30.7%	28.8%	35.3%	2.9%	1.9%	.5%	100.0%	
김해시	31.0%	28.4%	35.3%	4.0%	1.0%	.3%	100.0%	
남해군	35.7%	23.2%	34.7%	3.8%	2.1%	.5%	100.0%	
밀양시	30.8%	26.7%	37.0%	4.4%	.7%	.3%	100.0%	
사천시	36.5%	25.1%	34.4%	2.3%	1.2%	.5%	100.0%	
사천군	36.6%	23.5%	33.6%	3.7%	2.6%	0.0%	100.0%	
양산시	34.4%	28.3%	33.4%	2.8%	.8%	.3%	100.0%	
의령군	37.4%	29.8%	26.8%	3.4%	2.3%	.4%	100.0%	
진주시	31.3%	25.7%	37.7%	3.0%	1.6%	.7%	100.0%	
창녕군	28.5%	30.3%	33.9%	5.5%	1.8%	0.0%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34.8%	26.6%	30.9%	6.0%	1.5%	.3%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31.4%	26.2%	37.7%	3.3%	.9%	.4%	100.0%	
창원시 성산구	30.3%	27.0%	38.5%	2.8%	1.1%	.2%	100.0%	
창원시 의창구	32.9%	28.7%	33.7%	3.6%	.9%	.3%	100.0%	
창원시 진해구	31.5%	26.4%	36.5%	3.7%	1.4%	.5%	100.0%	
통영시	37.4%	24.3%	33.4%	3.4%	.8%	.7%	100.0%	
하동군	40.6%	25.8%	28.8%	2.8%	1.8%	.3%	100.0%	
함안군	38.3%	19.5%	38.0%	2.4%	1.4%	.5%	100.0%	
함양군	39.9%	27.2%	30.4%	1.3%	1.3%	0.0%	100.0%	
합천군	30.7%	27.3%	37.4%	2.7%	1.5%	.4%	100.0%	
전체	33.2	27.1	34.7	3.4	1.2	.4%	100.0%	

***: p<.001, **: p<.01, *: p<.05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모르겠다’항목에서 전체 평균은 35.8%인데, 아버지는 34.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5.5%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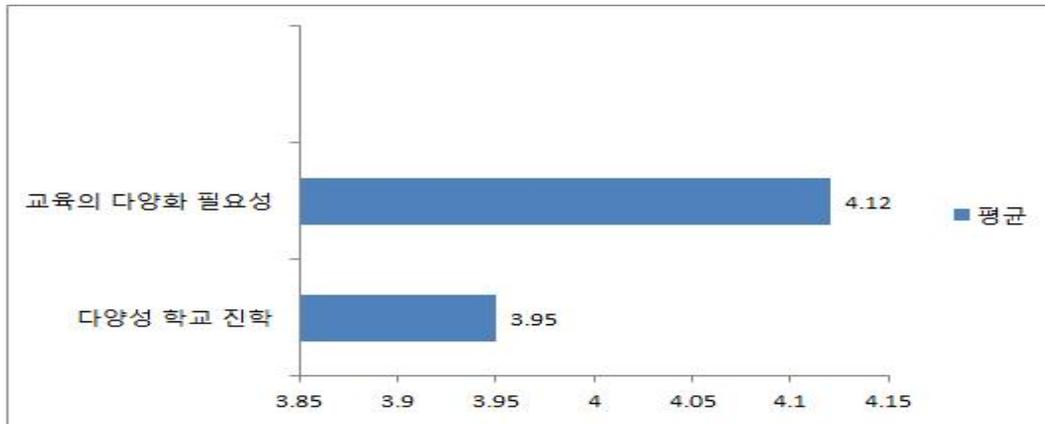
[그림Ⅲ-25] 학부모(보호자)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단위: %)

<표 Ⅲ-25> 학부모(또는 보호자)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단위: %)

구분	매우가고 싶음	조금가고 싶음	모르겠 다	별로가고싶 지않음	전혀가 고싶지 않음	결측값	합계	χ^2
부	30.6	27.5	34.4	5.1	2.1	.4	100.0	276.062*** (df=15)
모	28.4	30.5	35.5	4.1	1.1	.4	100.0	
보호자	28.7	27.2	37.5	3.7	1.5	1.4	100.0	
전체	29.23	28.40	35.80	4.30	1.57	0.73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 항목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항목과의 관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 항목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항목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 항목의 평균은 3.95이며,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항목의 평균은 4.12로서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항목이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I-26] 정도항목 2개 문항 평균 비교 분석

<표 III-26> 정도항목 2개 문항 평균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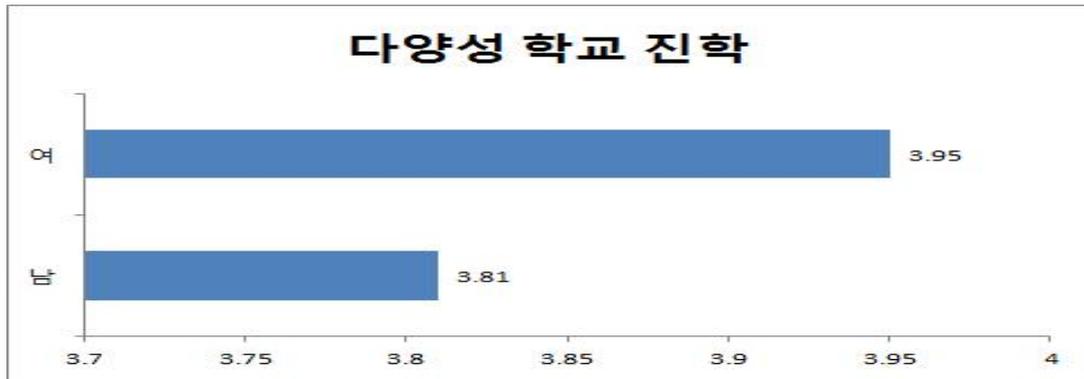
순	문항 내용	N	M	SD	t
1	진로 다양성 학교가 생긴다면 갈 의향 정도	10794	3.95	.95870	-17.518*** (df=10793)
2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정도	10794	4.12	.84436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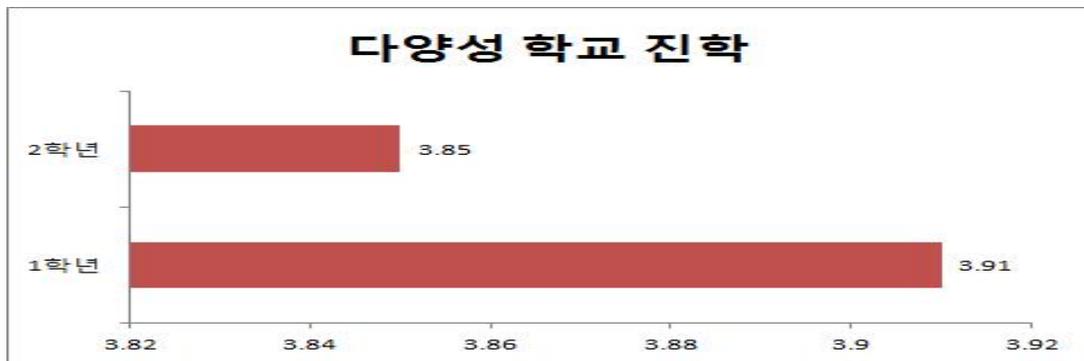
(문항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조금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학생의 성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의 성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평균이 3.95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평균이 3.81 이었다. 이로 볼 때, 여학생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학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의 학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1학년 학생의 경우 평균이 3.91이었고, 2학년 학생의 경우 평균이 3.85 이었다. 이로 볼 때, 1학년 학생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가 2학년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27] 성별 구분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그림 III-28] 학년 구분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표 III-27> 성별 및 학년 *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구분		N	M	SD	F	t
성별	남	10595	3.81	.98407	156.871	-10.940***
	여	10611	3.95	.92050		
학년	1학년	10843	3.91	.95226	9.403	4.921***
	2학년	10403	3.85	.95847		

***: $p < .001$,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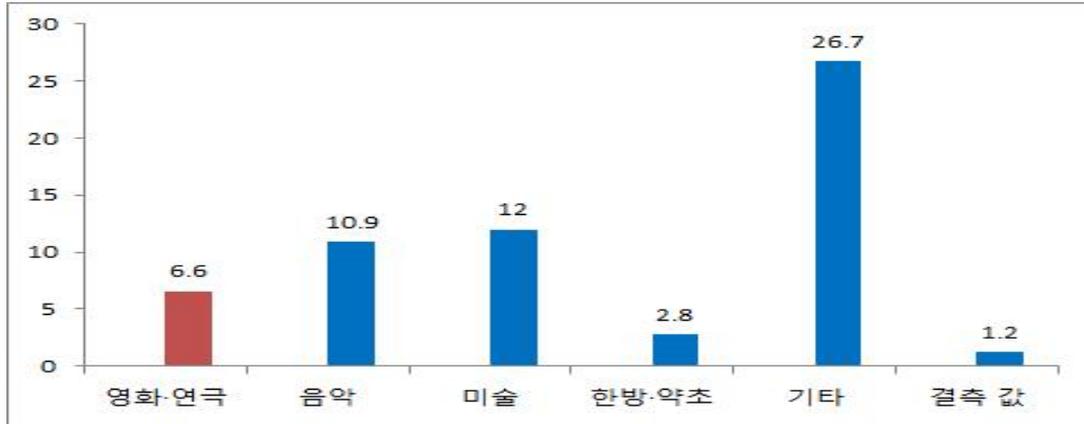
4-1.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를 원하는 설문자(N=13,067)를 대상으로만 선택분야에 대한 빈도분석을 했다. 설문자 전체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미술'이 12.0%(N=2,610)이 가장 많았고, 음악 10.9%(N=2,374), 영화·연극 6.6%(N=1,429), 한방·약초 2.8%(N=611)순이었다.

학부모는 미술이 12.5%(N=1,325)로 가장 많았고, 음악 9.9%(N=1,052), 영화·연극 6.1%(N=643), 한방·약초 4.0%(N=429)순이었다.

반면에 학생은 음악이 11.9%(N=1,322)이 가장 많았고, 미술 11.6%(N=1,285), 영화·연극 7.1%(N=786), 한방·약초 1.6%(N=182)순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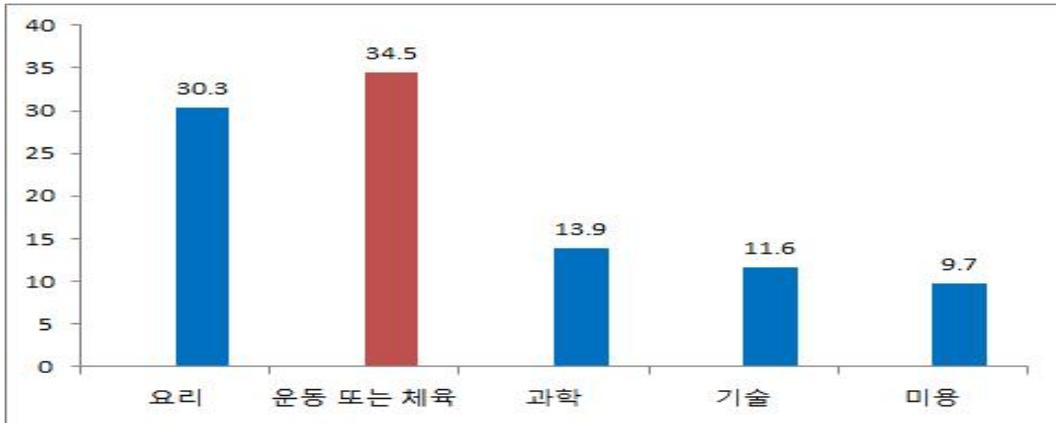
선택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체육이 34.5%(N=451)로 가장 많았고, 요리 30.3%(N=395), 과학 13.9%(N=182), 기술 11.6%(N=151), 미용 9.7%(N=127) 순이었다.



[그림 III-29] 전체 -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단위: %)

<표 III-28>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선택 분야	무 해당자	8,615	39.7
		영화·연극	1,429	6.6
		음악	2,374	10.9
		미술	2,610	12.0
		한방·약초	611	2.8
		기타	5,788	26.7
		결측 값	255	1.2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선택 분야	무 해당자	4,413	41.6
		영화·연극	643	6.1
		음악	1,052	9.9
		미술	1,325	12.5
		한방·약초	429	4.0
		기타	2,587	24.4
		결측 값	164	1.5
		합계	10,613	100.0
학생	선택 분야	무 해당자	4,202	38.0
		영화·연극	786	7.1
		음악	1,322	11.9
		미술	1,285	11.6
		한방·약초	182	1.6
		기타	3,201	28.9
		결측 값	91	0.8
		합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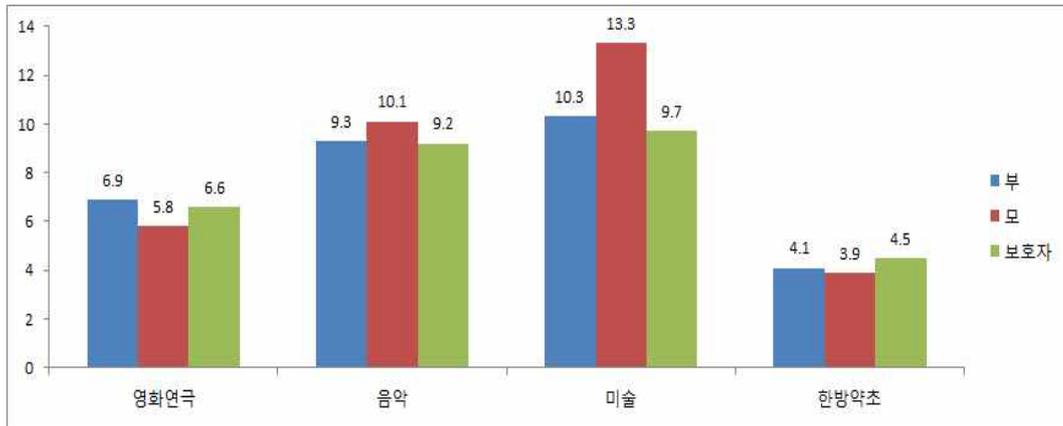


[그림 III-30] 다양성 선택학교 기타 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29>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내용	기타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선택 분야 기타	요리	395	30.3
		운동 또는 체육	451	34.5
		과학	182	13.9
		기술	151	11.6
		미용	127	9.7
		합계	1,306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미술’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11.1%인데, 아버지는 10.3%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3.3%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음악’항목에서는 아버지가 9.3%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0.1%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영화연극’항목에서는 아버지가 6.9%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5.8%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한방약초’항목에서는 아버지가 4.1%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9%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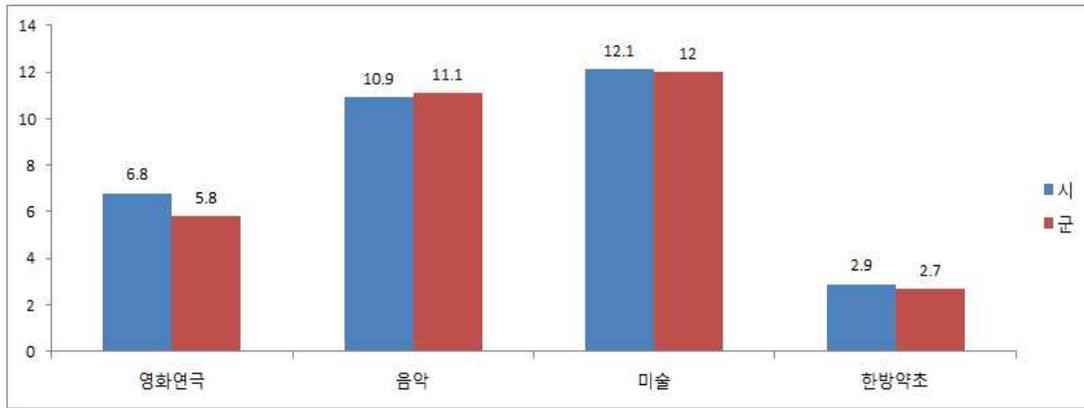
[그림 III-31] 학부모(보호자) *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관계 (단위: %)

<표 III-30> 학부모(또는 보호자) *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영화연극	음악	미술	한방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42.0	6.9	9.3	10.3	4.1	26.5	.9	100.0	268.037*** (df=18)
모	41.1	5.8	10.1	13.3	3.9	24.1	1.6	100.0	
보호자	44.1	6.6	9.2	9.7	4.5	23.6	2.3	100.0	
전체	42.40	6.43	9.53	11.10	4.17	24.73	1.60	100.0	

***: $p < .001$, **: $p < .01$, *: $p < .05$

시군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미술'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12.0%인데, 아버지는 12.1%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2.0%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음악'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0.9%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1.1%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영화연극'항목에서는 아버지가 6.8%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5.8%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한방약초'항목에서는 아버지가 2.9%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2.7%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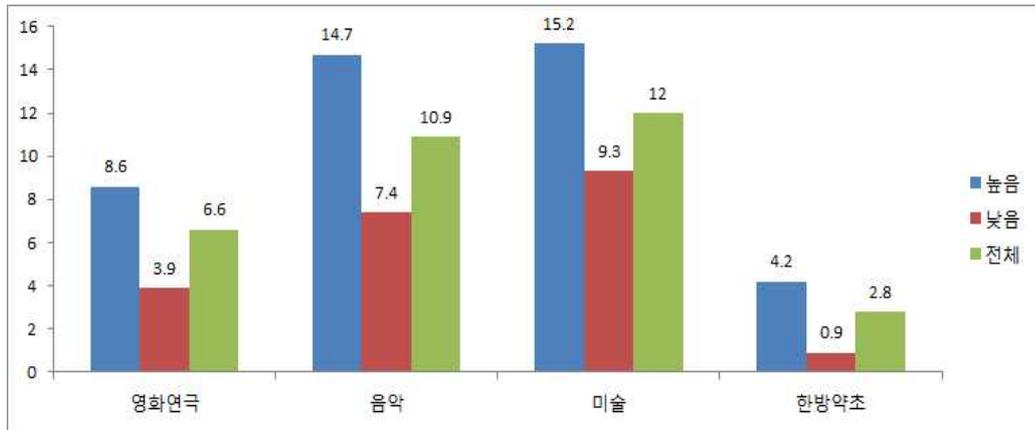
[그림 III-32] 시군 구분 *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단위: %)

<표 III-31> 시군 구분 *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단위: %)

구분	미해당	영화연극	음악	미술	한방약초	기타	결측	합계	χ^2
시	40.1	6.8	10.9	12.1	2.9	26.2	1.1	100.0	17.155** (df=6)
군	38.6	5.8	11.1	12.0	2.7	28.6	1.3	100.0	
전체	39.7	6.6	10.9	12.0	2.8	26.7	1.2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연극’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은 6.6%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통영시는 8.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함안군은 3.9%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음악’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0.9%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의령군은 14.7%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7.4%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미술’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2.0%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하동군은 15.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함안군은 9.3%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한방약초’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2.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함양군은 4.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남해군은 0.9%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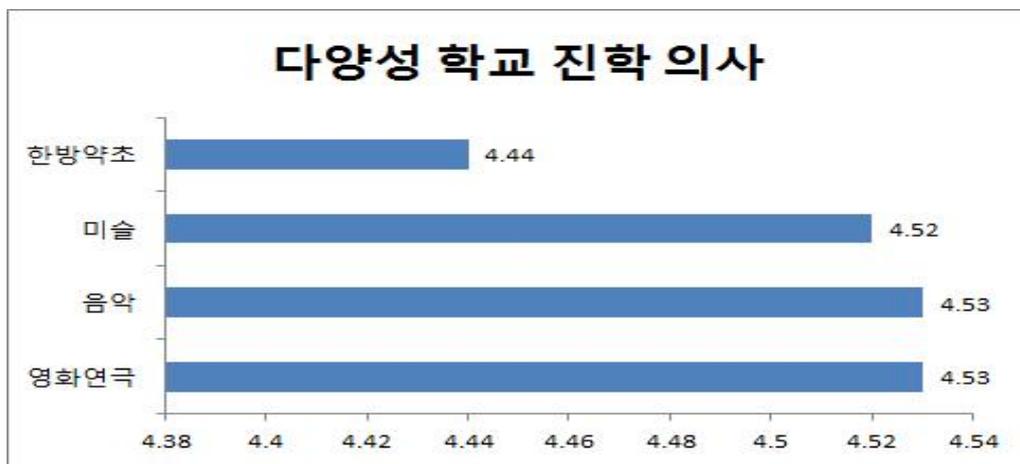
[그림 III-33] 지역 구분 *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단위: %)

<표 III-32> 지역 구분 *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영화연극	음악	미술	한방약초	기타	결측	합계	χ ²
거제시	34.3%	7.2%	11.8%	11.9%	3.5%	30.5%	.8%	100.0%	260.687*** (df=126)
거창군	36.4%	6.1%	12.1%	11.0%	2.7%	30.1%	1.6%	100.0%	
고성군	40.6%	7.2%	10.8%	12.3%	3.8%	24.5%	.9%	100.0%	
김해시	40.6%	6.8%	12.6%	11.4%	2.9%	24.7%	1.0%	100.0%	
남해군	41.1%	6.1%	12.2%	10.6%	0.9	28.2%	.9%	100.0%	
밀양시	42.4%	7.8%	11.2%	9.5%	3.4%	24.1%	1.5%	100.0%	
사천시	38.4%	7.1%	12.2%	12.7%	2.6%	26.4%	.6%	100.0%	
산청군	39.9%	5.2%	11.2%	10.1%	2.2%	28.7%	2.6%	100.0%	
양산시	37.3%	5.6%	9.9%	12.9%	3.8%	29.7%	.8%	100.0%	
의령군	32.8%	4.9%	14.7	10.9%	1.9%	33.6%	1.1%	100.0%	
진주시	43.0%	7.6%	9.1%	11.4%	2.8%	24.5%	1.6%	100.0%	
창녕군	41.1%	6.1%	9.8%	11.3%	3.9%	27.1%	.6%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38.6%	6.6%	11.7%	13.7%	3.5%	24.4%	1.6%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42.4%	5.8%	11.9%	12.5%	1.8%	24.6%	1.1%	100.0%	
창원시 성산구	42.7%	6.5%	7.4	12.6%	2.5%	26.8%	1.5%	100.0%	
창원시 의창구	38.4%	6.3%	10.5%	12.4%	3.6%	27.4%	1.3%	100.0%	
창원시 진해구	42.1%	6.8%	10.7%	11.5%	1.6%	26.2%	1.0%	100.0%	
통영시	38.3%	8.6	12.0%	12.9%	2.2%	25.1%	.9%	100.0%	
하동군	33.7%	6.5%	9.0%	15.2	2.2%	31.4%	1.9%	100.0%	
함안군	42.2%	3.9	12.9%	9.3	2.2%	28.8%	.7%	100.0%	
함양군	32.9%	6.7%	10.2%	13.1%	4.2	31.0%	1.9%	100.0%	
합천군	42.0%	4.6%	10.9%	13.8%	2.3%	25.1%	1.5%	100.0%	
전체	39.7%	6.6	10.9	12.0	2.8	26.7%	1.2%	100.0%	

***: p<.001, **: p<.01, *: p<.05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희망분야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한방약초 집단과 음악, 미술, 영화연극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한방약초 집단의 평균이 4.44로, 음악·미술·영화연극 집단 평균이 4.53으로 나타나 한방약초 집단의 평균이 음악·미술·영화연극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4]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관계

<표 III-33> 다양성 학교 희망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 의사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의사	1.영화연극	1,429	4.53	.49907	20.296***	1-4** 1-5** 2-4** 2-5*** 3-4** 3-5*** 4-5***
	2.음악	2,374	4.53	.49923		
	3.미술	2,610	4.52	.49970		
	4.한방약초	611	4.44	.49683		
	5.기타	5,788	4.59	.49116		
	결측	255	4.45	.49817		
합계	13,067	4.55	.497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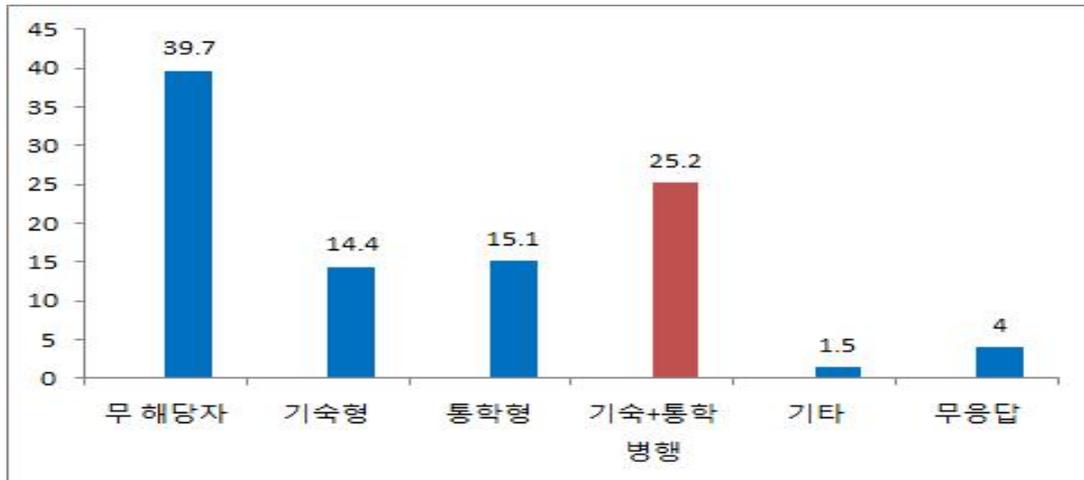
***: p<.001, **: p<.01, *: p<.05

4-2. 통학수단 운영 형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를 원하는 설문자(N=13,067)를 대상으로만 역시 통학수단 운영형태에 대한 빈도분석을 했다. 설문자 전체로 보면, ‘기숙과 통학의 병행’이 25.2%(N=5,457)로 가장 많았고, 통학형 15.1%(N=3,278), 기숙형 14.4%(N=3,124)

순이었다.

학부모는 기숙과 통학 병행이 23.9%(N=2,535)로 가장 많았고, 통학형 15.3%(N=1,619), 기숙형 13.8%(N=1,461)순이었다. 학생은 기숙과 통학 병행이 26.4%(N=2,922)로 가장 많았고, 기숙형 15.0%(N=1,663), 통학형 15.0%(N=1,659) 순이었다. 통학수단 운영 형태 기타 사항은 자취가 50.0%로 가장 많았고, 도보 16.7%, 거리 따라 결정, 단기 체험학습, 모름이 각각 11.1%를 나타냈다.



[그림Ⅲ-35] 통학수단 운영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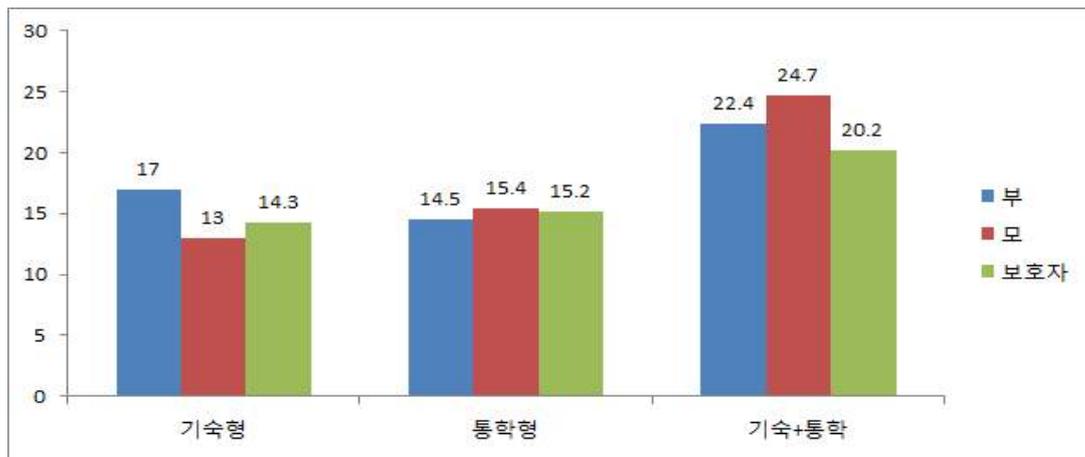
<표Ⅲ-34 > 통학수단 운영 형태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통학형태	무 해당자	8,615	39.7
		기숙형	3,124	14.4
		통학형	3,278	15.1
		기숙+통학 병행	5,457	25.2
		기타	334	1.5
		무응답	874	4.0
		합계	21,682	100.0
학부모	통학형태	무 해당자	4,413	41.6
		기숙형	1,461	13.8
		통학형	1,619	15.3
		기숙+통학 병행	2,535	23.9
		기타	145	1.4
		무응답	440	4.1
		합계	10,613	100.0
학생	통학형태	무 해당자	4,202	38.0
		기숙형	1,663	15.0
		통학형	1,659	15.0
		기숙+통학 병행	2,922	26.4
		기타	189	1.7
		무응답	434	3.9
		합계	11,069	100.0

<표 III-35> 통학수단 운영 형태 기타 사항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통학형태	도보	3	16.7
		자취	9	50.0
		단기 체험학습	2	11.1
		거리 따라 결정	2	11.1
		모름	2	11.1
		합계	18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기숙+통학’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22.4%인데, 아버지는 22.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24.7%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기숙형’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7.0%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3.0%로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통학형’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4.5%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5.4%로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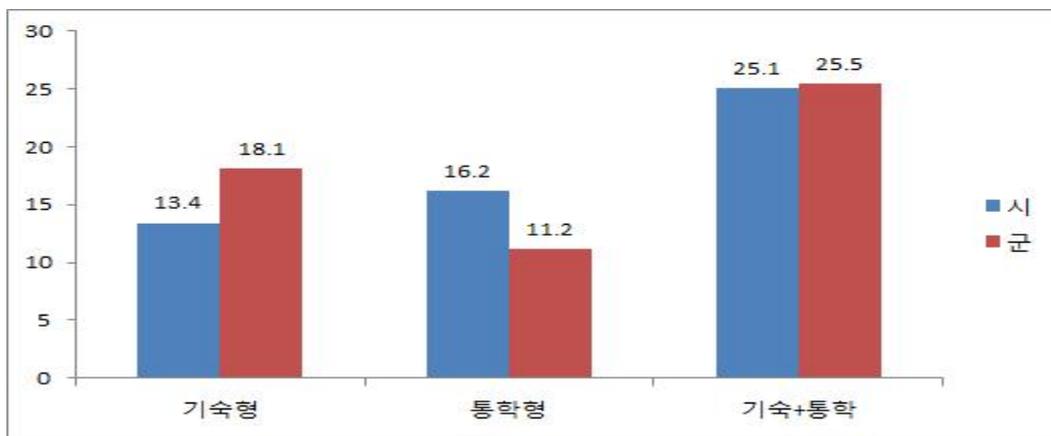
[그림 III-36] 학부모(또는 보호자) * 통학수단 운영형태 (단위: %)

<표 III-36> 학부모(또는 보호자) * 통학수단 운영형태 (단위: %)

구분	미해당	기숙형	통학형	기숙+통학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42.0	17.0	14.5	22.4	1.3	2.9	100.0	77.868*** (df=15)
모	41.1	13.0	15.4	24.7	1.4	4.3	100.0	
보호자	44.1	14.3	15.2	20.2	1.6	4.6	100.0	
전체	42.40	14.77	15.03	22.43	1.43	3.93	100.0	

***: p<.001, **: p<.01, *: p<.05

시군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 형태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기숙+통학’ 항목에서 시지역은 25.1%를 나타냈고, 군지역은 25.5%로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기숙형’항목에서는 시지역이 13.4%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18.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통학형’항목에서는 시지역이 16.2%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1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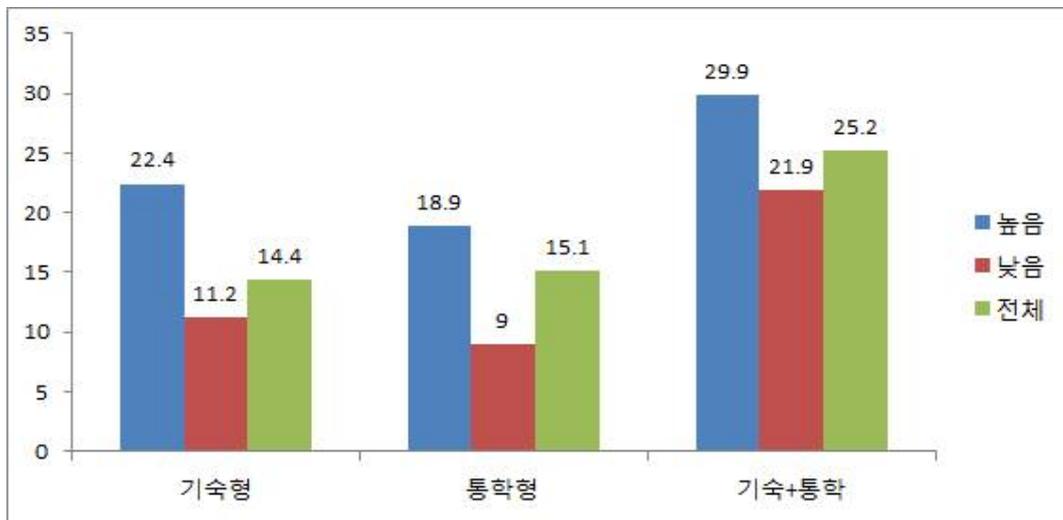
[그림 III-37] 시군 * 통학수단 운영형태 관계 (단위: %)

<표 III-37> 시군 * 통학수단 운영형태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기숙형	통학형	기숙+통학	기타	결측값	합계	χ^2
시	40.1	13.4	16.2	25.1	1.5	3.8	100.0	135.441*** (df=5)
군	38.6	18.1	11.2	25.5	1.8	4.9	100.0	
전체	39.7	14.4	15.1	25.2	1.5	4.0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통학수단 운영형태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숙형’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14.4%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함양군은 22.4%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1.2%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통학형’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15.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제시는 18.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산청군은 9.0%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기숙+통학’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25.2%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창군은 29.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진주시는 21.9%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38] 지역별 구분 * 통학수단 운영형태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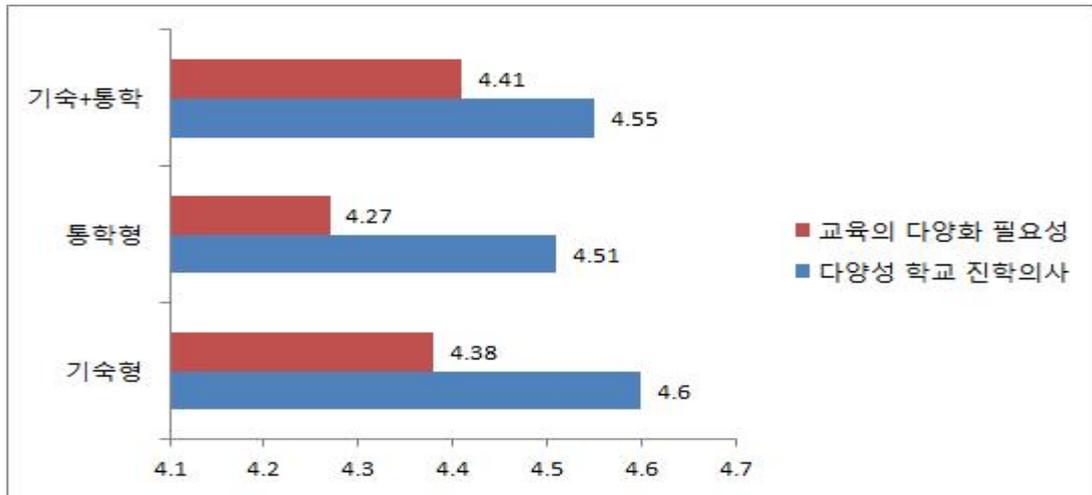
<표 III-38> 지역별 구분 * 통학수단 운영형태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기숙형	통학형	기숙+통학	기타	결측값	합계	χ^2
거제시	34.3%	13.9%	18.9%	28.1%	1.1%	3.7%	100.0%	399.579*** (df=105)
거창군	36.4%	16.4%	10.8%	29.9%	.4%	6.1%	100.0%	
고성군	40.6%	17.3%	12.0%	24.5%	2.6%	3.1%	100.0%	
김해시	40.6%	14.0%	16.1%	24.6%	1.4%	3.4%	100.0%	
남해군	41.1%	15.3%	11.7%	26.3%	2.3%	3.3%	100.0%	
밀양시	42.4%	15.4%	12.8%	24.1%	1.4%	3.9%	100.0%	
사천시	38.4%	13.9%	13.8%	28.4%	1.7%	3.7%	100.0%	
산청군	39.9%	22.0%	9.0%	23.9%	.7%	4.5%	100.0%	
양산시	37.3%	11.5%	18.6%	27.4%	2.8%	2.5%	100.0%	
의령군	32.8%	18.5%	12.5%	26.8%	4.9%	4.5%	100.0%	
진주시	43.0%	12.4%	17.2%	21.9%	1.7%	3.8%	100.0%	
창녕군	41.1%	17.7%	10.3%	26.3%	1.8%	2.7%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38.6%	13.1%	16.7%	25.8%	1.8%	4.0%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42.4%	12.4%	16.7%	23.3%	1.2%	4.1%	100.0%	
창원시 성산구	42.7%	11.2%	15.5%	24.8%	1.6%	4.2%	100.0%	
창원시 의창구	38.4%	13.7%	16.6%	25.9%	.6%	4.7%	100.0%	
창원시 진해구	42.1%	15.2%	13.0%	23.8%	1.9%	3.9%	100.0%	
통영시	38.3%	15.8%	16.3%	25.1%	.6%	3.9%	100.0%	
하동군	33.7%	21.6%	11.6%	26.6%	1.2%	5.3%	100.0%	
함안군	42.2%	17.1%	10.8%	22.5%	.5%	6.8%	100.0%	
함양군	32.9%	22.4%	10.2%	24.6%	3.5%	6.4%	100.0%	
합천군	42.0%	14.4%	12.1%	23.0%	1.9%	6.7%	100.0%	
전체	39.7%	14.4	15.1	25.2	1.5%	4.0%	100.0%	

***: $p < .001$, **: $p < .01$, *: $p < .05$

통학수단 운영형태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통학수단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기숙형 집단과 통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기숙형 집단의 평균이 4.60으로, 통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 평균이 4.53으로 나타나 기숙형 집단의 평균이 통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수단 운영형태에 따른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통학수단 운영형태에 따라서는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통학형 집단과 기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통학형 집단의 평균이 4.27로, 기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 평균인 4.40으로 나타나 통학형 집단의 평균이 기숙형 및 기숙+통학형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9] 통학수단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교육 다양화 필요성 관계

<표 III-39> 통학수단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교육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1. 기숙형	3,124	4.60	.48927	17.232***	1-2*** 1-3*** 2-3***
	2. 통학형	3,278	4.51	.50004		
	3. 기숙+통학	5,457	4.55	.49716		
	4. 기타	334	4.56	.49678		
	결측	874	4.51	.50022		
	합계	13,067	4.55	.49744		
학교교육 다양화 필요성	1. 기숙형	3,070	4.38	.75225	28.200***	1-2*** 1-4*** 2-3*** 3-4***
	2. 통학형	3,222	4.27	.76060		
	3. 기숙+통학	5,371	4.41	.73330		
	4. 기타	330	4.18	.80990		
	결측	848	4.25	.75865		
	합계	12,841	4.35	.75164		

***: p<.001, **: p<.01, *: p<.05

5. 동아리 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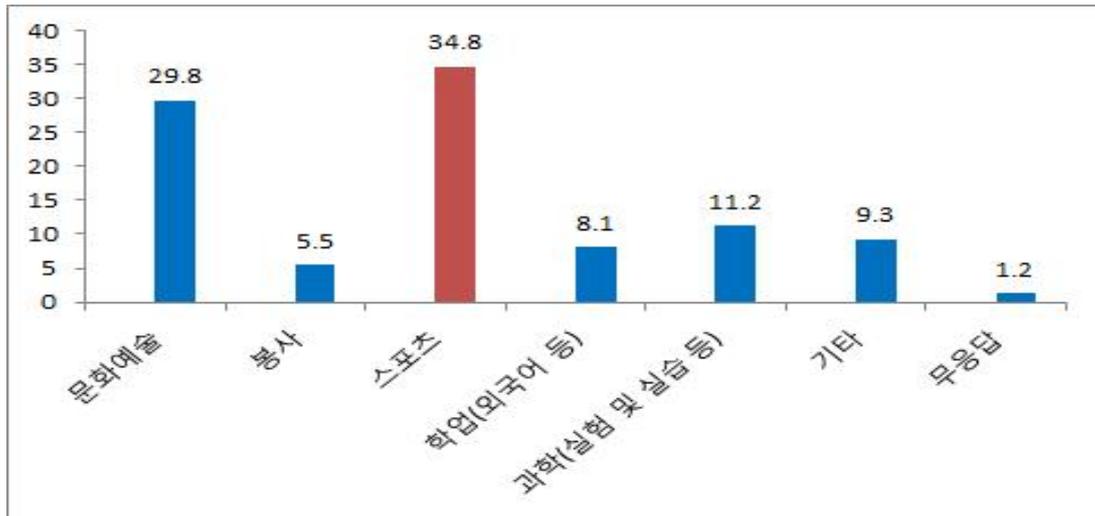
평소에 즐겨하거나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분야에 대한 항목에 대해 전체 설문자는 기타를 제외하고 '스포츠'가 34.8%(N=7,542)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29.8%(N=6,469), 과학(실험 및 실습 등) 11.2%(N=2,432), 학업(외국어 등) 8.1%(N=1,763), 봉사 5.5%(N=1,183)순이었다.

학부모는 기타를 제외하고 스포츠가 34.4%(N=3,647)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30.3%(N=3,212), 과학(실험 및 실습 등) 11.0%(N=1,164), 학업(외국 등) 8.8%(N=930), 봉사 5.8%(N=615)순이었다.

학생은 기타를 제외하고 스포츠가 35.2%(N=3,895)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29.4%(N=3,257), 과학(실험 및 실습 등) 11.5%(N=1,268), 학업(외국어 등)

7.5%(N=833), 봉사 5.1%(N=568)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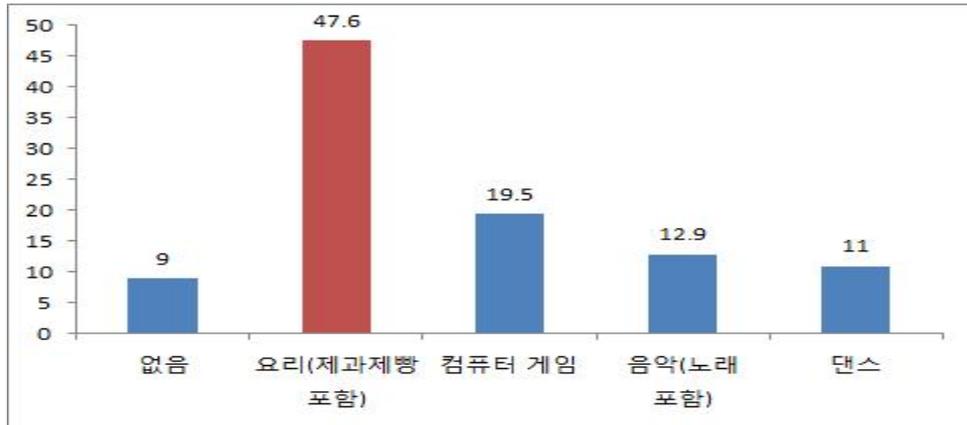
동아리 활동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요리(제과제빵 포함)’가 47.6%(N=269)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게임 19.5%(N=110), 음악(노래 포함) 12.9%(N=73), 댄스 11.0%(N=62), 없음 9.0%(N=51)순이었다.



[그림 III-40] 동아리 활동 분야

<표 III-40> 동아리 활동 분야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동아리 활동 분야	문화예술	6,469	29.8
		봉사	1,183	5.5
		스포츠	7,542	34.8
		학업(외국어 등)	1,763	8.1
		과학(실험 및 실습 등)	2,432	11.2
		기타	2,022	9.3
		무응답	271	1.2
		합계	21,682	100.0
학부모	동아리 활동 분야	문화예술	3,212	30.3
		봉사	615	5.8
		스포츠	3,647	34.4
		학업(외국어 등)	930	8.8
		과학(실험 및 실습 등)	1,164	11.0
		기타	902	8.5
		무응답	143	1.3
		합계	10,613	100.0
학생	동아리 활동 분야	문화예술	3,257	29.4
		봉사	568	5.1
		스포츠	3,895	35.2
		학업(외국어 등)	833	7.5
		과학(실험 및 실습 등)	1,268	11.5
		기타	1,120	10.1
		무응답	128	1.2
		합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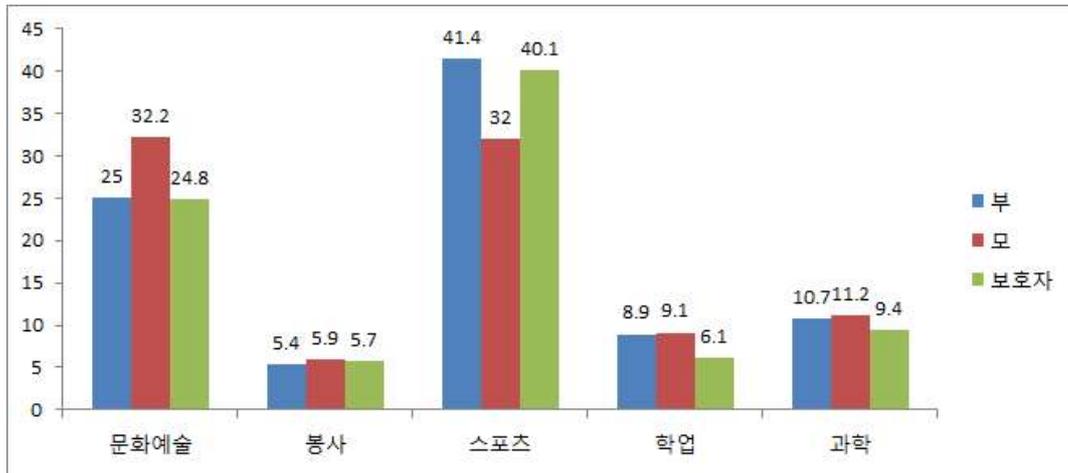


[그림 III-41] 동아리 활동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41> 동아리 활동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기타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없음	51	9.0
	요리(제과제빵 포함)	269	47.6
	컴퓨터 게임	110	19.5
	음악(노래 포함)	73	12.9
	댄스	62	11.0
	합계	565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포츠’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37.8%인데, 아버지는 41.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항목에서는 아버지가 25.0%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과학’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0.7%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1.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학업’항목에서는 아버지가 8.9%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9.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봉사’항목에서는 아버지가 5.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5.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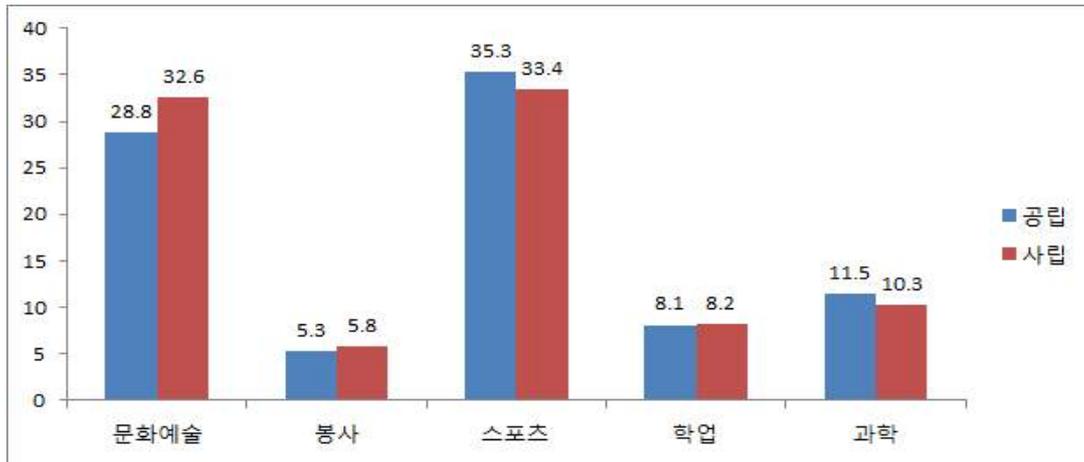
[그림 III-42] 학부모(또는 보호자) * 동아리 활동 분야 관계 (단위:%)

<표 III-42> 학부모(또는 보호자) * 동아리 활동 분야 관계 (단위:%)

구분	문화예술	봉사	스포츠	학업	과학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25.0	5.4	41.4	8.9	10.7	7.9	0.7	100.0	235.147*** (df=18)
모	32.2	5.9	32.0	9.1	11.2	8.5	1.0	100.0	
보호자	24.8	5.7	40.1	6.1	9.4	9.4	4.5	100.0	
전체	27.33	5.67	37.83	8.03	10.43	8.60	2.07	100.0	

***: $p < .001$, **: $p < .01$, *: $p < .05$

공사립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사립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포츠'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34.8%인데, 공립은 35.3%를 나타냈고, 사립은 33.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립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항목에서는 공립이 28.8%를 나타냈고, 사립이 32.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립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과학'항목에서는 공립이 11.5%를 나타냈고, 사립이 1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립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학업'항목에서는 공립이 8.1%를 나타냈고, 사립이 8.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립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봉사'항목에서는 공립이 5.3%를 나타냈고, 사립이 5.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립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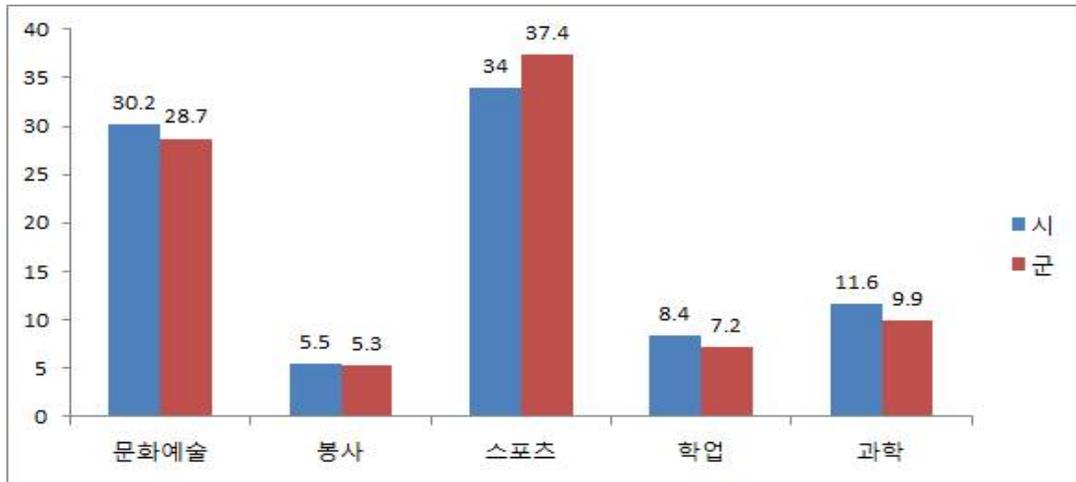
[그림 III-43] 공사립 *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 (단위: %)

<표 III-43> 공사립 *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 (단위: %)

구분	문화예술	봉사	스포츠	학업	과학	기타	결측	합계	χ^2
공립	28.8	5.3	35.3	8.1	11.5	9.6	1.3	100.0	37.666*** (df=6)
사립	32.6	5.8	33.4	8.2	10.3	8.7	1.0	100.0	
전체	29.8	5.5	34.8	8.1	11.2	9.3	1.2	100.0	

***: $p < .001$, **: $p < .01$, *: $p < .05$

시군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학생의 동아리 활동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스포츠’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34.8%인데, 시지역은 34.0%를 나타냈고, 군지역은 37.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문화예술’항목에서는 시지역이 30.2%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28.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과학’항목에서는 시지역이 11.6%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9.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학업’항목에서는 시지역이 8.4%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7.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봉사’항목에서는 시지역이 5.5%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5.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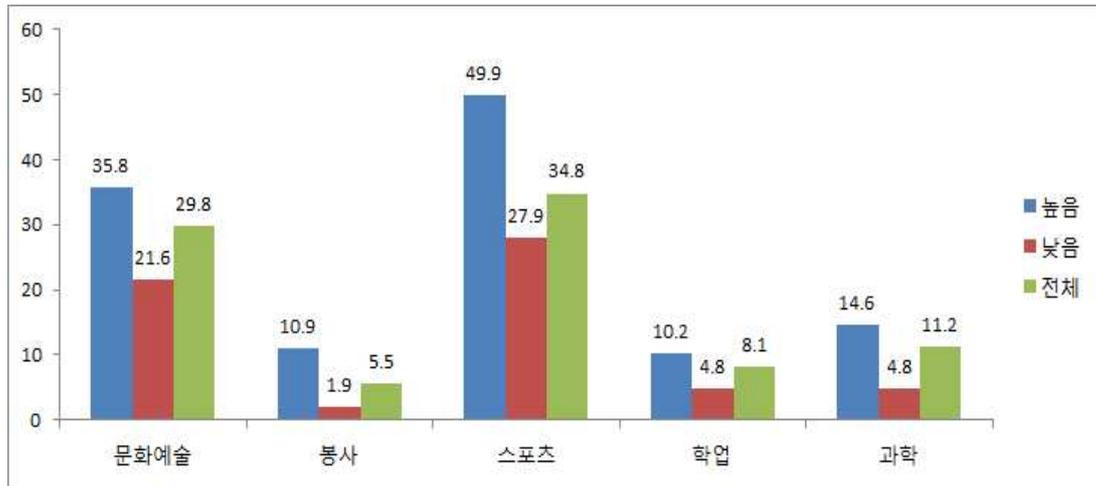
[그림 III-44] 시군 *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 (단위: %)

<표 III-44> 시군 *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 (단위: %)

구분	문화예술	봉사	스포츠	학업	과학	기타	결측	합계	χ^2
시	30.2	5.5	34.0	8.4	11.6	9.1	1.2	100.0	34.326*** (df=6)
군	28.7	5.3	37.4	7.2	9.9	10.0	1.4	100.0	
전체	29.8	5.5	34.8	8.1	11.2	9.3	1.2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동아리 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동아리 활동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29.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의령군은 35.8%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고성군은 21.6%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봉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5.5%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의령군은 10.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남해군은 1.9%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스포츠’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34.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합천군은 49.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의령군은 27.9%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학업’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8.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0.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합천군은 4.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과학’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11.2%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남해군은 14.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합천군은 4.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45] 지역 구분 * 동아리 활동 관계 (단위: %)

<표 III-45> 지역 구분 * 동아리 활동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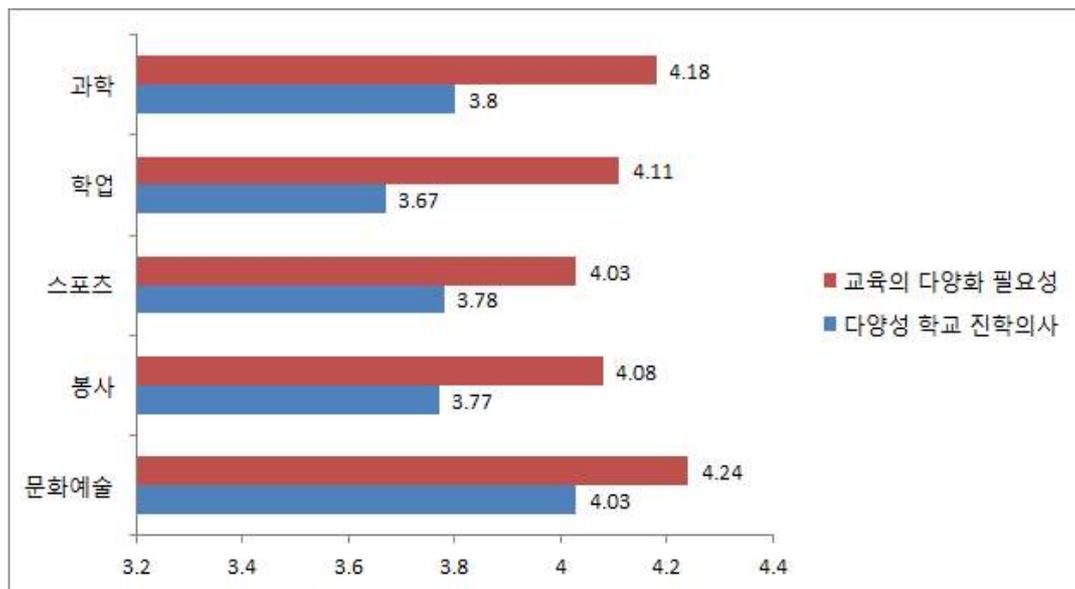
구분	문화예술	봉사	스포츠	학업	과학	기타	결측	합계	χ^2
거제시	28.1	5.8%	37.2%	7.5%	9.2%	10.9%	1.4%	100.0%	360.923*** (df=126)
거창군	33.3	3.7%	30.9%	7.8%	11.0%	11.9%	1.4%	100.0%	
고성군	21.6	5.8%	41.3%	5.8%	13.9%	9.8%	1.9%	100.0%	
김해시	30.4	5.1%	31.3%	10.0%	11.9%	10.1%	1.2%	100.0%	
남해군	30.3	1.9%	31.2%	4.9%	14.6%	16.0%	1.2%	100.0%	
밀양시	28.3	6.5%	37.5%	7.1%	10.8%	8.8%	.9%	100.0%	
사천시	33.0	7.0%	32.7%	8.0%	9.0%	9.3%	1.1%	100.0%	
산청군	25.7	4.9%	37.7%	7.5%	10.1%	13.4%	.7%	100.0%	
양산시	28.3	6.5%	36.8%	6.8%	12.6%	8.1%	.9%	100.0%	
의령군	35.8	10.9%	27.9%	9.4%	5.7%	9.4%	.8%	100.0%	
진주시	26.9	5.1%	37.0%	8.2%	12.6%	8.9%	1.4%	100.0%	
창녕군	26.1	5.6%	38.2%	8.5%	10.6%	9.8%	1.0%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33.7	4.4%	33.3%	7.7%	11.2%	8.4%	1.4%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31.6	6.3%	31.2%	9.2%	11.7%	9.0%	.9%	100.0%	
창원시 성산구	30.0	4.6%	33.4%	10.2%	11.4%	9.0%	1.4%	100.0%	
창원시 의창구	31.2	5.5%	33.8%	6.9%	13.6%	7.7%	1.4%	100.0%	
창원시 진해구	30.7	4.5%	35.2%	7.1%	11.5%	10.1%	1.0%	100.0%	
통영시	32.1	5.9%	32.7%	8.8%	11.3%	8.0%	1.2%	100.0%	
하동군	29.8	4.7%	36.8%	7.9%	9.8%	9.1%	1.8%	100.0%	
함안군	30.5	6.1%	36.9%	7.5%	9.2%	8.3%	1.5%	100.0%	

함양군	31.3	8.3%	38.0%	9.3%	6.4%	5.1%	1.6%	100.0%
함천군	26.5	4.0%	49.9%	4.8%	4.8%	8.6%	1.5%	100.0%
전체	29.8	5.5	34.8	8.1	11.2	9.3%	1.2%	100.0%

***: p<.001, **: p<.01, *: p<.05

학생의 동아리 활동분야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 활동분야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문화예술 집단과 과학, 학업, 스포츠, 봉사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집단의 평균이 4.03으로, 과학, 학업, 스포츠, 봉사 집단 평균이 3.76으로 나타나 문화예술 집단의 평균이 과학, 학업, 스포츠, 봉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동아리 활동분야에 따른 진로 맞춤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 활동분야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문화예술, 과학 집단과 학업, 스포츠, 봉사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과학, 학업 집단의 평균이 4.18로, 스포츠, 봉사 집단 평균이 4.06로 나타나 문화예술, 과학, 학업 집단의 평균이 스포츠, 봉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6] 동아리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표 III-46> 동아리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1. 문화예술	6,453	4.03	.90811	77.925***	1-2***
	2. 봉사	1,181	3.77	.97420		1-3***
	3. 스포츠	7,507	3.78	.96458		1-4***
	4. 학업	1,755	3.67	.97311		1-5***
	5. 과학	2,428	3.80	.96167		2-3***
	6. 기타	2,016	4.10	.94265		2-6***
	결측	255	3.99	.91136		3-4***
	합계	21,595	3.88	.95635		3-6***
다양화 필요성	1. 문화예술	6,371	4.24	.79465	42.303***	4-5***
	2. 봉사	1,156	4.08	.86591		4-6***
	3. 스포츠	7,386	4.03	.84837		1-2***
	4. 학업	1,731	4.11	.86111		1-3***
	5. 과학	2,384	4.18	.81868		1-4***
	6. 기타	1,991	4.20	.85831		1-5*
	결측	170	3.95	.83426		2-5*
	합계	21,189	4.14	.83698		3-4*

***: p<.001, **: p<.01, *: p<.05

6. 진로 상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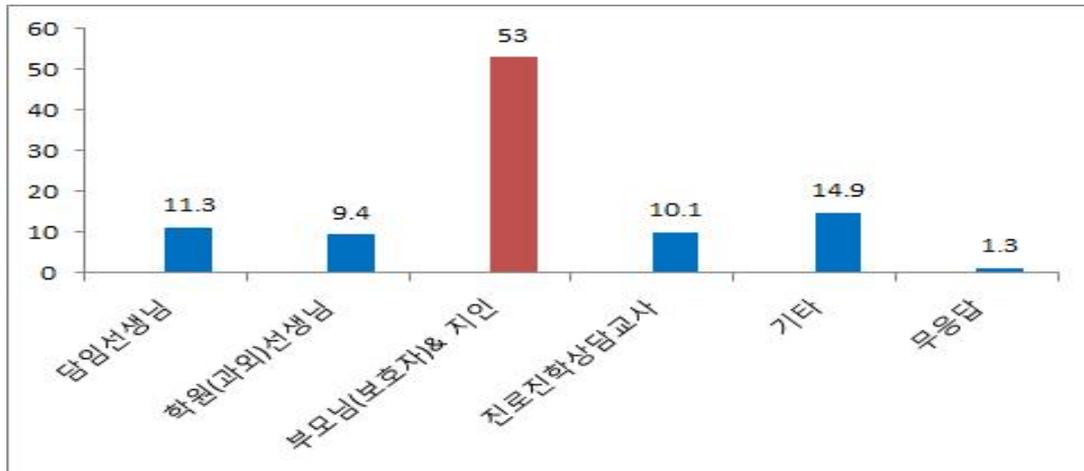
진로에 대해 주로 상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항목에 대해 전체 설문자는 기타를 제외하고 ‘부모님(또는 보호자)&지인’이 53.0%(N=11,500)로 가장 많았고, 담임선생님 11.3%(N=2,455), 진로진학상담교사 10.1%(N=2,186),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9.4%(N=2,030)순이었다.

학부모는 기타를 제외하고 ‘지인’이 39.8%(N=4,227)로 가장 많았고, 담임선생님 17.1%(N=1,818),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12.2%(N=1,293), 진로진학상담교사 10.1%(N=1,074)순이었다.

학생은 기타를 제외하고 ‘부모님(또는 보호자)’이 65.7%(N=7,273)로 가장 많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10.0%(N=1,112),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6.7%(N=737), 담임 선생님 5.8%(N=637)순이었다.

진로 상담자에 대한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없음’이 64.0%(N=523)로 가장 많았고, 친구 26.9%(N=220), 인터넷 5.0%(N=41), 형제(자매 포함) 3.2%(N=26), 운동 지도자 0.9%(N=7)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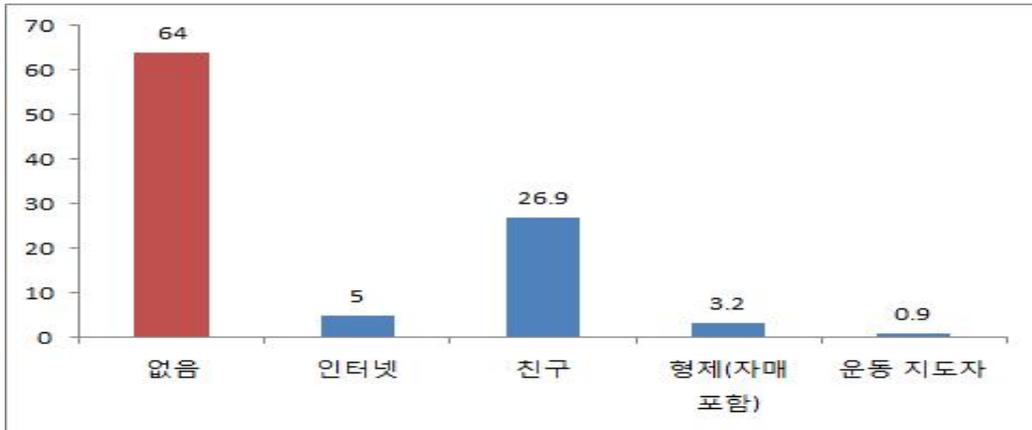
종합해 보면, 부모님은 ‘지인’으로부터 진로상담을 제일 많이 받고, 학생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게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인 기타항목은 ‘없음’이 제일 많으므로 중학교 때 진로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47] 진로 상담자 (단위: %)

<표 III-47> 진로 상담자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
전체	진로 상담자	담임선생님	2,455	11.3
		학원(과외)선생님	2,030	9.4
		부모님(보호자)& 지인	11,500	53.0
		진로진학상담교사	2,186	10.1
		기타	3,221	14.9
		무응답	290	1.3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진로 상담자	담임선생님	1,818	17.1
		학원(과외)선생님	1,293	12.2
		지인	4,227	39.8
		진로진학상담교사	1,074	10.1
		기타	2,027	19.1
		무응답	174	1.6
		합계	10,613	100.0
학생	진로 상담자	담임선생님	637	5.8
		학원(과외)선생님	737	6.7
		부모님(보호자)	7,273	65.7
		진로진학상담교사	1,112	10.0
		기타	1,194	10.8
		무응답	116	1.0
		합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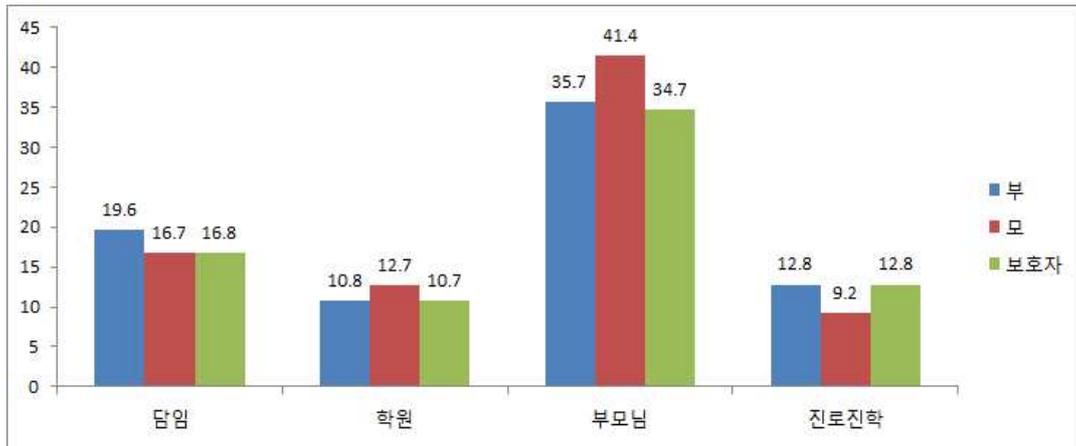


[그림 III-48] 진로 상담자 기타 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48> 진로 상담자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기타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없음	523	64.0
	인터넷	41	5.0
	친구	220	26.9
	형제(자매 포함)	26	3.2
	운동 지도자	7	0.9
	합계	817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모님’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37.3%인데, 아버지는 35.7%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41.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담임교사’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9.6%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6.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2.8%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학원교사’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0.8%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2.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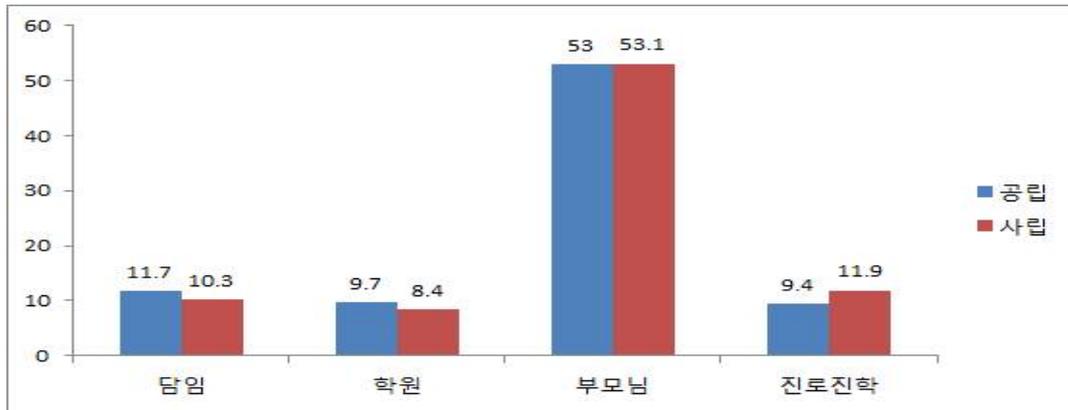
[그림 III-49] 학부모(보호자)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표 III-49> 학부모(보호자)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구분	담임	학원	부모님	진로진학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19.6	10.8	35.7	12.8	20.4	.8	100.0	1918.531*** (df=15)
모	16.7	12.7	41.4	9.2	18.7	1.3	100.0	
보호자	16.8	10.7	34.7	12.8	19.9	5.0	100.0	
전체	17.70	11.40	37.27	11.60	19.67	2.37	100.0	

***: $p < .001$, **: $p < .01$, *: $p < .05$

공사립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공사립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모님'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53.0%인데, 공립은 53.0%를 나타냈고, 사립은 53.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립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담임교사' 항목에서는 공립이 11.7%를 나타냈고, 사립이 10.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립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항목에서는 공립이 9.4%를 나타냈고, 사립이 11.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립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학원교사' 항목에서는 공립이 9.7%를 나타냈고, 사립이 8.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사립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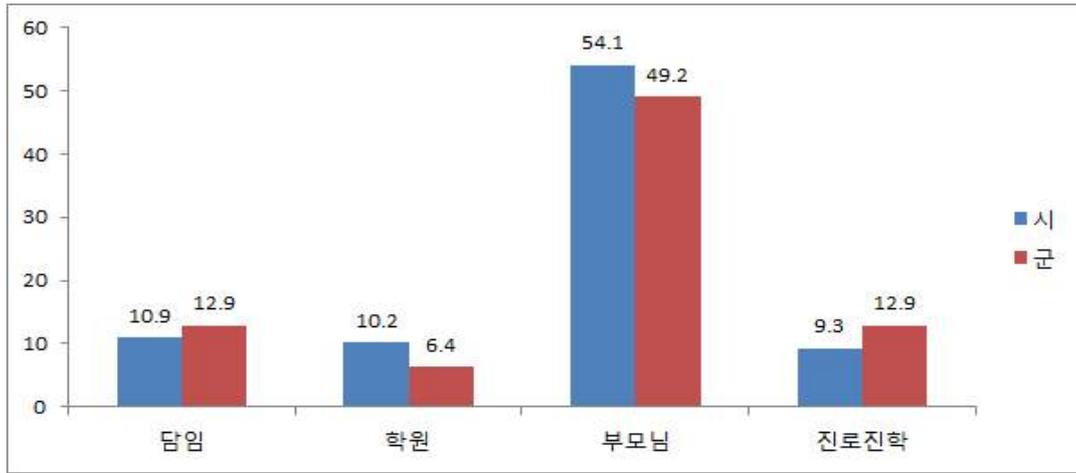
[그림 III-50] 공사립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표 III-50> 공사립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구분	담임	학원	부모님	진로진학	기타	결측	합계	χ^2
공립	11.7	9.7	53.0	9.4	14.8	1.3	100.0	41.775*** (df=5)
사립	10.3	8.4	53.1	11.9	14.9	1.3	100.0	
전체	11.3	9.4	53.0	10.1	14.9	1.3	100.0	

***: $p < .001$, **: $p < .01$, *: $p < .05$

시군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진로 상담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부모님’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53.0%인데, 시지역은 54.1%를 나타냈고, 군지역은 4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담임교사’항목에서는 시지역이 10.9%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12.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항목에서는 시지역이 9.3%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12.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학원교사’항목에서는 시지역이 10.2%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6.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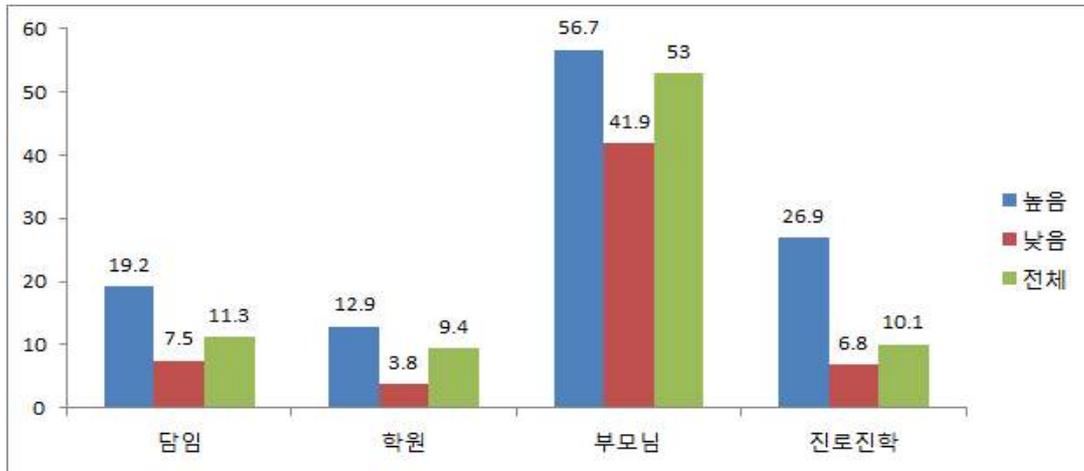
[그림 III-51] 시군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표 III-51> 시군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구분	담임	학원	부모님	진로진학	기타	결측	합계	χ^2
시	10.9	10.2	54.1	9.3	14.3	1.2	100.0	161.658*** (df=5)
군	12.9	6.4	49.2	12.9	16.8	1.8	100.0	
전체	11.3	9.4	53.0	10.1	14.9	1.3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진로상담자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상담자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담임교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11.3%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함양군은 19.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산청군은 7.5%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학원교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9.4%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2.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남해군은 3.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님’ 항목에서는 지역별 전체 평균이 53.0%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56.7%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의령군과 함양군은 41.9%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진로진학교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10.1%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고성군은 26.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통영시는 6.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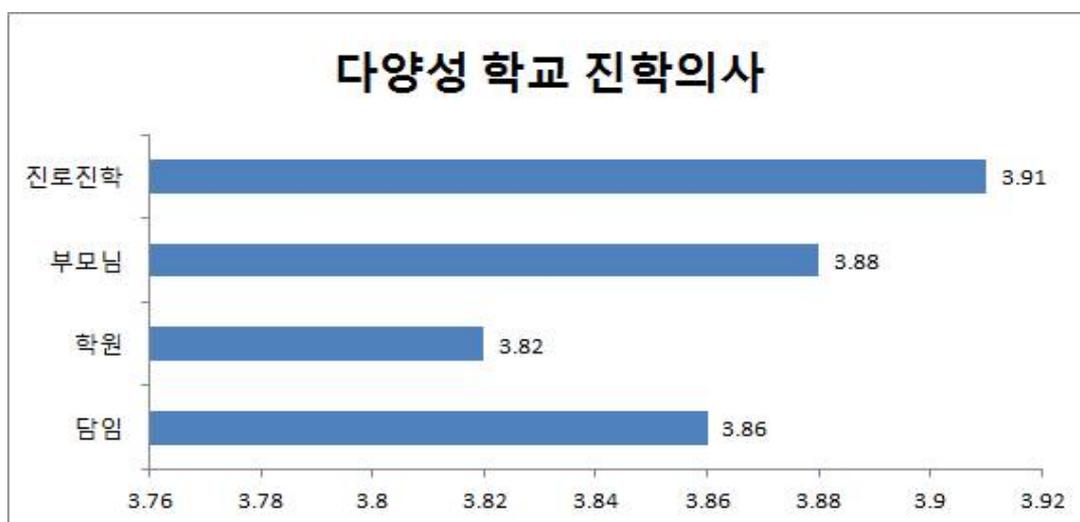
[그림 Ⅲ-52] 지역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표 Ⅲ-52> 지역 * 진로상담자 관계 (단위: %)

구분	답임	학원	부모님	진로진학	기타	결측값	합계	χ^2
거제시	12.4%	11.3%	47.0%	9.0%	18.8%	1.5%	100.0%	633.782*** (df=105)
거창군	12.9%	7.8%	51.3%	11.0%	15.7%	1.2%	100.0%	
고성군	9.9%	6.0%	43.7%	26.9%	11.1%	2.4%	100.0%	
김해시	10.7%	10.5%	56.6%	8.1%	13.2%	1.0%	100.0%	
남해군	13.8%	3.8%	51.6%	7.5%	20.4%	2.8%	100.0%	
밀양시	15.3%	7.1%	53.1%	10.1%	13.8%	.7%	100.0%	
사천시	9.7%	10.0%	52.9%	13.2%	12.9%	1.4%	100.0%	
산청군	7.5%	9.7%	54.9%	9.7%	17.2%	1.1%	100.0%	
양산시	10.5%	9.5%	54.1%	11.2%	14.0%	.8%	100.0%	
의령군	13.6%	4.5%	41.9%	15.8%	23.4%	.8%	100.0%	
진주시	12.6%	9.2%	52.9%	9.2%	14.0%	2.2%	100.0%	
창녕군	13.5%	8.2%	49.2%	10.2%	17.7%	1.1%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8.1%	9.7%	52.6%	14.9%	13.6%	1.2%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10.5%	11.5%	56.7%	8.1%	12.4%	.8%	100.0%	
창원시 성산구	9.0%	12.9%	54.5%	7.2%	15.1%	1.3%	100.0%	
창원시 의창구	10.0%	10.7%	53.4%	9.1%	15.5%	1.3%	100.0%	
창원시 진해구	11.5%	8.5%	56.7%	9.2%	13.0%	1.0%	100.0%	
통영시	11.7%	8.2%	56.1%	6.8%	15.8%	1.3%	100.0%	
하동군	12.2%	6.2%	49.6%	10.7%	18.8%	2.5%	100.0%	
함안군	12.5%	6.4%	51.5%	14.4%	13.7%	1.4%	100.0%	
함양군	19.2%	7.7%	41.9%	12.8%	16.3%	2.2%	100.0%	
합천군	14.6%	4.0%	53.9%	7.7%	17.7%	2.1%	100.0%	
전체	11.3	9.4	53.0	10.1	14.9%	1.3%	100.0%	

***: p<.001, **: p<.01, *: p<.05

진로상담자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진로상담자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학원교사 집단과 진로진학교사, 부모님, 담임교사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학원교사 집단의 평균이 3.82로, 진로진학교사, 부모님, 담임교사 집단 평균이 3.88로 나타나 학원교사 집단의 평균이 진로진학교사, 부모님, 담임교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3] 진로상담자 *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표 III-53> 진로상담자 *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의사	담임	2445	3.86	.95565	3.679**	2-4* 2-5**
	학원	2024	3.82	1.00016		
	부모님	11469	3.88	.94359		
	진로진학	2178	3.91	.93852		
	기타	3208	3.91	.98072		
	결측	271	3.97	.99014		
	합계	21595	3.88	.956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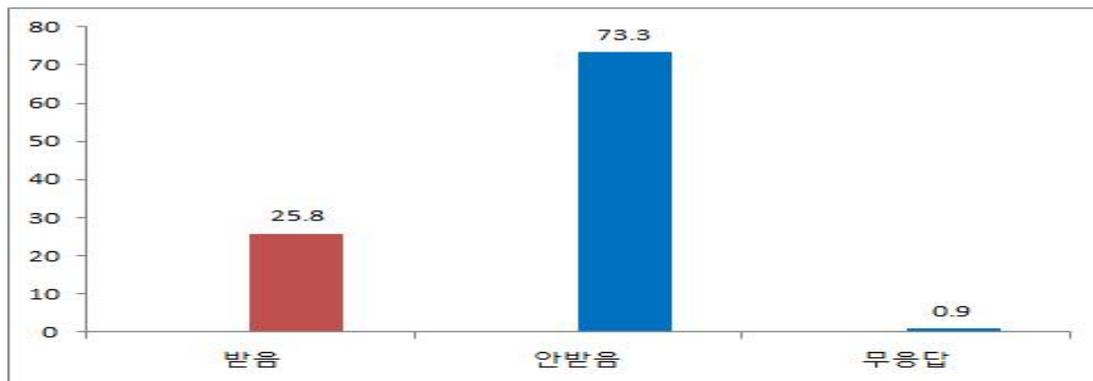
***: p<.001, **: p<.01, *: p<.05

7. 진로 개발 위한 사교육 유무

진로 개발을 위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전체 설문자는 ‘안받음’이 73.3%(N=15,896)로, ‘받음’ 25.8%(N=5,601) 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학부모는 안받음이 73.1%(N=7,758)로, 받음 25.9%(N=2,746) 보다 현저하게

많았다. 학생은 안받음이 73.5%(N=8,138)로, 받음 25.8%(N=2,855) 보다 역시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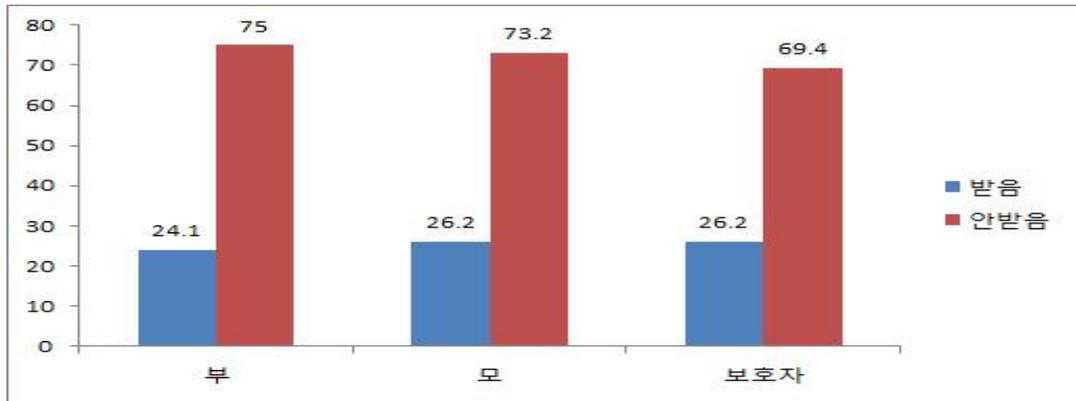


[그림 III-54] 진로계발 사교육 여부 (단위: %)

<표 III-54> 진로 계발 사교육 여부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사교육 유무	받음	5,601	25.8
		안받음	15,896	73.3
		무응답	185	0.9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사교육 유무	받음	2,746	25.9
		안받음	7,758	73.1
		무응답	109	1.0
		합계	10,613	100.0
학생	사교육 유무	받음	2,855	25.8
		안받음	8,138	73.5
		무응답	76	0.7
		합계	11,069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받음’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25.5%인데, 아버지는 24.1%를 나타냈고, 어머니와 보호자는 26.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와 보호자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안받음’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75.0%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73.2%, 보호자는 69.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있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결손이나 빈곤층인 교육복지 대상자인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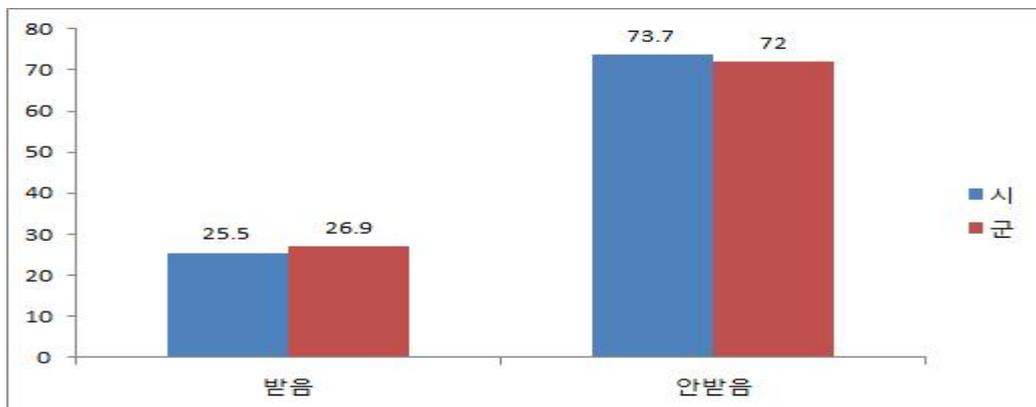
[그림 III-55] 학부모(보호자) * 사교육 여부 관계 (단위: %)

<표 III-55> 학부모(보호자) * 사교육 여부 관계 (단위: %)

구분	받음	안받음	결측	합계	χ^2
부	24.1	75.0	.9	100.0	190.705*** (df=6)
모	26.2	73.2	.6	100.0	
보호자	26.2	69.4	4.5	100.0	
전체	25.50	72.53	2.00	100.0	

***: $p < .001$, **: $p < .01$, *: $p < .05$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받음’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25.8%인데, 시지역은 25.5%를 나타냈고, 군지역은 26.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안받음’ 항목에서는 시지역이 73.7%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72.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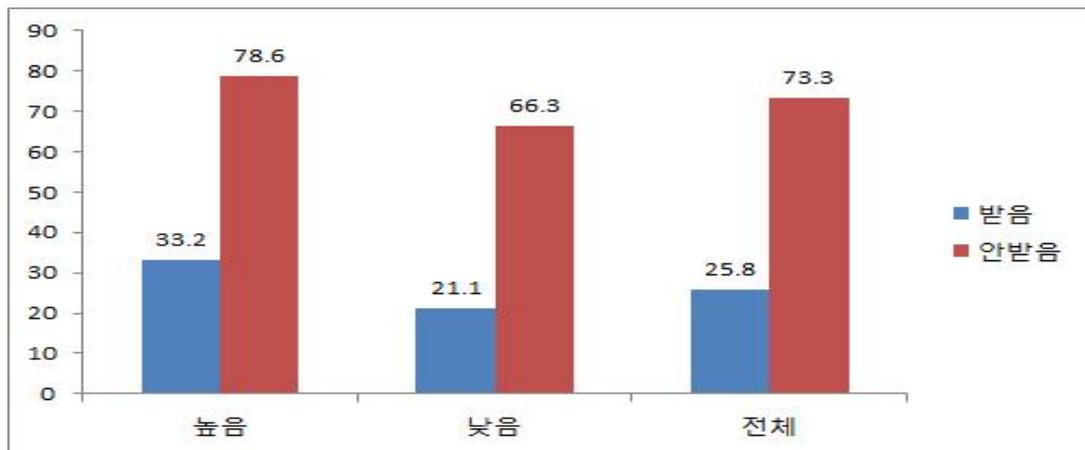
[그림 III-56] 시군 * 사교육 여부 관계 (단위: %)

<표 III-56> 시군 * 사교육 여부 관계 (단위: %)

구분	받음	안받음	결측	합계	χ^2
시	25.5	73.7	.8	100.0	10.457** (df=2)
군	26.9	72.0	1.2	100.0	
전체	25.8	73.3	.9	100.0	

***: p<.001, **: p<.01, *: p<.05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받음’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25.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녕군은 33.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통영시는 21.1%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안받음’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73.3%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진해구는 78.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녕군은 66.3%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57] 지역 * 사교육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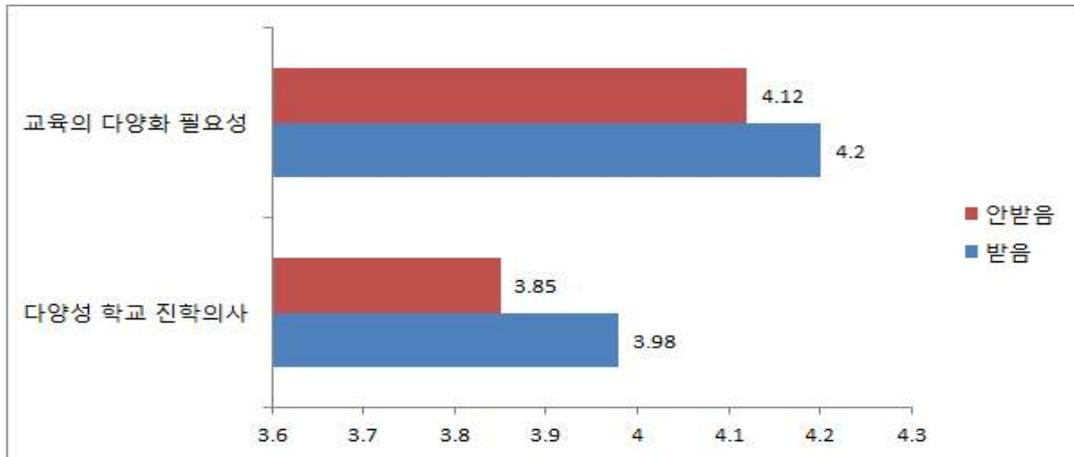
<표 III-57> 지역 * 사교육 여부 (단위: %)

구분	받음	안받음	결측값	합계	χ^2
거제시	27.0%	72.2%	.7%	100.0%	158.706*** (df=42)
거창군	28.0%	71.2%	.8%	100.0%	
고성군	22.9%	75.3%	1.7%	100.0%	
김해시	25.2%	74.0%	.8%	100.0%	
남해군	27.2%	71.4%	1.4%	100.0%	
밀양시	23.9%	76.0%	.1%	100.0%	
사천시	27.0%	72.3%	.6%	100.0%	
산청군	31.0%	68.7%	.4%	100.0%	
양산시	28.1%	71.3%	.5%	100.0%	
의령군	26.8%	72.1%	1.1%	100.0%	
진주시	22.1%	76.7%	1.3%	100.0%	
창녕군	33.2%	66.3%	.5%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27.8%	71.5%	.6%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25.3%	73.8%	.9%	100.0%	
창원시 성산구	32.3%	66.6%	1.0%	100.0%	
창원시 의창구	23.6%	75.7%	.7%	100.0%	
창원시 진해구	21.2%	78.6%	.3%	100.0%	
통영시	21.1%	77.8%	1.1%	100.0%	
하동군	25.9%	72.4%	1.7%	100.0%	
함안군	29.0%	70.0%	1.0%	100.0%	
함양군	22.4%	76.4%	1.3%	100.0%	
합천군	21.3%	77.5%	1.3%	100.0%	
전체	25.8	73.3	.9%	100.0%	

***: p<.001, **: p<.01, *: p<.05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받음’의 경우 평균이 3.98 이었고, ‘안받음’의 경우 평균이 3.85 이었다. 이로 볼 때, ‘받음’ 항목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가 ‘안받음’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 진로 맞춤형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여부와 진로 맞춤형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받음’의 경우 평균이 4.20 이었고, ‘안받음’의 경우 평균이 4.12 이었다. 이로 볼 때, ‘받음’항목의 진로 맞춤형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이 ‘안받음’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58] 사교육 여부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교육 다양화 필요성

<표 III-58> 사교육 여부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교육 다양화 필요성

내용	사교육	N	M	SD	F	t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받음	5583	3.98	.97016	2.128	9.105***
	안받음	15845	3.85	.94747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받음	5538	4.20	.87461	61.319	6.304***
	안받음	15572	4.12	.82099		

***: p<.001, **: p<.01, *: p<.05

7-1. 진로 개발 사교육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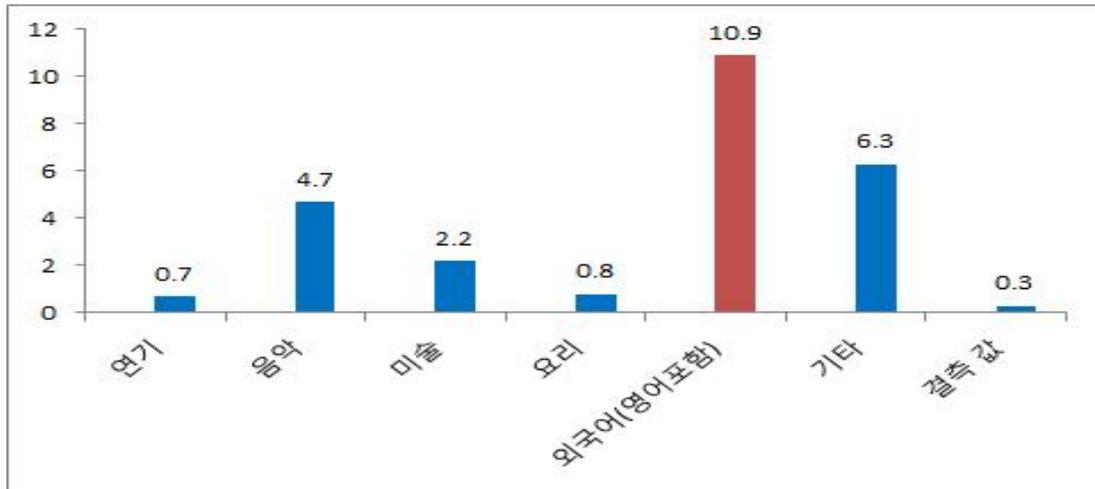
진로 개발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는 설문자(N=5,601)를 대상으로만 사교육 분야에 대한 빈도분석을 했다.

설문자 전체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외국어(영어 포함)’가 10.9%(N=2,356)로 가장 많았고, 음악 4.7%(N=1,022), 미술 2.2%(N=470), 요리 0.8%(N=178), 연기 0.7%(N=151)순이었다.

학부모는 기타를 제외하고 ‘외국어(영어 포함)’가 11.4%(N=1,215)로 가장 많았고, 음악 4.6%(N=486), 미술 2.3%(N=241), 연기 0.7%(N=75), 요리 0.7%(N=74)순이었다. 학생은 기타를 제외하고 ‘외국어(영어 포함)’가 10.4%(N=1,150)로 가장 많았고, 음악 4.8%(N=536), 미술 2.1%(N=229), 요리 0.9%(N=104), 연기 0.7%(N=76)순이었다.

진로 사교육 분야에 대한 기타 상위 5개 항목은 ‘체육(축구, 격투기 외)’이 44.4%(N=284)로 가장 많았고, 수학 24.9%(N=159), 축구 14.4%(N=92), 격투기(태권도, 합기도, 복싱 등) 11.9%(N=76), 컴퓨터 4.4%(N=28)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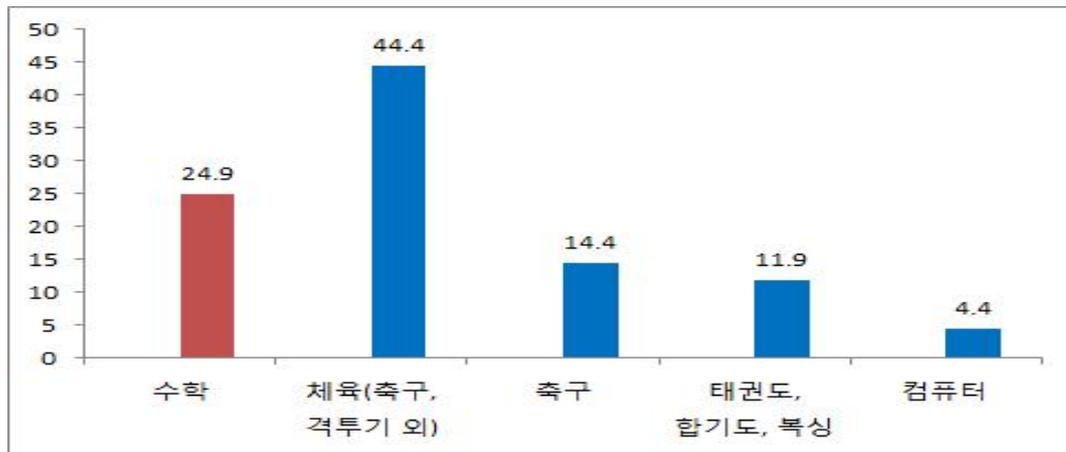
종합해 보면, 진로 계발 사교육이란 항목에 대해 일반 사교육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항목에서는 ‘영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게 그렇고, 기타항목에서도 ‘수학’이 2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59] 진로 사교육 분야 (단위: %)

<표 III-59> 진로 개발 사교육 분야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사교육 분야	비 해당자	16,080	74.2
		연기	151	0.7
		음악	1,022	4.7
		미술	470	2.2
		요리	178	0.8
		외국어(영어포함)	2,365	10.9
		기타	1,360	6.3
		결측 값	56	0.3
		합계	21,682	100.0
학부모	사교육 분야	비 해당자	7,866	74.1
		연기	75	0.7
		음악	486	4.6
		미술	241	2.3
		요리	74	0.7
		외국어(영어포함)	1,215	11.4
		기타	600	5.7
		결측 값	56	0.5
		합계	10,613	100.0
학생	사교육 분야	비 해당자	8,214	74.2
		연기	76	0.7
		음악	536	4.8
		미술	229	2.1
		요리	104	0.9
		외국어(영어포함)	1,150	10.4
		기타	760	6.9
		결측 값	56	0.5
		합계	11,0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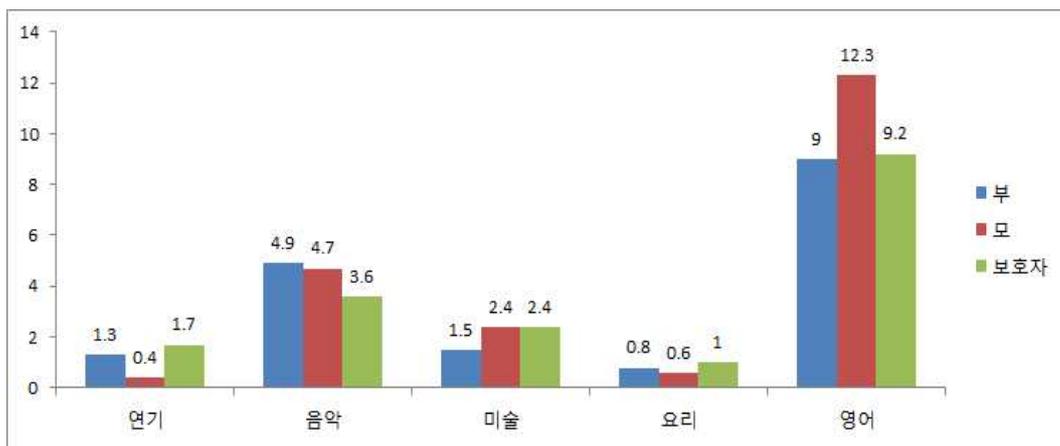
[그림 III-60] 진로 사교육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 (단위: %)

<표 III-60> 진로 사교육 분야 기타 상위 5개 항목

구분	내용	기타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사교육 분야	수학	159	24.9
		체육(축구, 격투기 외)	284	44.4
		축구	92	14.4
		태권도, 합기도, 복싱	76	11.9
		컴퓨터	28	4.4
		합계	639	100.0

***: p<.001, **: p<.01, *: p<.05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영어'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10.2%인데, 아버지는 9.0%, 보호자는 9.2%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기'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3%, 보호자가 1.7%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0.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음악'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4.9%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4.7%, 보호자가 3.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보호자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미술'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1.5%를 나타냈고, 어머니와 보호자는 2.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요리' 항목에서는 아버지가 0.8%, 보호자가 1.0%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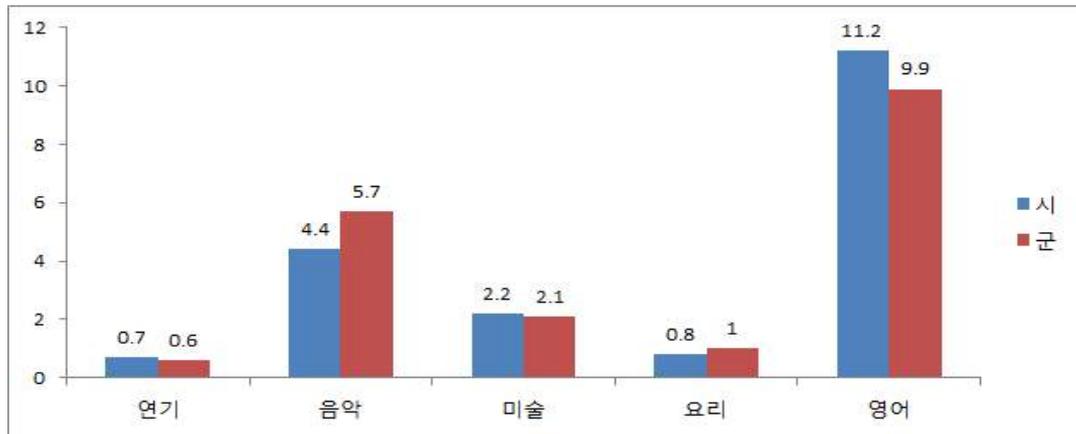
[그림 III-61] 학부모(보호자)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표 III-61> 학부모(보호자)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영어	기타	결측	합계	χ^2
부	75.9	1.3	4.9	1.5	.8	9.0	6.2	.4	100.0	158.362*** (df=21)
모	73.8	.4	4.7	2.4	.6	12.3	5.3	.5	100.0	
보호자	73.8	1.7	3.6	2.4	1.0	9.2	7.6	.8	100.0	
전체	74.50	1.13	4.40	2.10	0.80	10.17	6.37	0.57	100.0	

***: p<.001, **: p<.01, *: p<.05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영어' 항목에서는 전체 평균은 10.9%인데, 시지역이 11.2%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9.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연기'항목에서는 시지역이 0.7%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0.6%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음악'항목에서는 시지역이 4.4%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5.7%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미술'항목에서는 시지역이 2.2%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2.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요리'항목에서는 시지역이 0.8%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1.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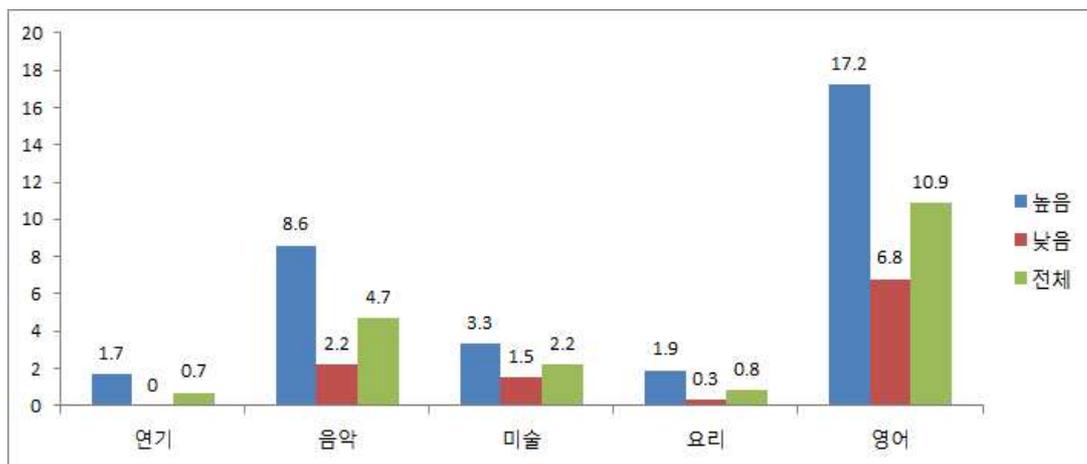
[그림 III-62] 시군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표 III-62> 시군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구분	미해당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영어	기타	결측값	합계	χ^2
시	74.5%	.7	4.4	2.2	.8	11.2	5.9%	.3%	100.0%	43.056*** (df=7)
군	73.1%	.6	5.7	2.1	1.0	9.9	7.5%	.1%	100.0%	
전체	74.2%	.7%	4.7%	2.2	.8	10.9	6.3%	.3%	100.0%	

***: p<.001, **: p<.01, *: p<.05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와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기’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0.7%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통영시는 1.7%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은 0.0%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음악’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4.7%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함안군은 8.6%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통영시는 2.2%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미술’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2.2%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거창군은 3.3%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창녕군은 1.5%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요리’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0.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합천군은 1.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김해시는 0.3%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영어’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10.9%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창원시 성산구는 17.2%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고성군은 6.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63] 지역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표 III-63> 지역 * 사교육 분야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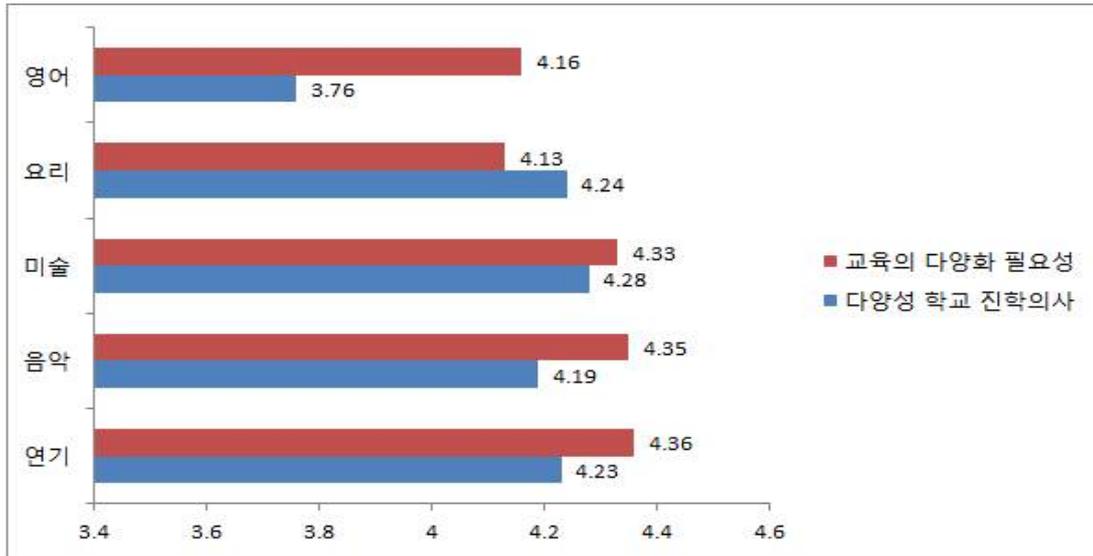
구분	미해당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영어	기타	결측	합계	χ^2
거제시	73.0%	.4%	5.7%	1.7%	1.0%	10.0%	8.1%	.3%	100.0%	535.973*** (df=147)
거창군	72.0%	0.0%	5.1%	3.3%	1.0%	12.1%	6.1%	.4%	100.0%	
고성군	76.9%	0.0%	5.1%	2.2%	.9%	6.8%	7.9%	.2%	100.0%	
김해시	74.8%	.5%	4.5%	2.3%	0.3%	11.4%	5.9%	.2%	100.0%	
남해군	72.8%	1.6%	5.6%	1.9%	.7%	10.1%	7.3%	0.0%	100.0%	
밀양시	76.1%	0.8%	4.8%	2.8%	.7%	7.3%	6.8%	.7%	100.0%	
사천시	73.0%	1.6%	4.3%	2.7%	.9%	10.0%	6.8%	.9%	100.0%	
산청군	69.0%	0.0%	3.7%	2.2%	.7%	12.7%	11.6%	0.0%	100.0%	
양산시	71.9%	.6%	4.9%	1.7%	1.0%	11.9%	8.0%	.2%	100.0%	
의령군	73.2%	.8%	4.5%	2.6%	.8%	12.8%	5.3%	0.0%	100.0%	
진주시	77.9%	1.4%	3.3%	2.3%	.9%	10.2%	3.8%	.2%	100.0%	
창녕군	66.8%	1.1%	4.0%	1.5%	.6%	10.5%	15.3%	.2%	100.0%	
창원시 마산합 포구	72.2%	.2%	4.6%	3.9%	1.0%	13.5%	4.6%	0.0%	100.0%	
창원시 마산회 원구	74.7%	.2%	5.5%	1.9%	1.0%	11.2%	5.2%	.4%	100.0%	
창원시 성산구	67.7%	.7%	4.4%	2.6%	.7%	17.2%	6.4%	.2%	100.0%	
창원시 의창구	76.4%	.4%	5.0%	1.9%	.4%	10.0%	5.7%	.2%	100.0%	
창원시 진해구	78.8%	.8%	3.5%	1.6%	1.3%	8.8%	4.9%	.3%	100.0%	
통영시	78.9%	1.7%	2.2%	1.7%	.8%	9.2%	4.8%	.6%	100.0%	
하동군	74.1%	1.1%	8.3%	1.9%	1.2%	8.7%	4.4%	.1%	100.0%	
함안군	71.0%	.2%	8.6%	1.9%	.7%	9.8%	7.8%	0.0%	100.0%	
함양군	77.6%	.6%	5.1%	1.9%	1.3%	9.3%	4.2%	0.0%	100.0%	
한천군	78.7%	0.0%	3.8%	1.7%	1.9%	9.4%	4.4%	.2%	100.0%	
전체	74.2%	0.7	4.7	2.2	0.8	10.9	6.3%	.3%	100.0%	

***: p<.001, **: p<.01, *: p<.05

학생의 진로 개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에 따른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에 대한 진학의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사교육 분야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영어 집단과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영어 집단의 평균이 3.76으로,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집단 평균이 4.24로 나타나 영어 집단의 평균이 연기, 음악, 미술, 요리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진로 개발을 위한 사교육 분야에 따른 진로 맞춤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사교육 활동분야에 따라서는 진로 맞춤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ukey & Scheffe 방법에 의한 사후분석결과 영어, 요리 집단과 미술, 음악, 연기 집단의 2개 집단으로 분류되는데, 상대적으로 영어, 요리 집단의 평균이 4.15로, 미술, 음악, 연기 집단 평균이 4.35로 나타나 영어, 요리 집단의 평균이 미술, 음악, 연기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4] 사교육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표 III-64> 사교육 분야 *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 및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사후검정	
다양성	1. 연기	151	4.23	1.08426	42.780***	1-5*** 2-5*** 2-6** 3-5*** 3-6*** 4-5*** 5-6***
	2. 음악	1021	4.19	.87364		
	3. 미술	466	4.28	.86779		
	4. 요리	177	4.24	.88084		
	5. 영어	2356	3.76	.97540		
	6. 기타	1357	4.05	.97524		
	결측	56	3.80	.96143		
	합계	5584	3.98	.97007		
다양화 필요성	1. 연기	150	4.36	1.08856	11.734***	1-6* 2-4* 2-5*** 2-6*** 3-5** 3-6***
	2. 음악	1008	4.35	.78824		
	3. 미술	464	4.33	.86099		
	4. 요리	174	4.13	.91222		
	5. 영어	2347	4.16	.84733		
	6. 기타	1343	4.12	.91807		
	결측	53	3.94	1.23125		
	합계	5539	4.20	.87468		

***: p<.001, **: p<.01,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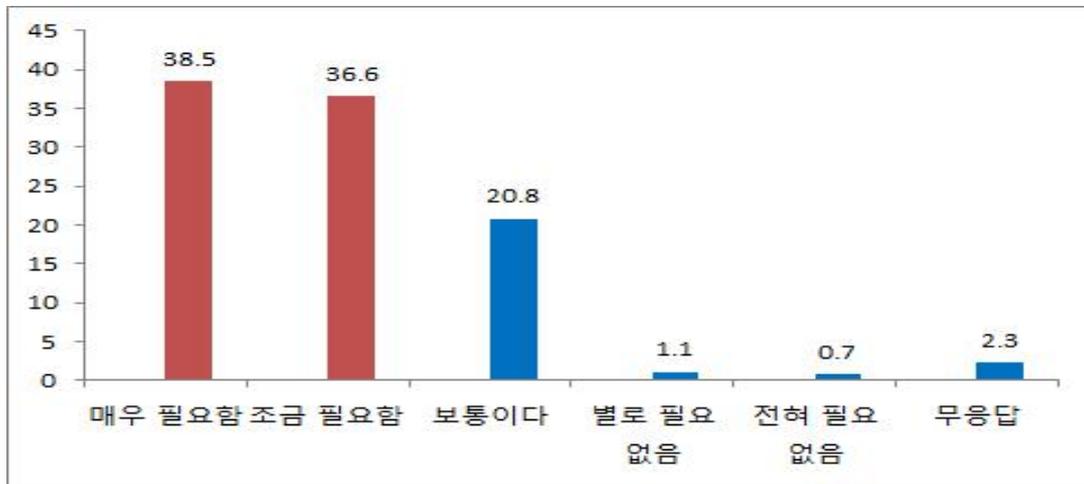
8.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한 정도를 빈도 분석했다. 설문자 전체는 긍정률(‘필요함’)이 75.1%(N=16,288)로 부정률(‘필요 없음’)의

1.8%(N=395)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이다’는 20.8%(N=4,506)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긍정률(‘필요함’)이 75.9%(N=8,059)로 부정률(‘필요 없음’)의 1.6%(N=177)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이다는 20.1%(N=2,130)을 나타냈다. 학생은 긍정률(‘필요함’)이 74.3%(N=8,229)로 부정률(‘필요 없음’)의 1.9%(N=218)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이다는 21.5%(N=2,376)을 나타냈다.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의 긍정률이 매우 높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진로 학교를 적절하게 설립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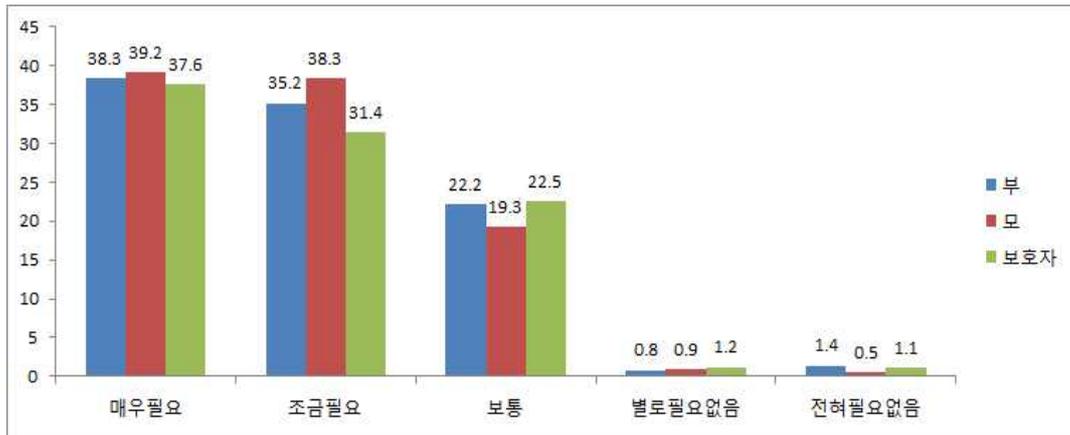


[그림 III-65]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단위: %)

<표 III-65> 진로 계발 사교육 여부

구분	내용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다양화 필요성	매우 필요함	8,346	38.5
		조금 필요함	7,942	36.6
		보통이다	4,506	20.8
		별로 필요 없음	234	1.1
		전혀 필요 없음	161	0.7
		무응답	493	2.3
		합계	21,682	100.0
학부모	다양화 필요성	매우 필요함	4,127	38.9
		조금 필요함	3,932	37.0
		보통이다	2,130	20.1
		별로 필요 없음	98	0.9
		전혀 필요 없음	79	0.7
		무응답	247	2.3
		합계	10,613	100.0
학생	다양화 필요성	매우 필요함	4,219	38.1
		조금 필요함	4,010	36.2
		보통이다	2,376	21.5
		별로 필요 없음	136	1.2
		전혀 필요 없음	82	0.7
		무응답	246	2.2
		합계	11,069	100.0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부모(또는 보호자)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필요’ 항목에서는 아버지는 38.3%, 보호자는 37.6%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9.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조금필요’항목에서는 아버지가 35.2%, 보호자가 31.4%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38.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높은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항목에서는 아버지가 22.2%, 보호자가 22.5%를 나타냈고, 어머니는 19.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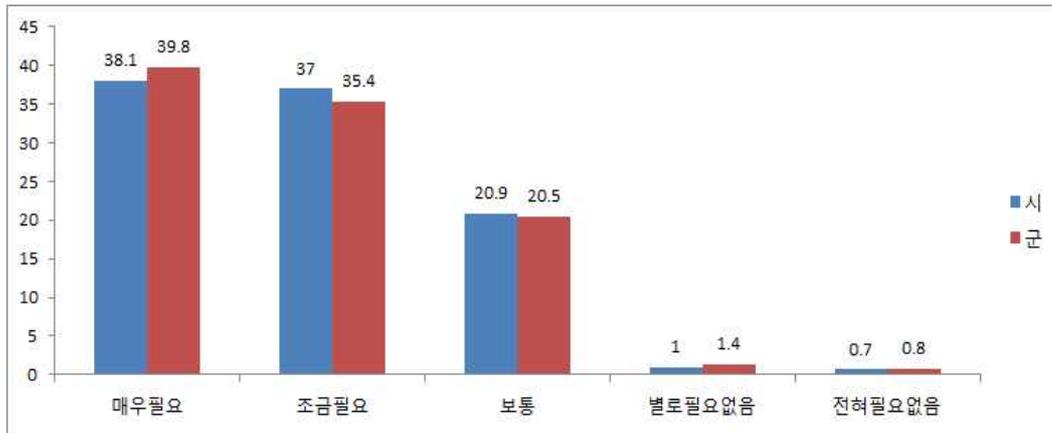
[그림 III-66] 학부모(보호자)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표 III-66> 학부모(보호자)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구분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필요 없음	전혀필요 없음	결측	합계	χ^2
부	38.3	35.2	22.2	.8	1.4	2.1	100.0	135.203*** (df=15)
모	39.2	38.3	19.3	.9	.5	1.8	100.0	
보호자	37.6	31.4	22.5	1.2	1.1	6.1	100.0	
전체	38.37	34.97	21.33	0.97	1.00	3.33	100.0	

***: $p < .001$, **: $p < .01$, *: $p < .05$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시군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필요’ 항목에서는 시지역이 38.1%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39.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조금필요’항목에서는 시지역이 37.0%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35.4%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시지역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보통이다’항목에서는 시지역이 20.9%를 나타냈고, 군지역이 20.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군지역이 낮은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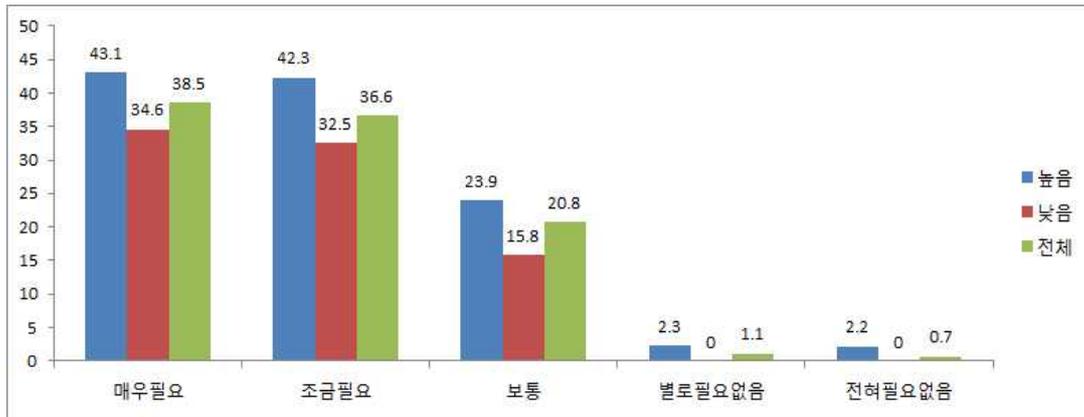
[그림 III-67] 시군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표 III-67> 시군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구분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결측값	합계	χ^2
시	38.1	37.0	20.9	1.0	.7	2.3	100.0	12.514* (df=5)
군	39.8	35.4	20.5	1.4	.8	2.2	100.0	
전체	38.5	36.6	20.8	1.1	.7	2.3	100.0	

***: $p < .001$, **: $p < .01$, *: $p < .05$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역별 구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우 필요’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은 38.5%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통영시는 43.1%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김해시는 34.6%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조금 필요’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36.6%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의령군은 42.3%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고성군은 32.5%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보통’ 항목에서 지역별 전체 평균이 20.8%인데 가장 높은 지역인 밀양시는 23.9%를 나타냈고, 가장 낮은 지역인 의령군은 15.8%로 상대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III-68] 지역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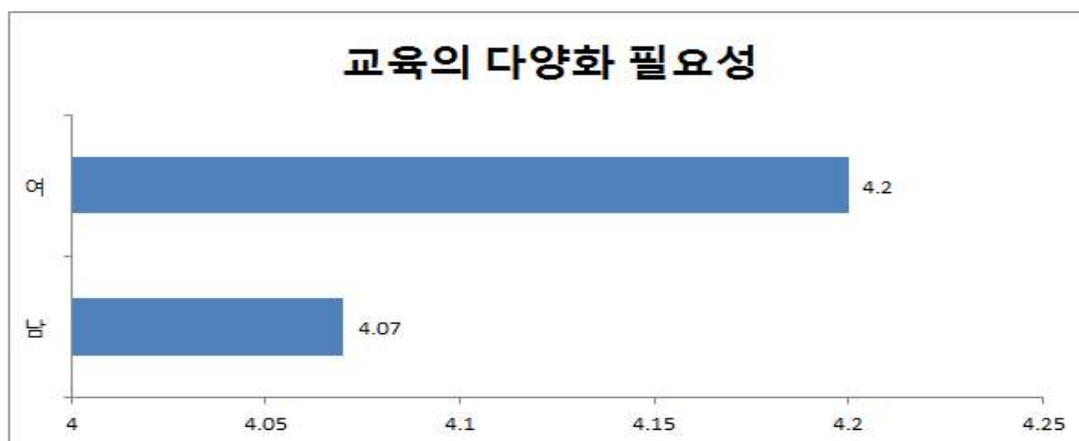
<표 III-68> 지역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단위: %)

구분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필요없음	전혀필요없음	결측	합계	χ ²
거제시	39.5%	36.2%	20.1%	1.2%	1.0%	2.0%	100.0%	191.464*** (df=105)
거창군	40.1%	36.6%	19.8%	.8%	.2%	2.5%	100.0%	
고성군	40.9%	32.5%	21.2%	1.9%	.9%	2.6%	100.0%	
김해시	34.6%	39.3%	21.9%	.9%	.8%	2.5%	100.0%	
남해군	37.8%	33.8%	23.0%	1.2%	1.4%	2.8%	100.0%	
밀양시	36.0%	34.7%	23.9%	1.0%	.7%	3.7%	100.0%	
사천시	42.1%	33.9%	20.7%	.6%	.9%	1.7%	100.0%	
산청군	39.9%	35.1%	18.7%	1.9%	2.2%	2.2%	100.0%	
양산시	39.7%	35.2%	20.6%	.9%	1.4%	2.3%	100.0%	
의령군	40.8%	42.3%	15.8%	0.0%	.4%	.8%	100.0%	
진주시	38.3%	36.7%	20.1%	1.0%	1.1%	2.9%	100.0%	
창녕군	35.0%	36.5%	23.7%	2.3%	1.3%	1.3%	100.0%	
창원시 마산합포구	40.0%	34.8%	20.7%	1.4%	.6%	2.5%	100.0%	
창원시 마산회원구	36.3%	38.6%	21.9%	.9%	.6%	1.7%	100.0%	
창원시 성산구	38.0%	36.6%	21.9%	.8%	.2%	2.5%	100.0%	
창원시 의창구	37.5%	39.3%	19.0%	1.1%	.3%	2.7%	100.0%	
창원시 진해구	39.7%	37.5%	20.1%	1.0%	.5%	1.1%	100.0%	
통영시	43.1%	34.9%	18.8%	1.1%	.5%	1.6%	100.0%	
하동군	42.0%	37.0%	16.3%	1.7%	.4%	2.6%	100.0%	
함안군	41.9%	34.4%	19.2%	1.4%	.5%	2.7%	100.0%	
함양군	39.3%	34.8%	22.7%	1.3%	0.0%	1.9%	100.0%	
합천군	39.7%	33.6%	23.6%	1.0%	.6%	1.5%	100.0%	
전체	38.5	36.6	20.8	1.1	0.7	2.3%	100.0%	

***: p<.001, **: p<.01, *: p<.05

학생의 성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의 성별과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평균이

4.07 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평균이 4.20 이었다. 이로 볼 때, ‘여학생’항목의 진로 계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이 ‘남학생’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I-69] 학생 성별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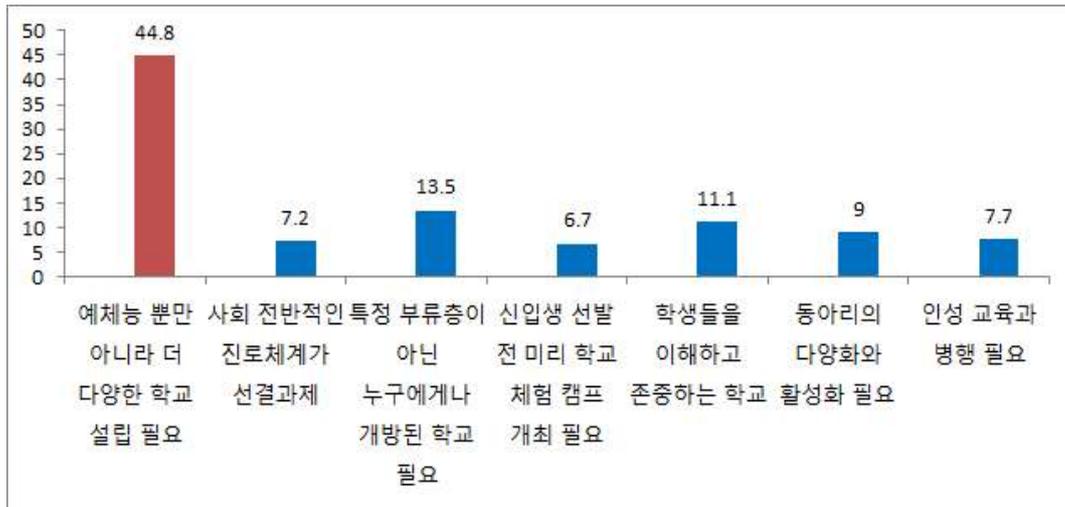
<표 III-69> 학생 성별 *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 관계

구분	N	M	SD	F	t
남	10419	4.07	.86231	2.440	-11.596***
여	10459	4.20	.80256		

***: p<.001, **: p<.01, *: p<.05

9.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대한 기타 의견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대한 기타 의견 상위 7개 항목은 ‘예체능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학교 설립 필요’가 44.8%(N=193)로 가장 많았고, ‘특정 부류층이 아닌 누구에게나 개방된 학교 필요’ 13.5%(N=58),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필요’ 11.1%(N=48), ‘동아리의 다양화와 활성화 필요’ 9.0%(N=39), ‘인성 교육과 병행 필요’ 7.7%(N=33), ‘사회 전반적인 진로 체계가 선결과제’ 7.2%(N=31), ‘신입생 선발 전 진로 탐색을 위한 학교 체험 캠프 미리 개최 필요’ 6.7%(N=29) 순이었다. 따라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예체능 분야외에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체육, 요리, 과학 등의 기타 분야의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의 설립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70] 다양성 학교 설립 관련 기타 의견 (단위: %)

<표 III-70> 전체 - 다양성 학교 설립 기타 의견 상위 7개 항목

구분	선택 사항	N(명)	백분율(%)
전체	예체능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학교 설립 필요	193	44.8
	사회 전반적인 진로체계가 선결과제	31	7.2
	특정 부류층이 아닌 누구에게나 개방된 학교 필요	58	13.5
	신입생 선발 전 미리 학교 체험 캠프 개최 필요	29	6.7
	학생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학교	48	11.1
	동아리의 다양화와 활성화 필요	39	9.0
	인성 교육과 병행 필요	33	7.7
합계	431	100.0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 론(논의 포함)

첫째, 설문자 전체(학부모, 학생)의 희망 고교 선택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대안학교(진로)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市지역은 일반고와 특목고에서, 郡지역은 특성화고와 대안학교(진로)에서 선호가 높은 상대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특목고를 선호하는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로 나타났다.

일반고를 선호하고 대안학교(진로)에서 선택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일반고가 경남에 가장 많고(전국 최고비율), 대안학교(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교육과정 등에 대해 아직 학생과 학부모가 구체적인 인지가 미흡하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진로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는 郡지역이 市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읍면 지역과 도시 비평준화 지역이 도시 평준화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 구분측면에서는 여학교, 남녀공학학교, 남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학의사 선호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진로 다양성 학교 선택 분야는 기타, 음악, 미술, 영화·연극, 한방·약초 순으로 나타났다. 제일 비중이 높았던 기타 분야는 체육, 요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중 母는 미술 분야를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수단의 운영형태는 기숙과 통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郡지역 학생들은 기숙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들이 활동하는 동아리 분야는 체육, 문화예술, 과학, 학업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중 母는 문화예술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市지역은 문화예술, 과학, 학업 분야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고, 郡지역은 체육 분야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초기 예산이 많이 드는 미술 분야와 악기를 활용한 음악 등의 문화예술 등은 시지역이 유리하고 초기 예산이 적게 드는 구기 운동 중심의 체육 분야에서의 활동이 원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섯째, 진로에 대한 상담자는 부모님(또는 부모님 지인), 기타, 담임선생님, 진로진학상담선생님,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타항목은 ‘상담자가 없음’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중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직 중학교 단계에서는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市지역은 부모님(또는 부모님 지인)과 학원(또는 과외)선생님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았고, 郡지역은 상대적으로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을 통해 진로상담을 한 경우에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진학의사와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온 연구결과를 통해, 진로진학상담선생님을 통한 진로상담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 개발의 사교육 분야는 영어, 기타, 음악, 미술, 요리, 연기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기타분야는 체육과 수학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진로 개발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구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체능 분야와 요리 분야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영어, 수학 등의 학력향상을 위한 사교육 비중이 높은 것은 결국 도구과목의 학력 제고를 통해 대입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여섯째,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성이 높게 나왔다.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관한 기타 의견은 ‘예체능외 다양화된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가 설립되었으면 좋겠다.’와 ‘특정 부류층이 아닌 일반학생들이 갈 수 있는 열린 학교가 많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학교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했다. 그 외에 일반학교 내에 동아리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견과 진로 다양성 프로그램과 체험할 곳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가. 공립 예술형 대안고교(1개분야 중점형) 권역별 설립

연구결과를 보면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의 희망분야 선택에 대해 기타(체육, 요리)가 많고, 그 다음이 음악, 미술, 영화연극, 한방약초 순이었다. 따라서 공립 예술형 대안고교를 경남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형태는 예술형 1고교, 2고교, 3고교, 4고교 등의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예술형 1고교는 연기중심, 2고교는 음악중심, 3고교는 미술중심 등으로 대안고교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형 대안고교는 영화, 연극, 음악, 미술 등 한 분야만을 설립하는 것이 폐교를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로와 취업도 시대 흐름의 유행을 따라가므로 하나의 분야만을 학교 명칭으로 하여 설립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다소 크다 하겠다. 과거 단성고에 한방학과가 있었으나

학생수요가 없어 폐과되었고, 골프과가 있었으나 역시 폐과된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술형 대안고교라는 명칭을 주명칭으로 사용하고 지역과 권역의 특성을 살린 1개의 중점분야를 부명칭으로 부가시킴으로써 추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의 흐름에 따라 융통적으로 상황에 맞게 학과와 인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을 새로이 하는 것도 특화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진로 혁신학교, 진로 행복학교 등을 들 수 있다. 아니면 공모를 통해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에 대한 네이밍을 새롭게 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경남 교육청의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나. 보다 다양한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예술학교외에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 의견이 많았던 체육, 요리(조리), 과학과 국제언어특성화학교(다문화 학생과 중도입국학생 대상) 등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는 역시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 위주의 소수 엘리트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만들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운영한다. 다음은 과학과 국제언어특성화 학교에 대한 설립배경 및 내용에 대해 기술한 것이다.

1) 과학형 대안학교

설립 배경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수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과학고가 아니라 일반 학생들중 체험과 실험 위주의 과학 교육과 인프라 수요 상존한다는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설립한다.

둘째, 체계적인 과학 수업과 체험위주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진로생애 설계와 취업 및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능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원시의 기계, 사천의 항공 산업 등 우리지역 특화산업을 계약학과 형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자연계, 이공계를 원하는 다수의 보통 일반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제언어특성화 학교

첫째, 이중 언어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학생을 일부 수용하여 한국의 언어와 문화는 물론 모국의 언어와 역사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과 이중언어 특기를 특성화로 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체계적인 역량 배양을 도모한다.

둘째,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때 들어오는 한국어가 매우 서투르지만 이중언어의 특기를 가진 중도입국자녀에게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문화이해를 도와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경남에서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를 설치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미흡으로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는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시간을 제외하고 다수의 일반 교과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과목교사가 다른 중·고등학교에서 방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분노조절장애 촉발 가능성)하나 이를 치유해주고 지속적인 상담을 해줄 교사나 인력 부족하므로 체계적인 시스템 필요함. 체계적이지 않은 교육 시스템으로 학업중단 및 이탈률이 증가하므로 국제언어특성화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특기를 배양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 공교육 편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해 통일시대의 대안을 준비하고 남한사회에서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경남은 베트남, 중국, 일본, 고려인(우즈베키스탄, 타자키스탄 등)이 다문화 학생과 중도입국학생의 주류를 이루므로 위 언어를 기반으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제언어특성화 학교를 설립하여 공교육에서 수동적으로 학생들을 수용하는 돌봄의 목적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중언어를 비롯한 특기와 적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일반고 내 진로 중점과정 및 다진로 프로그램 개발 검토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희망 고교 유형은 일반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남은 일반고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반대로 특성화고 비율은 전국 최저이다. 일반고 비율은 경남의 학력 향상과도 맞물려 있다. 일반고를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일반고 내에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예술중점과정, 과학중점과정처럼 여러 중점과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과정은 학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융통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이다. 동아리 프로그램을 진로와 적극 연결하여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금 현재의 대입은 수시이고 수시는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맞춤형 진로 중점과정과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부에 적을 거리를 풍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라. 진로 탐색기관 신설 또는 진로 대안학교 활용

연구 결과의 종합의견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을 거리를 풍부하게 해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대교협이 규정한 학생부종합전형에 의하면 학교외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적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것은 학교 내 활동과 교육청에서 주관한 활동만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진로 맞춤형 다양성 대안학교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부에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진로 탐색기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입(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한 경남의 대학 진학을 향상 위한 학교생활기록부(창의적 체험활동) 공인 기록처로서의 진로직업체험교육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매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 등은 수시 10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가 두드러져 머지않아 수시는 거의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맞아 중학생과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간은 주말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탐색과 체험을 원하는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규과정은 단기(6월), 중기(1년), 장기(1년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진로 선택 기회부여를 부여한다. 비정규과정은 방과 후, 야간,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방학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2015년 진로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발효를 기반으로 한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구현 실천으로서의 역할 및 이러한 연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도 한 장점으로 보인다.

마. 교육 협동조합(마을교육공동체)과 연계 구축

교육 협동조합은 앞으로의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교육연계로서의

미래다. 기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 매점이나 교복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설학교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복, 매점, 방과후 사업, 급식의 로컬푸드, 교재나 문구류의 지방구매 등을 통해 교육협동조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본다. 신설될 대안학교에서 또한 사회적 기업화로서 학생들이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적극적인 마을과 학교의 공동체 연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조화를 위한 마을 학교(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 사전에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과 학교 구성원으로 참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보완 연구 및 설립 후 지속적 평가 연구 필요

본 연구 외에 진로 맞춤형 대안학교 설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 가지를 연구를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지역의 필요성이 자발적인지의 여부 등을 직접 물어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학교의 설립 뿐만 아니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항목에는 지역자원인 인적, 물적자원 등의 파악과 및 지역의 상황분석 예컨대, 지역 구성원의 분포 등을 기초자료로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 학생,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별 요구분석의 유의미성을 밝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지역별, 분야별 진로 대안학교 연구의 성과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학교 설립후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의 만족도, 학부모의 만족도, 교사의 만족도, 지역 구성원과의 협력 관계 등을 횡단과 종단연구를 통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지속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 교육부(2005). 대안교육의 영향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008). 대안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 연구.
---(2010). 대안교육 종합발전 방안.
---(2011). 창의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발전방안 연구.
김서영, 백지숙(2009). 대안 고등학교 학생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정체
감과 진로성숙도의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 7(4), 69-75.
김정숙, 남영숙(2011). 공립 대안학교의 탐색과 지속가능한 대안학교로의 운영
방안 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7-51.
김정후(201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류호연(2015).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의식 변화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효태(2012). 인가형 대안학교와 비인가형 대안학교 학생들의 진로 성숙도와
사회적응력 비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혜영(2003).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태도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
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춘화(2003). 대안학교 교육 만족도 분석.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인진(2010). 대안학교 졸업생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지덕영(2005).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 실제 과학 수업 비교 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연수(2015). 학교 밖 청소년의 도시형 대안학교 적응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 논문.
황진아(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 미용교육 만족도와 진로인식에 대한 연구. 광
주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준희(2015). 비인가 대안학교 청소년의 자립준비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
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반 자료>

- 교육부(2014).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
교육부(2014). 전국 시도 학교 학생 수 현황.

<학생용>

__① 기숙형 __② 통학형 __③ 기숙+통학 병행 __④ 기타()

질문5. 평소에 즐겨하고 있거나 하고 싶은 동아리 활동 분야는 무엇인가요 ?

__① 문화예술 __② 봉사 __③ 스포츠 __④ 학업(외국어 등)
__⑤ 과학(실험 및 실습 등) __⑥ 기타()

질문6. 본인의 진로에 대해 주로 누구와 상담하고 있나요 ?

__① 담임 선생님 __② 학원(또는 과외) 선생님 __③ 부모님(보호자)
__④ 진로진학상담 선생님 __⑤ 기타()

질문7. 현재 본인의 진로개발(적성, 특기)을 위한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

__① 받고 있다 __② 안 받고 있다

7-1. (질문 7의 ①번 응답자만) 사교육을 받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

__① 연기 __② 음악(악기, 노래포함) __③ 미술(디자인, 도예포함)
__④ 요리 __⑤ 외국어(영어포함) __⑥ 기타()

질문8. 진로개발을 위한 학교 교육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__① 매우 필요함 __② 조금 필요함 __③ 보통이다
__④ 별로 필요 없음 __⑤ 전혀 필요 없음

(주)질문.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 기초 자료 ***

1. 성별: __① 남 __② 여
2. 학년: __① 1학년 __② 2학년
3. 학교 구분: __① 남학교 __② 여학교 __③ 남녀공학
4. 학교소재지: __① 읍·면 __② 도시(평준화) __③ 도시(비평준화)

※ 평준화: 창원(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주, 김해(장유제외)
비평준화: 위 평준화 지역 외 도시지역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 관련 설문 조사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 계발과 그에 따른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진로 맞춤형 다양성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

※ 아래 물음을 읽고 해당 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답은 1개만 체크)

질문1. 자녀의 고교 진학시 어떤 학교를 선택하고자 하십니까 ?

- ① 일반고(인문/자연계) ② 특성화고(전문계) ③ 특목고(과학고, 외고) ④ 대안학교(진로다양성) ⑤ 기타()

질문2. 자녀의 고교 진학시 학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 ① 교과 성적 ② 통학 편의 ③ 대입 유리 ④ 진로 관련 ⑤ 부모님(또는 보호자)권유 ⑥ 기타()

질문3. 자녀의 고교 선택에 대한 최종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

- ① 본인 ② 부모님(보호자) ③ 기타()

질문4. 자녀의 **진로 선택에 부합하는 다양성 학교**가 생긴다면 보낼 생각이 있습니까 ?

- ① 매우 가고 싶음 ② 조금 가고 싶음 ③ 모르겠다 ④ 별로 가고 싶지 않음 ⑤ 전혀 가고 싶지 않음

4-1. (질문 4.의 ①, ② 응답자만) 어떤 분야에 보내고 싶습니까?

- ① 영화·연극 ② 음악 ③ 미술(디자인·도예포함) ④ 한방·약초 ⑤ 기타()

4-2. (질문 4.의 ①, ② 응답자만) 통학수단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 ① 기숙형 ② 통학형 ③ 기숙+통학 병행 ④ 기타()

